

IV. 『나가르주나의 대지도론』¹⁾

보디사뜨와 나가르주나 짓고²⁾

후진 시대

쿠차 국 삼정법사

꾸마라지바 옮김³⁾

1) *TRAITÉ DE LA GRANDE VERTU DE SAGESSE*(*THE TREATISE ON THE GREAT VIRTUE OF WISDOM*), MAHĀPRAJÑĀPĀRAMITĀŚĀSTRA

2) COMPOSÉ PAR LE BODHISATTVA NĀGĀRJUNA(COMPOSED BY THE BODHISATTVE NĀGĀRJUNA)

3) TRADUIT PAR LE TRIPĪṬAKADHARMĀCĀRYA KUMĀRAJIVA DU PAYS DE COUTCHA SOUS LE TS'IN POSTÉRIEUR(TRANSLATED BY THE TRIPĪṬAKADHARMĀCĀRYA KUMĀRAJIVA OF THE LAND OF KOUTCHA UNDER THE LATER TS'IN)

제1장

마하쁘라즈냐빠라미따를 설하는 이유 해설⁴⁾

[귀경계]⁵⁾

붓다가 두루 답파한⁶⁾ 큰 길, 뿌라즈냐빠라미따,⁷⁾

붓다가 고갈시킨⁸⁾ 큰 바다, 뿌라즈냐빠라미따,

뿌라즈냐빠라미따의 진정한 의미,⁹⁾ 붓다에게는 막힘이 없어라.

하여 뿌라즈냐빠라미따 그리고 견줄 수 없는 그분¹⁰⁾ 붓다께 절 올립니다.¹¹⁾

4) 다양한 한역본 제명: 大智度論, 大智度初序品中緣起義釋論第一, 卷第一'(高麗大藏經); 摩訶般若波羅蜜經釋論 十字(宋本, 元本, 宮內省圖書查本)[舊宋本], 正倉院聖語藏本, 石山寺本); 大智度論卷第一緣起論第一 十二字(宋本, 宮內省圖書查本); 大智度論卷第一緣起論 十字(元本, 明本), 說大智度緣起品第一 九字(正倉院聖語藏本), 大智度論緣起第一 八字(石山寺本). 이 도입부에서 용수 보살은 붓다가 마하뿌라즈냐빠라미따를 설한 이유(EXPOSÉS DES RAISONS, EXPLANATION OF ARGUMENTS)를 스무 가지를 보디사뜨와의 길 중심으로 축자적으로 분석한다.

5) 大智度論和譯-1-, 中祖一誠, 諏訪義一, 大野榮一, 吉田道興, 愛知学院大学禅研究所, *Journal of the Institute for Zen Studies*, Aichigakuin University(14), p. 141~302, 1985 참조.

6) parcourir, travel, 從來

7) le Prajñāpāramitā, 智度

8) épuiser, drain, 窮盡(窮底)

9) le vrai sens, the true meaning, 相義

10) sans égal, unequalled, 無等

11) s'incliner, prostrate, 稽首

첫 네 시절(詩節)은 붓다(le Buddha), 다르마(dhárma), 상가(saṃgha) 삼보(triratna)에 바치는 헌시(귀경계). 첫 시절의 뿌라즈냐빠라미따는 붓다 찬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곧 뿌라즈냐빠라미따이기 때문이다(Mppś, T 1509, k. 4, p. 93 a; k. 34, p. 314 a; k. 70, p. 550 a. - *Mahāprajñāpāramitāsūtra*, T 220, k. 441; p. 224 c. - *Pañcaviṃśati*, T 223, k. 14, p. 323 b) 참조.

붓다의 법칙의 핵심 뿌라즈냐빠라미따를 어머니에 비유한 Mppś 구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Mppś. T 1509, k. 4, p. 92 c ~ 93 a: "그런데 뿌라즈냐빠라미따의 공덕은 바닷물처럼 무량하고(apramāṇa) 무한하다(ananta). 천신(Deva), 성인(Ārya), 아르하트(Arhat), 프라트예까붓다(Pratyekabuddha, 緣覺) 내지 초행-보디사뜨와(ādikārmika-bodhisattva, 新學菩薩)조차도 그 궁극을 알 수 없다. 십지(daśabhumi)에 머무는 보디사뜨와만이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어찌 대지와 성곽, 취락을 구분하고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해서 뿌라즈냐빠라미따의 원만성취라 할 것인가? 대지 구분은 평범한 산술이니, 이것은 거대한 바닷물 가운데 한 방울처럼 세속 지혜(saṃvṛti-prajñā)의 소소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뿌라즈냐빠라미따는 삼세 모든 부처의 어머니(Buddhamātrī)이라 불리며,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을 드러낼 줄 안다. 이 뿌라즈냐빠라미따는 오가는 곳도 없으며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기에 환술, 메아리, 눈에 보이다가 곧 사라지는 물에 비친 달 같도다."

2. Mppś. T 1509, k. 34, p. 314 a: "답: 이 경의 명칭은 뿌라즈냐빠라미따이다. 붓다는 이 일을 해설하고자 각 품별로 뿌라즈냐빠라미따를 풀이해 놓았다. 부모 공덕 가운데 어머니 공덕이 가장 중요하므로 붓다는 뿌라즈냐를 어머니으로 모시고, 프라트윳판나사마디('pratyutpanna-samādhī 般舟三昧', 現前三昧)를 아버님으로 모신다. 사마디는 단지 산란한 마음을 바로잡아 지혜를 얻어 이루게 하지만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을 볼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뿌라즈냐빠라미따는 능히 모든 법칙을 두루 살피고 진정한 특성을 분별하여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할 것 없는 만큼 그 공덕이 지대하

있음·없음 두 견해¹²⁾ 남김없이 없애,¹³⁾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 설한 붓다,
 늘 그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번뇌를 말하시니,
 붓다의 존엄한 법칙에 절 올립니다.

숭고한 무리¹⁴⁾ - 드넓은 바다 - 공덕의 밭¹⁵⁾ 갈고,
 수행자¹⁶⁾와 깨달은 자¹⁷⁾ 모두 이 밭을 아름답게 일구니,¹⁸⁾
 이 숭고한 무리 윤회¹⁹⁾ 낳는 갈애 타파하고,
 ‘내 것’이란 느낌²⁰⁾ 소멸하여 그 뿌리마저 뽑아버렸다오.²¹⁾

여 이를 어머니이라 하니, 수행자들은 비록 여섯 빠라미따를 행하고 갖가지 공덕으로 서원을 제대로 갖추었을지라도 오직 이 뿌라즈나빠라미따를 배우라고 설하였다.”

3. Mppś. T 1509, k. 70, p. 550 a: “뿌라즈나빠라미따는 모든 부처의 어머니인지라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처는 뿌라즈나빠라미따에 준거하여 머문다. 이외의 경들에서 ‘모든 부처는 법칙에 준거하여 법칙을 스승으로 모신다.’고 설한다. 붓다가 이 경에서 수부띠에게 말한 모든 법칙이란 바로 이 뿌라즈나빠라미따이다.” T 220, k. 441, p. 224 c. - *Pañcaviṃśati*, T 223, k. 14, p. 323 b 등.

12) deux vues. two views, 二見: 有無見(*bhavadr̥ṣṭi-vibhavadr̥ṣṭi, astidr̥ṣṭi-nastidr̥ṣṭi*)

13) ‘있음·없음 견해(vue de l’existence et de la non-existence, *bhavavibhavadr̥ṣṭi*)’, 나아가 ‘극단의 존재를 믿는 견해(vue de la croyance aux extrêmes, view of belief in the extremes, *antagrāhadr̥ṣṭi, 邊執見*)’라는 이 견해는 영원(*śāśvata, 常*)과 소멸(*uccheda, 斷*)의 존재를 상징한다. 붓다와 나가르주나는 이 견해를 여러 번 비판하였다.

Cf. *Samyutta*, II, p. 17: *Sabbam atthīti kho kaccāna ayam eko anto. Sabbam natthīti ayam dutiyo anto. Ete te Kaccāna ubho ante anupagamma majjhena Tathāgato dhammam deseti.* 역자 번역(이하: TTr) “깃짜야냐여, ‘모든 것 있음’이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 없음’은 두 번째 극단이다. 깃짜야냐여, 여래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로 법칙을 설하노라.” - *Madh. Kārikā*, XV, 10, p. 272~273:

astīti śāśvatagrāho nāstīti ucchedadarśanam |

tasmād astitvanāstīve nāśrīyeta vicakṣaṇaḥ ||

TTr. ‘반드시 있음’이라는 영원성에 매달리고 ‘반드시 없음’이라는 소멸에 매달렸네. 고로 지혜로운 자란 있고 없음에 매달리지 않는다네.

중도는 有無見(*bhavavibhavadr̥ṣṭi*)=있음(*bhava*)·없음(*vibhava*) 및 ‘이다·아니다’ 같은 이원론적 대립으로부터의 벗어남이다. - “『능엄경(*Laṅkāvatāra*)에서 예견되듯 용수의 위대함은 존재관(le sat)과 동시에 비존재관(l’asat)을 파기한 것이다.” - Louis de la Vallée Poussin, 『중국 및 불교 논집 (*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Vol. II 1932~1933, l’Insitut Belge des Hautes Études, Bruxelles, Louvain, 1933, p. 6.

14) la noble Assemblée, the noble Assembly, 聖衆(佛, 聲聞, 緣覺, 菩薩)

15) le champs de mérites, the field of merits, *puṇyakṣetra*, 福田(最勝福田, 敬田, 恩田. 悲田)
 다시 말해 빼어난 복밭으로서의 붓다.

16) Śaiksa, need of study, 學(四向四果 前七階)

17) Aśaiksa, 無學(阿羅漢果)

18) 莊嚴(智慧莊嚴, 福德莊嚴)

19) les renaissances, the rebirths, *saṃsara*

쾌락과 갈망에 빠져 윤회에서 윤회로 인도하는 갈애(渴愛)(*tr̥ṣṇā paunarbhavikī, 後有愛*)는 도처에서 쾌락을 갈망한다: 欲愛(la soif de plaisir, the thirst for pleasure, *kāmatan̥hā*), 有愛(la soif d’existence, the thirst for existence, *bhavatan̥hā*), 非有愛(la soif d’impermanence, the thirst for impermanence, *vibhavatan̥hā*) - *Vinaya*, I, p. 10.

20) le sentiment du mien, the feeling of ‘mine’, *attātmīya*, 我所(我所有)

21) 有身見(*satkāyadr̥ṣṭi*)을 구성하는 ‘나’와 ‘내 것’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ātmātmiyagrāha*, 計我我所).

모든 세간사²²⁾ 미련 끊으니,
송고한 무리야말로 갖가지 공덕의 터전.
온갖 무리 가운데 으뜸이시오.
하여 매우 덕 높고 순수한 이 무리²³⁾에 절 올립니다.

온 마음 다해 삼보²⁴⁾를 공경해 온 이 몸,
세상을 구원한 존재들, 마이뜨레야²⁵⁾ 등등,
지혜 제일 사리뿌뜨라,²⁶⁾
번뇌 여인 비어 있음²⁷⁾을 실천하는 수부띠²⁸⁾도 [공경하오니].²⁹⁾

힘닿는 대로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
그 참된 의미³⁰⁾ 설명드리고자 하오.
거룩한 자들, 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들이시여,
오직 한 마음으로 제 말씀 귀 기울여 주시길.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를 설하는 이유]

물음. - 붓다는 무슨 이유³¹⁾로 『마하반야바라밀경』³²⁾을 설하는가? 모든 부처는 아무 이유³³⁾ 없이 하찮은 동기³⁴⁾로 법칙을 설하지³⁵⁾ 않는다. 이것은 마치 산들의 제왕³⁶⁾ 수메르³⁷⁾가 이유 없이 하찮은 동기로 요동치지 않음과 같다. 그러나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 심오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보디사뜨와들의 실천]

답. - 1. 붓다는 트리삐따까³⁸⁾에서 온갖 종류의 비유³⁹⁾를 폭넓게 전개하였다. 하지만 스라

22) les choses du monde, the things of the world, 世間諸事業(以諸弟子捨俗生具及俗事業. 爲求解脫歸佛出家(T 29 117 a, 『阿毘達磨俱舍論』)

23) Assemblée pure et très méritante, Assembly that is pure and full of merits. 大德僧

24) le Triple Joyau, three Jewels, *triratna*, 三寶

25) Mi lo, Maitreya, 彌勒(慈氏)

26) Śāriputra, 舍利弗

27) the concentration of non-dispute, *araṇāsamādhī*, 無諍(阿蘭那)空

타인에 대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제어하는 능력. 무쟁공행 가운데 수부띠가 최고(*Āṅguttara*, I, p. 24). Max Walleser, *Die Streitlosigkeit des Subhūti*, Heidelberg, 1917 참조.

28) Subhūti, 須菩提

29) [s'adresser, supplicate] - 라모트는 경전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프랑스어 동사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30) le vrai sens, the true meaning, 實相

31) les raisons, the reasons, *hetupratyaya*(cause-condition), 因緣

32) 저자가 말하는 Mahāprajñāpāramitāsūtra는 필시 반야(*prajñā*) 문헌 전체를 뜻하는 듯한데, 특히 논서 『대지도론』의 저본 『이만오천송반야』를 지칭한다.

33) la raison, the reason, *nidāna*, 因緣

34) le motif, the motive, *kārya*, 事

35) prêcher la loi, preach the Dharma, *dharmam deśayati*, 說法

36) le roi des montagnes, the king of mountains, *parvatarāja*, 山王

37) *Siu mi*, Sumeru, 須彌

38) *tripiṭaka*, 三藏

바카들⁴⁰⁾에게 법칙을 가르치면서도 붓다가 보디사뜨와의 길⁴¹⁾을 설한 적은 없다.⁴²⁾ 단지 『중아함(Madhyamāgama)』의 『본말경(Pūrvāparānatakasūtra)』⁴³⁾에서 보디사뜨와 마이뜨레야에게 “그대는 훗날 마이뜨레야라는[k. 1, p. 58 a] 이름의 붓다가 되리니”⁴⁴⁾라고 예언했을⁴⁵⁾ 뿐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조차 다양한 보디사뜨와의 실천⁴⁶⁾에 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 이에 붓다는 마이뜨레야 등에게 보디사뜨와들의 실천을 설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 이유이다.

39) les comparaisons, the comparisons, *dr̥ṣṭānta*, 喻

40) *śrāvaka*, 聲聞

41) le chemin des Bodhisattva, the Bodhisattva path, *bodhisattvamārga*, 菩薩道

42) 기존 결집 트리빠따까의 내용이 보디사뜨와의 실천과 거의 무관함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보디사뜨와의 길 실천을 위해 마하빠라즈나빠라미타를 설함을 강조함.

43) 『本末經(*Pen mo king, Sūtra of the beginning and the end*)』은 세 권의 한역 교정본으로 알려져 있다.

1. 『說本經(*Chou pen king du Tchong a han*)』, T 26(n° 66), k. 13, p. 508 c ~ 511 c; - 2. 『古來世時經(*the Kou lai che che king*)』, T 44, p. 829 b ~ 830 c; - 3. 『賢愚經(*Hien yu king*)』의 『波婆離品(*Po p'o li king*)』, T 202 (n° 57), k. 12, p. 432 b ~ 436 c. - 산스크리트본 경명 *Pūrvāparāntakasūtra*는 *Karmavibhaṅga*, p. 39와 p. 67에 두 차례 인용되고, 티베트 경명 *Sñon dañ phyi mthaḥi mdo*이 *Maitreyavyākaraṇa*, v. 2에 인용되어 입증된다. 이 경전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S. Lévi, 『위안자 마이뜨레야(*Maitreya le consolateur*)』, ML, II, p. 362~363을 볼 것.

미륵 관련 문헌은 상당하나 그 출현은 오히려 후대에 속한다. (『中阿含』, 『本末經』 *Tchong a han pen mo king* T 26, k. 13, p. 511 a와 *Dīgha*, Vol. III, p. 75: “지금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인간이 팔천 세 수명을 누리게 될 때 그대는 미륵 여래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빠알리 출전. - *Dīgha*, III. p. 75 sq; 『經集(*Sutta*)』, 『학인 아지따의 질문에 대한 경(*Ajītamānavapucchā*)』, v. 1932~2039 및 『학인 땃싸 멧떼이아의 질문에 대한 경(*Tissametteyyamānavapucchā*)』, v. 1040~1042; 『彌蘭陀王問經(*Milinda*)』, p. 159 『勝義疏(*Atthasālini*)』, p. 361, 415, 431; 『清淨道論(*Visuddhimagga*)』, II, p. 434; 『大史(*Mahāvamsa*)』 XXXII, v. 81 seq; *Anāgatavaṃsa*, JPTS, 1886.

산스크리트 및 한역 출전. - 『大事(*Mahāvastu*)』, I, p. 51 III, p. 246; *P'i p'o cha*, T 1545, k. 135, p. 135, p. 698 b; *Chouen tcheng li louen*, T 1562, k. 38, p. 559 a; 『俱舍論(*Kośa*)』 III, p. 193; VII, p. 120; IX, p. 269; *Kośavyākhyā*, p. 21, 293; 『悉地(*Siddhī*)』, p. 176, 418, 622, 737, 772; 『彌勒來時經(*Maitreyavyākaraṇa*)』, ed. S. Lévi, ML, II, p. 381~402; T 348, 349, 1143, 1525.

중앙아시아 출전. - 동부 이란어, 『彌勒下生經(*Maitreyasamitī*)』; 토하라어(Tokharian), 『彌勒下生經(*Maitreyasamitināṭaka*)』 단편들(*Toch. Sprachreste*, p.254, 주석); 소그드어(Sogdian), *les TSP de Benveniste*, p. 29, 115.

현대 연구. - 노엘 페리(Noël Péri),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BEFEO)』誌(*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XI, 1911, p. 439~457; P. Demiéville, BEFEO, 1920, XX, p. 158; XXIV, 1924, p. 240~241; Przuluski, 『인도 북서부(*Le N.-O. de l'Inde*)』, p. 58; 『般涅槃(*Le Parinirvāna*, p. 161, 178, 205, 332; 『인도 및 이란의 메시아 신앙(*La croyance au Messie dans l'Inde at dans l'Iran*)』, RHR, Vol. C, N° 1, Jul.~Aug. 1920, p. 1~12; 『인도 속의 이란 신(*Un dieu iranien dans l'Inde*)』, RO, VII, 1931, p. 1~9; S. Lévi, 『열여섯 아르하트(*Les seize Arhat*)』, 1916 JA 발췌, p. 14, 53; 『賢愚經(*Le sūtra du sage et du fou*)』, JA Oct.~Dec. 1025, p. 320~326; 『위안자 마이뜨레야(*Maitreya le consolateur*)』, ML, II, p. 355~492; R. Abegg, 『인도의 메시아 신앙(*Der Messias-glaube in Indien und Iran*)』, Berlin, 1928.

44) 『本末經(*Pūrvāparānatakasūtra*)』, T 26, k. 13, p. 511 a: “지금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팔천 세 수명을 누리게 될 때 그대는 미륵 여래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Dīghanikāya*, ed. T. W. Rhys Davids-E.J. Carpenter, 3 Vol. (PYS), London, 1890~1911, III, p. 75: *asītivassasahassāyukesu bhikkhave manussesu Metteyyo nā ma bhagavā loke uppajjissati, arahaṃ ...*(TTr: 빅슈들이여, 인간들이 팔천 세 수명을 누릴 무렵 ‘멧떼요(Metteyyo)’라는 바가와뜨가 세상에 출현하리라. 그는 아르하트...(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붓다, 바가와뜨이다.); *Tch'ang a han*, T 1 (n° 6), k. 6, p. 41 c.

45) faire la prédiction, predict, *vyākaraṇa*, 受記

46) les pratiques de bhodhisattva, the bodhisattva practices, *bodhisattvacaryā*, 菩薩行

[염불 사마디의 고양]

2. 또한, 염불 사마디⁴⁷⁾로 수행⁴⁸⁾하는 보디사뜨와들이 있어, 이들 사마디를 고양하기 위해 붓다가 보디사뜨와들에게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다. 뿌라스나빠라미따수뜨라 첫 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붓다, 그 신통력⁴⁹⁾의 근원을 보이며 황금빛을 발해 시방으로 갠지스의 모래⁵⁰⁾만큼 많은 세계를 두루 환히 비추도다. 거대한 몸을 맑고 깨끗한 빛과 갖가지 색으로 드러내니 창공이 붓다로 가득하다. 붓다, 무리들 가운데 곧고 아름다움 이에 견줄 자 없어, 마치 대양 한가운데 부유하는 산들의 제왕 수메르 같구나.”⁵¹⁾ 붓다의 이 기적⁵²⁾을 목격한 보디사뜨와들은 염불 사마디에 더욱 진전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 이유이다.

[전생의 서원을 상기하여 천신들의 청에 응함]

3. 또한, 그분 보디사뜨와는 처음 탄생 시 거대한 빛을 발하여 시방을 환하게 채우고 일곱 걸음을 걸어 사방을 응시하며 사자후⁵³⁾를 토하고 계송을 읊었다.⁵⁴⁾

이번 태어남으로 태생을 마감하리니
이것은 나의 마지막 육신⁵⁵⁾
이미 해탈⁵⁶⁾ 이룬 나는
이제 존재들을 구원하리라.⁵⁷⁾

47) la concentration de la commémoration des Buddha, the concentration of recollection of the Buddhas, *buddhānusmṛtisamādhī*(Buddha-Mindfulness Concentration), 念佛三昧
이에 관한 설명은 아래의 k. 7, p. 108 c ~ 109 b 참조(大智度初品中佛土願釋論第十三 卷第七).

48) cultive, cultivate, *bhāvayanti*, 修

49) le pouvoir miraculeux, the miraculous power, *rddhipāda*, 神足

50) les sables du Gange, the sands of the Ganges, *gaṅgānadīvālukopama*, 恒河沙

51) 붓다가 보인 기적은 k. 7, p. 111에 묘사되어 있다(大智度初品中佛土願釋論第十四 卷第七).

52) le miracle, the miracle, *prātihārya*, 神變

53) le cri du lion, the lion's roar, *simhanāda*, 獅子吼

54) 이 구절은 붓다의 단편적 전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록 짧고 진부해도 붓다 전설의 형성 단계 가운데 이 내용을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을지 밝혀주는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이 전기는 니까야-아가마(Nikāya-Āgama)에 산재한 전기들의 단편 이후에 속하며, 그 가운데 『因緣譚(Nidanakatha)』은 그 도입부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다음과 같은 붓다의 전기들과 공통점을 보이기도 한다: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Vinaya des Mūlasarvāstivādin)』, 『大事(Mahāvastu)』, 『方廣大莊嚴經(Lalitavistara)』, 『佛所行讚(Buddhacarita)』, 『漢譯佛傳(Chinese Lives)』, T 184~192). — 현대 저술로는 헤르만 베케(Hermann Becke), 『불교, 붓다 그리고 그 교의 I(Buddhismus, Buddha und seine Lehre I)』; 요한 헨드릭 카스파르 케른(Johan Hendrik Caspar Kern), 『인도 불교사 I(Histoire du Bouddhisme dans l'Inde I)』, p. 19~291; 케른(Kern), 『인도 불교 개론(Manual of Indian Buddhism)』(Grundriss d. IA Phil.), p. 12~46; 올덴베르크(Oldenbergh), 『붓다(Bouddha)』 p. 83~225; 리카르트 피셀(Richard Pischel), 『붓다의 생애와 법칙(Leben und Lehre des Buddha)』, p. 21~49; 세나르(Senart), 『붓다의 傳說 시론(Légende)』; 토마(Thomas), 『전설과 역사로서의 붓다의 생애(Life of the Buddha)』; Waldenschmidt, 『傳說(Legende)』 등을 볼 것(*앞의 III. 참고문헌 약어표 참조).

55) ma toute dernière existence, my last existence, 最末後身(最後有, 最後身)

56) la délivrance, the liberation, 解脫

57) sauver, save, 度.

플 무스 바라부두르(P. Mus, Barabudur), 『텍스트 고고학적 비평에 근거한 불교사 개요(Esquisse d'une histoire du bouddhisme fondée sur la critique archéologique des textes)』, 2 Vol.(Hanoi, 1935), p. 475~576은 늘 그러하듯 붓다의 탄생기에 담긴 상징성 및 정토(les terres pures) 연구를 통해 전설적 일화에 담긴 상징성을 능란하게 추출하고 있다. 여기에 한역 경전에서 가

려낸 정보를 추가해 본다. 출전 순서에 따라 니까야-아가마, 비나야(Vinayas)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붓다의 전기들(*Les vies de Buddha*)』을 검토하였다.

1°. *Majjima*, III, p. 123:

Sampatijāto, Ānanda, Bodhisatto samehi pādehi paṭiṭṭhahitvā uttarābhimukho sattapadavītiḥāre gacchati, setamhi chatte anubhiraṃāne sabbā cadisā viloketi, āsabhīṃ ca vācaṃ bhāsati: Aggo 'ham asmi lokassa, seṭṭho 'ham asmi lokassa, jeṭṭho 'ham asmi lokassa, ayam antimā jāti, na 'tthi dāni punabbhavo ti.” — 저자 라모트의 프랑스어 번역(이하: Tr) “태어나자마자 보디사뜨와는 발바닥을 편평히 땅을 밟고 북쪽으로 돌아서 칠보를 걸고 나서 흰 파라솔을 배경 삼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계 최고이자 최상이요 최장자이다. 이번 삶이 나의 최후 삶이다. 이제 내게 새로운 삶은 결코 없으리라.”

2°. *Dīgha*, II, p. 15: 동일한 행동과 말이 동일한 용어로 모든 미래의 부처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한역 아가마들은 이와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음에 유의하자.

3°. *Tchong*, T 26(n° 32), k. 8, p. 470 b: 바가와뜨가 태어나자 아무런 두려움도 공포도 무서움도 없이 일곱 걸음을 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4°. *Tch'ang a han*, T 1(n° 1), k. 1, p. 4 b~c: 毘婆尸菩薩(*The Bodhisattva Vipāśyin*)은 탄생 시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으며 그의 생각은 거침이 없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와 땅에 내려 누구의 도움 없이 일곱 걸음을 걸었다. 주위 사방을 응시하고 한 손을 들고 말했다. “오직 나만이 하늘과 땅에서 최장자(*jyeṣṭha*)이다. 존재가 태어남(*jāti*), 늙음(*jāra*), 병듦(*vyādhī*), 죽음(*marāṇa*)을 건너게 하리라.” — 여기서 “건너게 하리라”는 “벗어나게 한다”, “구원하다”를 의미한다.

우리는 根本說一切有部(*Mūlasarvāstivādin*) 비나야(ie Vinaya)뿐 아니라 大衆部(*Mahāsāṃghika*)의 說出世部(*Lokottaravāda*)의 『大事(*Mahāvastu*)』도 비나야에 포함시킨다.

5°.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Ken pen chou...p'o seng che*)』 T 1450, k. 2, p. 108 a: 통례를 따르면 보디사뜨와는 탄생 후 대지를 딛고 우뚝 섰다. 그 누구의 부촉도 없이 일곱 걸음을 걸었다. 주위 사방을 응시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동방, 나는 일체 존재 가운데 최고(*agra*)이며, 이것은 남방. 존재들로부터 공양(*pūjā*) 받을 만하며, 이것은 서방. 이미 운명은 예정되어, 재생(*renaissances, punarbhava, 後有*)을 겪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북방. 이제 윤회(*samsāra*)의 대해를 떠났다.” — 록힐(Rockhill), *Life*, p. 16과 비교할 것.

6°. *Mahāvastu*, II, p. 20: *Bodhisattvo smṛto saṃprajāno mātaram abādhayamāno dakṣiṇapārśvena prādurbhāvati ... Bodhisatto garbhāvāsaparīśrānto sapta padāni kramati.*

*jātammatro ca vikrame sapta vkramate bhuvī |
diśaṃ ca praveloketi makāhāsam ca ūhati ||*

Tr. 뚜렷한 의식으로 성찰하며 태어난 보디사뜨와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 옆구리로 모습을 드러냈다. 태내에 머물러 피곤했던 보디사뜨와는 일곱 걸음을 걸었다. 태어나자 곧 땅 위 일곱 걸음을 걷고 사방을 살피고 큰 웃음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다.

7°. 붓다의 전기 두 편(『修行本紀經(*the Sieou hing pen k'i king*)』, T 184, k. 1, p. 463, 207년, Ta li 역, 『太子瑞應本起經(*the T'ai tseu jouei ying pen k'i king*)』 T 185, k. 1, p. 473 c, 222년 혹은 228~229년, 吳月支優婆塞支謙(Tche k'ien) 번역도 붓다 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다: “붓다는 옆구리에서 태어나 지상으로 내려왔다. 일곱 걸음을 걷고 손을 들어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에서 최장자이다. 삼계(*traidhātuka*) 도처가 고통받고 있다. 삼계를 평화롭게 하리라.’고 했다.”

반면 다양한 *Lalitavistara* 교정본은 이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오래된 것은 CE 308년 축법호(Dharmarakṣa, T 186)의 교정본이며, 가장 최근의 것은 CE 683년 地婆訶羅(*Divākara*), T 187의 교정본으로 이 두 교정본이 산스크리트 원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8°. 『普曜經(*P'ou yao king*)』, T 186, k. 2, p. 494 a: 그때 보디사뜨와는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나 귀한 연꽃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땅으로 내려와 일곱 걸음을 걸었다. 브라흐마의 역양

(*brahmasvara*)을 올려 퍼지게 하며 출중한 음색으로 말했다: “하늘과 땅을 구하리라. 나는 인간의 신들 가운데 최장자, 이제 윤회의 고통을 끝내리라. 일체 존재에게 삼계에서 위 없는(*anuttara*), 무조 건적(*iconditionné, asaṃskṛta=nirvāna*) 영원한 평화(*la paix éternelle*)를 주리라.”

9° 푸코(Foucaux)가 번역한 *Lalitavistara*의 산스크리트 원전(p. 78)과 비교한 『方廣大莊嚴經 (*Fang kouang ta tchouang yen king*)』 T 187, k. 3, p. 553: “열 달이 다 되어 보디사뜨와는 자궁에서 흔적 하나 없이 나와, 뚜렷한 의식 상태에서 모친의 오른 옆구리로 나왔다. 그는 세상을 보고 자신에게 견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T 187(『方廣大莊嚴經』)

그때 성찰력과 판단력, 올곧은 사려심으로 누구의 도움도 빌리지 않은 채 보디사뜨와는 복방을 하여 일곱 걸음을 걸었다. 그의 발자국 아래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그때 보디사뜨와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이렇게 말했다: “일체 선한 법칙을 구했으니 이제 존재에게 이를 설하리라.”(산스크리트 텍스트: *Atha tasmin samaye bodhisattvaḥ simha iva vīgatabhayabhairavo 'samtrastah. astambhī sucintitaṃ smrtvā cintayitvā sarvasattvānāṃ cittacaritāni jhātva aparigrhīto bodhisattvaḥ pūrvāṃ dīśam abhimukhaḥ saptapadāni prakrāntaḥ. pūrvamaṃgamo bhaviṣyāmi sarveṣṃ kuśalamūlānāṃ dharmānāṃ. [tasya prakramata nṛpary antarikṣe 'parigrhitāṃ divyśvetavipuiachattraṃ cāmaraśubhe gacchantam anugacchanti sma]. yatra yatra ca bodhisattvaḥ padam utkṣipati sma tatra tatra padmāni prādurbhavanti sma*).

T 187

“그리고 나서 남방을 향해 일곱 걸음을 걷고 말했다: “나는 신들과 인간으로부터 공양받을 만하다.”(산스크리트 텍스트: *Dakṣiṇām diśam abhimukhaḥ saptapadāni prakrāntaḥ. dakṣiṇīyo bhaviṣyāmi devamanuṣyānām*).

T 187

“그리고 나서 동방을 향해 일곱 걸음을 걷고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장자요 최고이다. 이번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종지부를 찍으리라.”(산스크리트 텍스트: *Paścimām diśam abhimukhaḥ saptapadāni prakrāntaḥ. [saptame padesthitvā simha ivāhlādanātmikāṃ vācaṃbhāṣate sma.] ahaṃ loke jyeṣṭho 'hamloke śreṣṭhaḥ. iyaṃ me paścimā jātiḥ. kariṣyāmi jātijārdmaranaduḥkkasyāntam*).

T 187

그리고 북방을 향해 일곱 걸음을 걷고 말했다. “나는 모든 존재 가운데 무상이다.”(산스크리트 텍스트: *Uttarām diśam abhimukhaḥ saptapadāni prakrāntaḥ. anuttaro bhaviṣyāmisarvasattvānām*).

T 187

그리고 하방을 향해 일곱 걸음을 걷고 말했다. 마라의 모든 무리를 물리쳤다. 그리고 지옥, 불 등 기타의 고통을 떨하고자 거대한 법 구름을 보내어, 거대한 법의 비를 내리게 하리라. 이렇게 존재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산스크리트 텍스트: *Adhastād diśam abhimukhaḥ saptapadāni prakrāntaḥ. nihanīsyāmi Māraṃ ca Mārasenām ca. sarvanairayikānāṃ ca nirayāgnipratighātāya mahādharmameghavrṣṭim varṣiṣyāmi yena te sukhasamarpitā bhaviṣyanti*.)

T 187

그리고 상방을 향해 일곱 걸음을 걷고 말했다. “모든 존재가 나를 보게 되리라.”(산스크리트 텍스트: *Upariṣṭād diśam abhimukhaḥ saptapadāni prakrānta [ūrdhaṃ cāvalokayati sma]. ullokaṇīyo bhaviṣyāmi sarvasattvānām*).

10°. 『異出菩薩本起經 (*Yi tch'ou p'ou sa pen k'i king*)』, T 188, p. 618 a: 왕자는 넷째 달 여덟째 날 자정에 태어났다. 그는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와 땅으로 내려왔다. 엄지손가락 네 개 정도 높이의 땅 위에 떠서 일곱 걸음을 걸었다. 오른손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하늘과 땅에서 내가 최장자이니

아무도 나를 넘어설 수 없도다.”

11°. 『過去現在因果經(*Kouo k'iu hien tsai yin kouo king*)』 T 189, k. 1, p. 627 a: 왕자는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 칠보(*saptaratnapadma*)로 이루어진 연꽃 위로 내려와 일곱 걸음을 걷고나서 오른손을 들어 사자후(*simhanāda*)를 외쳤다: “신과 인간 가운데 내가 최장자이자 최선이다. 이제 끝없는 윤회는 [내게] 끝났도다. 나의 [마지막] 존재는 모두에게, 신들과 인간에게 유익하리라.”

12°. 『佛本行集經(*Fo pen hing tsi king*)』 T 190, k. 8, p. 687 b: 태어나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보디사뜨와는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내디뎠다. 걸음걸음마다 그의 발아래로 거대한 연꽃이 피어났다. 이 일곱 걸음을 걷고 사방을 바라보더니 눈의 깜박거림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먼저 동방을 보고는 전혀 어린아이답지 않게 정형 시구에 기초한 정확한 어구로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빼어난 정복자, 오늘부로 나의 모든 태어남은 끝났다.” – Beal, *Romantic Legend*, p. 44.

13°. *Buddhacarita*, I, v. 14~15:

anākulānyubjasamudgatāni niṣpesavad vyāyatavikramāṇi |
tathaiva dhīrāṇi padāni sapta saptarṣitārāsadr̥ṣo jagāma ||
bodhāya jāto 'smi jagaddhitārtham antyā bhavotpattir iyaṃ mameti |
caturdīśaṃ siṃhagatir vilokya vāṇim ca bhavyārthakarīm uvāca ||

Tr. Johnston, p. 4: 칠현성좌 같은 그는 일곱 발자국을 걸었는데 그 자태가 매우 단호한지라 내디딘 발마다 의연하고 정연했다. 그는 길고 견고하게 발을 디뎠다. 사자처럼 사방을 바라보며 진실을 선언하는 일갈을 쏟았다. “나는 세상에 유익한 깨달음을 위해 태어났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현상계 태어남이다.” – *Fo so hing tsan*, T 192, k. 1. p. 1 b 참조.

14°. 아쇼카 전설에 보디사뜨와의 탄생에 관해 간단히 요약한 설명이 전한다. cf. 『天譬喩(*Divyāvadāna*)』, p. 389:

jātamātreha sa muniḥ prakrāntaḥ saptapadaṃ bhuvi ||
caturdīśaṃ avalokya vācaṃ bhāṣitavān purā |
iyaṃ me paścimā jātir garbhāvāsāś ca paścimaḥ ||

Tr: 태어나자마자 그는 땅 위로 일곱 걸음을 걷고 사방을 보며 말했다: “이것이 태내에서의 나의 마지막 머무름이니라.” 유사한 구절을 담은 경전들: *A yu wang tchouan*, T 2042, k. 1, p. 103 a; *A yu wang king*, T 2043, k. 2. p. 136 c ~ 137 a. Cf. Przuluski, *Aśoka*, p. 251

뒤늦게 출현한 아쇼카 전설은 한역 『雜阿含經(*Samyuktāgama, Tsa a han*)』, T 99(n° 604) k. 23, p. 166 b~c에 수록되었다: 여래는 여기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서 그는 일곱 걸음을 걸었다. 사방을 바라보고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존재, 나는 무상도를 얻으리라. 신과 인간들 가운데 나는 위 없는 자요 최장자(*jyeṣṭha*)이니라.”

15°. 『빠알리 자타카 입문(*The Nidānakathā*)』, p. 53은 경전 번역을 따르고 있다: *Evaṃ catasso disā ca catasso anudisā ca heṭṭhā uparīti dasa pi disā anuviloketvā attano sadisaṃ adisvā ayaṃ uttarā disā ti sattapadavītiharena agamāsi Mahābrahmunā setacchattaṃ dhāriyamāno Suyamena vālavijaniṃ aṇṇehi ca devatāhi sesarājakakudhabhaṇḍahatthāhi anugammamāno, tato sattapapade thito aggo 'ham asmi lokassā 'ti ādikaṃ āsabhīm vacaṃ nicckārento sihanādaṃ nadī. TTr. 그는 이렇게 주요 사방, 중간의 네 방향, 천정과 천정, 이 열 방향 모두를 잠시 차례차례 조망하더니 자신 같은 존재는 그 어디에 없음을 발견하고 외쳤다. 이것이 최상의 방향이라고. 그리고는 일곱 걸음을 내디뎠다. 흰 우산을 받아 펼친 마하브라흐만이 뒤를 따르고 수야마가 부채를, 다른 신들은 각자의 손에 다양한 장엄 상징물을 들고 있었다. 그때 일곱 걸음을 걷고 멈추더니 고결한 음성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 그 함성은 “내가 세상 전체 장소이다.”로 시작하였다.*

16°. Kern, *Manual*, p. 13~14는 좀 더 최근에 출간된 출전들을 참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약하고는 점차 장성하자 출가하여 위 없는 도⁵⁸⁾를 닦고자 했다⁵⁹⁾.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 후비, 궁녀를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악취 풍기는 시체 같았더라.⁶⁰⁾ 즉시 찬다까⁶¹⁾에게 백마⁶²⁾에 안장을 엮도록 명하였다. 자정이 되어 성곽을 지나 십이 요자나⁶³⁾를 달려 바르가와 선인⁶⁴⁾이 거주하는 암자에 이르러 칼로 삭발하고⁶⁵⁾ 훌륭한 의복을 벗어 던지고 조잡한 베

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붓다의 첫 발언은 일곱 걸음 및 방위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전설적 주제를 이루는데, 그 상징성의 주제를 열어볼 수는 없어 염려스럽지만, 계속 전승된 그 변화된 형태들을 추측할 수는 있다.

보디사뜨와는 아마도 북쪽 한 방향으로 일곱 걸음을 걸었거나(n° 1~4, 6~8) 혹은 네 방향(n° 5) 혹은 여섯 방향(n° 9) 혹은 열 방향(n° 15)으로 걸었던 것 같다. 그는 평평한 땅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거나 연꽃 위에 머물거나 혹은 발을 대고 걸었거나, 엄지손가락 네 개 정도의 높이로 땅에 떠서 일곱 걸음을 걸었다(n° 10).

보디사뜨와가 한 방향 혹은 여러 방향으로 향했는지에 따라 그의 선언이 하나이거나(n° 1~4, 7~8, 10~15) 혹은 넷(n° 5) 혹은 여섯이 된다(n° 9). 단지 한 텍스트에서는 웃는 데 만족하고 있다. 이 말들의 의미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때로는 세상의 으뜸, 윤회 정복자라고 선언하기도 하고(n° 1, 2, 5, 10, 12~15), 때로는 세계 구원자로 소개하기도 하고(n° 7), 때로는 스승이자 동시에 구원자를 자처한다(n° 8, 9, 11). 다양한 표현들은 아마도 한 편으로는 합리주의 부파(상좌부와 설일체유부), 다른 한 편으로는 대중부(Mahāsāṃghika)와 대승의 영향에 기인하는 듯하다. 그런데 불교 전설을 상징화한 유물들 또한 붓다 전설이 정착해감을 반영하고 있다. Cf. Foucher, *Art Gréco-bouddhique*, I, p. 305~308.

여러 한역과 『붓따짜리따』, 아쇼카 왕 전설 등의 붓다 탄생 설화를 비교한 이 역주를 통해 독자들은 탄생 동자상 및 탄생계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가 『修行本紀經』과 『太子瑞應本起經』 등에서 유래함을 알 수 있다.

58) le chemin sans supérieur, the unsurpassed path, *anuttaramārga*, 無上道

59) cultivate, cultivate, *bhāvayati*, 修

60) 여인들의 수면을 언급한 경전: *Ken pen chouo...p'o seng che*, T 1450, k. 4, p. 115 b(Rockhill, *Life*, p. 24); *Mahāvastu*, II, p. 159; *Lalitavistara*, p. 205~208 (tr. Foucaux, p. 180~183); *Buddhacarita*, V, v. 43~66(tr. Johnston, p. 69~74); *Lieou tou tsi king*, T 152(n° 78), k. 7, p. 41 b~42 a(tr. Chavannes, *Contes*, I, T 184~194, tr. Beal, *Romantic Legends*, p. 130).

61) Tch'ö ni, Chaṇḍaka, 車匿

62) son cheval blanc, his white horse, 白馬. 깐타까(Kaṇṭhaka), 유명한 그의 준마 이름.

63) milles, miles, *yojana*, 由旬, 약 6~16km(4~10마일), 인도에서 소 떼를 모는 하루 여정에 비유한 거리.

64) Po k'ie p'o, Bhārgava, bhagavā(pali), 跋伽婆

보디사뜨와가 카필라바స్తు에서 십이 요자나를 달려 바르가와(혹은 와시스타Vaśiṣṭha)가 은거하던 곳에 멈춘 것을 기술한 경전: *Ken pen chouo...p'o seng che*, T 1450, k. 4, p. 117 b; *Buddhacarita*, VI, v.1. — *Nidānakathā*, p. 64에 의하면 보살은 단숨에 삼십 요자나를 달려가 아노마(Anoma) 강에 이르렀다. *Lalitavistara*(p. 225: 보디사뜨와는 샤끄야(Śakyas), 꼬드야(Koḍyas), 말라(Mallas) 지역을 거쳐 저녁 무렵 마이네야스의 아누와이네야(Anuvaineya of the Maineyas)에 도착하였다.

65) 삭발에 관한 기록 예, *Nidānakathā*, p. 64~65, tr. Kern, *Histoire*, p. 55~56: 그는 생각했다. “이 풍성한 머리숱은 승려에게 적절치 않을뿐더러 보디사뜨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남에게 자르게 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니 스스로 내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리.” 그래서 붓다는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았다. 이렇게 자른 머리는 약 2인치(inch) 정도로 매우 짧고 오른쪽으로 감긴 곱슬머리가 두상을 덮을 정도였다. 붓다의 머리카락은 평생 그 정도 길이를 유지했고, 콧수염 길이도 또한 그랬다. 이후 붓다는 다시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다듬을 필요가 없었다. 머리카락과 보석 달린 상투를 들어 던지며 그는 생각했다. “붓다가 될 몸이라면 이 잘라낸 머리카락이 공중에 떠 있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땅바닥에 내려앉으리라.”(*sac' āhaṃ Buddho bhavissāmi ākāse tiṭṭhatu, no ce bhūmiyaṃ patatu*). 머리카락은 한 요자나 위 공중에 떠 있었다. 이를 지켜본 인드라가 머리카락을 황금 상자에 담아 자신의 천국에 있는 상투 보석 성소(쥘라마니째띠야탑, *cūlāmaṇicetiya*)에 보관하였다. 계승으로도 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옷으로 갈아입었다.⁶⁶⁾ 나이란자나⁶⁷⁾ 강가에서 육 년간 고행하며 하루에 마 한 톨 혹은 쌀 한 톨로 끼니를 연명하였으나 이러한 처신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⁶⁸⁾ 그리하여 보디사뜨와는 고된 수행⁶⁹⁾을 포기하고 보리수⁷⁰⁾ 아래 당도하여 금강좌⁷¹⁾에 앉았다. 마왕 마라⁷²⁾가

최상의 송고한 존재, 향내 드리우는
머리카락 잘라 공중에 흩뿌리니,
저 멀리서 인드라가 경배하며 받들어
황금 보석 상자에 담네.

이에 상응하여 세부 묘사에서 더욱 진지한 일화를 소개한다(*Lalitavistara*, p. 225(tr. Foucaux, p. 197): 그때 보디사뜨와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아, 떠돌이 승려가 되어서도 이 상투를 지키려 하다니?”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칼로 상투를 잘라 바람에 던지자 머리카락이 도리천(勿利天, Trāyastriṃśā)에 떨어져 칭송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성소를 세운 도리천 신들끼리 상투 축제를 열고 있으며 꾸다빠라띠그라하나(Cūḍāpratigrahaṇa)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한 일화가 다음 경전들에 전한다. 『弥沙塞部和醯五分律(Wou ten liu)』, T 1421, k. 15, p. 102 b; *Fo pen hing tsi king*, T 190, k. 18, p. 737 c.

66) 가사를 주고받는 장면: *Nidānakathā*, p. 65(tr. Kern, *Histoire*, I, p. 56): 그러자 보디사뜨와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승려에게는 이 베나레스 모슬린이 적절치 않아.” 하지만 그로서는 달리 걸칠 만한 옷도 없었다. 붓다가샤빠(Buddhakāśyapa) 시절부터 함께해 온 한 친구가 이 사실을 간파했다. 그의 이름은 가띠까라(Ghaṭikāra)였다. 그는 예전의 친구 쥬띠빠알라(Jyotipāla, *Mahāvastu*, I, p. 319 참조)에게서 두 부처의 출현 사이 수 천 년 내내 줄곧 식을 줄 모르는 우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벗이 승려가 되기 위해 출가하며 모든 소유물을 버린 것을 보고 친구를 찾아나서 승려에게 필요한 옷 세 벌과 걸식 발우, 갈 한 자루, 바늘, 벨트를 갖다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물 거름망도 챙겨 갔는데 이것이 탁발승에게 필요한 여덟 가지 소지품이었다.

옷 세 벌에 걸식 발우 하나,
갈 한 자루, 바늘 하나에 벨트 하나,
그리고 물 거름망, 이것이
걸사 빅슈에게 필요한 소지품.

하지만 Mppś는 *Lalitavistara*(tr. Foucaux) pp. 225~226의 내용에 더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보디사뜨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새롭게 걸사가 되었는데 어찌 베나레스 의복을 계속 걸치겠는가? 숲에서 머물기 적당한 흥가사를 구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때 淨居天(Śuddhāvāsakāyika) 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보디사뜨와에게 흥가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신성한 형상을 벗어던지고 흥가사를 입고 보디사뜨와 앞에 나타났다. 그러자 보디사뜨와가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내게 흥가사를 준다면 이 베나레스 옷을 그대에게 드리리다.” 그러자 사냥꾼 행색의 천신의 아들이 보디사뜨와에게 흥가사를 주고 베나레스 옷을 받았다. 그러자 천신의 아들은 경배심이 복받쳐 두 손으로 머리에 옷을 이고 신의 세계로 돌아가 천신들로 하여금 보디사뜨와를 경배토록 하였다...이곳에도 지제(支提, Caitya)가 세워졌으며,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이 지제는 까샤그라나(Kāśyagrahaṇa)라 불린다. 중요한 세부 사항이 일치하는 일화가 *Mahāvastu* II, p. 195; *Buddhacarita*, VI, v. 60~63에 보인다.

67) Nairāñjanā, 尼連禪河

68) 나이란자나 우루빌와(Uruvilvā, 優樓頻螺)에서의 보디사뜨와의 금식. 전통을 따르는 경전들에 의하면, *Majjhima*, I, p. 245(한역 아가마에는 상응 구절 없음); “붓다의 양식이라곤 강낭콩(*mugga*), 잠두(*kulathā*), 병아리콩(*kaḷāya*), 완두(*hareṇuka*)로 만든 약간의 수프뿐이었다. — 반면 산스크리트 전통에 의하면 붓다는 계속 음식을 줄여 매일 콜라나무 열매(*kola*) 하나, 쌀 한 톨(*taṇḍula*), 참깨 한 톨(*tila*)을 먹었다.” *Lalitavistara*, p. 254, l. 3; p. 255, l. 8; p. 255, l. 15; *Mahāvastu*, II, p. 125, l. 10, p. 126, l. 16; p. 128, l. 4 참조. Mppś는 특히 *Nidānakathā*를 이 전통과 연관시키고 있다. p. 67: *Bodhisatto pi kho "koṭippattam dukkarakārikam karissāmi" ekatilaṇḍulādihi pi vītināmesī, sabbaso pi āhārūpacchedam akāsi, devatāpi lomakūpehi ojam upasaṃharamānā paṭikkhipi*. TTr. 하지만 보살은 진정 극한 고행을 다짐하고 하루에 참깨 한 톨과 쌀 한 톨만을 먹기로 했고, 하루가 지나서는 일절 금식했다. 천인들이 모공으로 영양액을 주입하려 해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붓다의 고행 관련한 출전을 다른 훌륭한 연구로는 J. Dutoit, 『불교 전통에서의 보살의 고행(Die duṣkaracaryā des Bodhisattva in der buddhistischen Tradition)』, Strassburg, 1905, 특히 붓다의 음식에 관해서는 p. 11, 21, 23, 36을 볼 것.

십팔 나유타⁷³⁾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와 보디사뜨와를 제거하려 하지만, 지혜⁷⁴⁾와 공덕⁷⁵⁾의 힘으로 마라의 무리를 물리쳤다. 보디사뜨와는 최상의 완벽한 깨달음⁷⁶⁾을 얻었다. 이때 삼천 대천세계의 주인들⁷⁷⁾ 즉 브라흐마까이까데와⁷⁸⁾ 및 그들의 왕 마하브라흐마 시킨⁷⁹⁾, 색계⁸⁰⁾의 신들, 샤크라데벤드라⁸¹⁾, 욕계⁸²⁾의 신들이 짜뚜르마하라지까⁸³⁾와 더불어 붓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바가와뜨⁸⁴⁾에게 법칙의 바퀴⁸⁵⁾를 굴려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래서 대자대비한 보디사뜨와는 이전의 서원⁸⁶⁾을 떠올리며 그 청을 받아들여 [k. 1, p. 58b] 법을 설하였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 심오한 법칙과 뿌라즈나빠라미따를 설한 것이다.⁸⁷⁾ 이것이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 이유이다.

[일체지에 이르러 존재의 의혹을 멸함]

4. 또한, 붓다가 일체지⁸⁸⁾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은 말한다. “모든 법칙은 무량⁸⁹⁾ 무수⁹⁰⁾하거든, 어찌 일개인이 일체 법칙⁹¹⁾에 이를 수 있겠는가?”⁹²⁾ 붓다는 창공처럼 청정한 마하뿌라즈나빠라미따에 머물며, 무량수 법칙 속에 스스로 믿

69) la pratique de l'ascèse, the practice of asceticism, *duṣkaracaryāvihāra*, 苦行

70) l'arbre de l'illumination, the tree of enlightenment, *bodhidruma*, 菩提樹

71) le siège du diamant, the diamond seat, *vajrāsana*, 金剛處

72) 마라(Māra)는 魔王, 마라세나(Mārasenā)는 마왕의 군대.

Thomas, *Life of the Buddha*, p. 68은 붓다의 고행과 깨달음과 관련하여 *Majjhima*, I, p. 237에는 보리수와 마라의 유혹에 관한 언급이 일절 없음을 주시시킨다. 따라서 Mppś의 이 표현은 이후에 저술된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 따른다: 『精勤經(*Padhānasutta*)』(*Sutta*, v. 425~449); *Nidānakathā*, p. 70~75; *Buddhacarita*, chap. XII, v. 112~118; XIII, XIV; *Lalitavistara*, chap. XX~XXII; *Mahāvastu*(II, p. 267~270, 276~283, 304~349. 특히 에른스트 윈디쉬(E. Windisch), 『마라와 붓다(*Māra und Buddha*)』, Leipzig, 1895, p. 229, 332~335 참조.

73) nayuta, 那由多. 매우 큰 수나 시간을 나타내는 인도어 1아유타(ayuta)의 백배. 아승기의 만 배, 10의 28승, 60승 혹은 72승.

74) la sagesse, the wisdom, *prajñā*, 智慧

75) les qualités, the qualities, *guṇa*, 功德

76) la suprême et parfaite illumination, the supreme perfect enlightenment, *anuttarasamyaksambodhi*, 阿耨多羅三藐三菩提

77) les maîtres du *trisāhasramahāsāhasralokadhātu*, 三千大千世界主

78) *Brahmakāyikadeva*, 梵天王(梵迦夷)

79) Mahābrahmā *Che k'īśikin*, 式棄

80) *rūpadhātu*, 色界

81) *Che y'i jouan yin*, *Śakradevendra*, 釋提桓因(인드라신)

82) *kāmadhātu*, 欲界

83) *cāturmahārājika*, 四天王

84) *bhagavat*, 有德

85) la roue de la loi, the wheel of Dharma, *dharmacakra*, 法輪

86) son vœu antérieur, his former vow, *pūrvaprañidhāna*, 本願

87) Mppś의 해석에 의하면, 브라흐마가 법문을 청할 당시(위의 k. 1, p. 63 a b), 그 관건은 (대·소)승(Véhicules)의 구별 없이 붓다의 법칙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응한 붓다는 소승의 핵심으로서 사성제뿐 아니라 대승의 기본을 이루는 매우 심오한 법칙과 뿌라즈나빠라미따까지 설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소승과 대승 모두 동일한 스승 붓다 샤까무니 한 분에 의지하여 거의 동일한 용어를 통해 붓다 샤까무니의 삶과 법칙의 수레바퀴를 전승해왔으며 또 자신의 주요 문헌들을 붓다로부터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왔다.

88) omniscient, *sarvajñā*, 一切智, 아래 K. 2, p. 73 b, 74 b를 볼 것.

89) infinite, infinite, *apramāṇa*, 無量

90) innombrables, innumerable, *asamkhyeya*, 無數

91) tous, all, 萬法

음을 부여하였다. “일체지에 이르렀으니, 모든 존재의 의혹⁹³⁾을 멸하리라.”⁹⁴⁾ 이것이 붓다가

92) 동일한 이의 제기가 K. 2, p. 74 b 27에도 보인다.

93) les doutes de tous les êtres, the doubts of all beings, *sarvasattvasaṃśayacchedaka*, 一切衆生疑

94) 붓다의 一切智性(*sarvajñatā*)에 관한 논란은 꽤나 복잡하다. 붓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더 알아야 한다거나 이해해야 할 것이 없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걷거나 혹은 계속 서 있든지, 혹은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건 간에 나는 여전히 내 의향대로 앎과 지혜를 지닌다.” 니간따 나따똘따(Niṅaṅṭha Nāthaputta), 뿌라나 깃사빠(Pūraṇa Kassapa) 등의 견해가 그러했다(*Majjhima*, I, p. 92; II, p. 31; *Āṅguttara*, IV, p. 428). 붓다는 더욱 겸손했다. 붓다는 와짜고따(*Vacchagotta*)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승려 가우따마가 모든 것을 알고(*sabbaññū*), 모든 것을 본다(*sabbadassāvī*)고 주장하는 것은 나에게 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들의 말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한다. 붓다는 세 가지 앎의 소유자라고. 그 세 가지는 지나가 버린 존재에 관한 지혜, 존재의 생사에 관한 지혜, 부정(不淨)을 타파하는 지혜이다(*Majjhima*, I, p. 482).

說一切有部-毘婆沙師(Sarvāstivādin-Vaibhāṣika)의 교의는 일련의 경전에 근거한다. 『*Mahāniddeśa*(『大義釋』)(p. 178~178)에 따르면 붓다의 전지함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덕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덕목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붓다가 지닌 완성된 앎에 관해 *Koṣa*, VII(p. 832)는 네 가지 앎을 설하고 있다. 1) 스스로 터득한 앎(*anupadiṣṭa jñāna*, 無師智), 2) 보편적 앎(*sarvatra jñāna*, 普遍智) 즉 모든 고유한 본질에 대한 앎, 3) 모든 형태의 앎(*sarvathā jñāna*, 一切種智) 즉 모든 존재의 길에 대한 앎, 4) 자연발생적 앎(*ayatnajiñāna*, 無功用智) 즉 단순히 알고자 하면 얻게 되는 지혜. 반면 대승불교는 붓다에게 단순한 전지를 부여한다. Mppś(k. 2, p. 74 c)는 붓다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묻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Abhisamayālamkāra*(p. 1~2) 같이 지혜를 설명하는 문헌은 붓다에게 세 가지 지혜를 부여한다. 1) 一切相智(*sarvākārajñatā*): 붓다에게만 특이한 전지.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혜로 일순간 존재의 모든 양상을 알며, 절대적이고 경험적이다(薩云若慧). 2) 道智(*mārgajñatā*): 대승과 소승으로서 구원의 길에 관한 전지. 붓다와 십지에 이른 보디사뜨와에 속한다. 3) 一切智(*sarvajñatā*): 경험적 세계의 사물과 관련한 전지. 무아의 관점에서 유래하는 제반 요소들에 대한 지혜를 상징한다(一切種智). 붓다와 보디사뜨와에 속하는 것으로 소승의 성인들도 얻을 수 있는 지혜이다(E. Obermiller, *Doctrine of PP*, p. 62; *Analysis*, 3~6 참조).

『*瑜伽師地論*』 菩薩地(*Bodhisattvabhūmi*)(ed. U. Wogihara, 2 Vol., Tokyo, 1930)는 一切種智(*sarvākāravarañāna*)를 이렇게 정의한다: *atra yat tathāgatasyānarthopasamhitesu naivārthopasam-hitanānarthopasamhitesu sarvadharmesu jñānam, idam tathāgatasy a sarvākārajñānam ity ucyate. tatra yat tathāgatasyārthopasamhitesu sarvadharmesu jñānam, idam tathāgatasy a varajñānam ity ucyate. tatra yac ca sarvākāram jñānam yac ca varajñānam, tad aikādhyam abhisamksīpya sarvākāravara jñānam ity ucyate.* TTr. 여기에서 모든 여래의 能引無義聚法 혹은 非能引有義聚法, 非能引無義聚法 전체를 아우르는 無顛倒智를 여래의 一切種智라 한다. 모든 여래의 能引有義聚法의 一切法 가운데서 無顛倒智를 일러 곧 여래의 妙智라 한다. 이 안의 一切種智 및 妙智를 합하여 一切種妙智라 함을 알라.

(Cf. *瑜伽師地論*卷第五十 本地分中菩薩地 第十五第三持究竟 瑜伽處建立品第五之二 T1579_30.0574 a 26 ~ 30.0574 b 03: 當知此中若諸如來 或於能引無義聚. 或於非能引有義聚法 非能引無義聚法. 總於如是一切法中 無顛倒智 是名如來一切種智 若諸如來 於其能引有義聚法一切法中 無顛倒智. 當知是名如來妙智 即於此中若一切種智若妙智 總合爲一 名一切種妙智.)

— 일체종지로서 붓다는 일체 법칙에 대한 의혹을 끊어버린다 — 이 구절은 『大乘莊嚴經論(*Mahāyānasūtrālamkāra*)』, XXI, 58, p. 188에서 유래한다:

*tribhiḥ kāyair mahābodhiṃ sarvākārām upāgaṭa |
sarvatra sarvasattvānāṃ kāṅksācchida namo stu te ||*

“三身(*trikāya*)에 의거하여 그대는 위대한 일체종지의 깨우침을 얻었다: 그대는 모든 존재의 의혹 일체를 끊어버렸구나. 그대를 경배하노라!” 이 계송은 『攝大乘論(*Samgraha*)』, p. 303에 재등장하고, 붓다의 지혜에 적용된 일체지의 수식어에 관해 네 가지 주석을 제안하며, 다음 구절을 포함한다: “내게는 이 일체지 속에 모든 장애가 보인다. 일체지는 所知障(*jñeyāvaraṇa*)을 제거하고, 훈습(*vāsanā*)의 수태를 소멸시킨다. 일체지는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명확한 지혜이다. — 일체지의 문제는 몇몇 복잡함을 지니는 지혜의 문제와 관련 있다. 『十地品(*Daśabhūmika*)』, J. Rahder in H8b8girin, *Chi*,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 이유이다.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을 가르쳐 존재의 의혹 끊음]

5. 또한, 구제 가능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붓다의 큰 공덕과 큰 지혜는 무량하여 알기 힘들고⁹⁵⁾, 헤아리기⁹⁶⁾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릇된 스승들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사악한 법칙⁹⁷⁾에 마음을 두면 올바른 길에 이르지 못한다. 이들을 위해 붓다는 대자심⁹⁸⁾을 일으켜 대비⁹⁹⁾의 손으로 그들을 품고 붓다의 길¹⁰⁰⁾로 이끌었다. 이러한 연유로 붓다는 최고 경이로운 공덕을 보이고 큰 신통력¹⁰¹⁾을 일으키니 마치 『마하반야바라밀경』 초품에서 이와 같이 설한 바와 같았다. “붓다는 사마디 가운데 최고인 사마디라자사마디¹⁰²⁾에 들어갔다. 사마디에서 깨어나 그 천안으로 시방세계를 살피며 그 몸의 모든 모공으로 웃음을 내보였다. 발바닥에 새겨진 천폭륜상으로부터 육백 나유타나 되는 형형색색의 광선을 두루 발하게 하고, 발바닥으로부터 육계¹⁰³⁾에 이르기까지 신체 각 부위로부터 육백 나유타의 형형색색 광선을 발하게 하여 갠 지스의 모래만큼 수없이 많은 부처의 세계를 모두 비추었다. 그러자 이들 세계 모두가 환히 빛났다.”¹⁰⁴⁾ 이 사마디에서 깨어난 붓다는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¹⁰⁵⁾을 가르쳐 이들이 품은 의혹의 속박¹⁰⁶⁾을 끊고자 하였다. 이것이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 이유이다.

[거만과 오만 타파]

6. 또한 시기심¹⁰⁷⁾으로 붓다를 비방하는 그릇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붓다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지 못하며, 다만 세상을 속이는 마술¹⁰⁸⁾에 지나지 않는다.”¹⁰⁹⁾ 이

p. 283~297을 볼 것.

95) difficiles à connaître, hard to understand, *durjñeṃya*, 難知

96) difficiles à sonder, hard to fathom, *durvigāhya*, 難解

97) les fausses doctrines, the false doctrines, *mithyādharma*, 邪法

98) une pensée de grande veillance, a mind of great loving-kindness, *mahāmaṅgala*, 大慈心

99) une grande compassion, the great compassion, *mahākaruṇā*, 大悲

100) la destinée de Buddha, the buddha-destiny, *buddhagati*, 佛道

101) force miraculeuse, miraculous power, *ṛddhibala*, 神力

102) Roi des concentrations, King of Concentrations, *samādhirājasamādhi*. 三昧王三昧. 최상의 사마디 단계로서 제사선을 지칭한다. Mppś. 제칠권(大正藏 25, p. 111 c 20); “사마디-라자-사마디란 무엇인가? 이것은 사마디 중에서 가장 자재롭고 무수한 존재를 대상화할 수 있다.”

103) la protubérance crânienne, his cranial protuberance, 肉髻

104) *Pañcaviṃśatī*(p. 5~7)의 자유로운 인용이며 산스크리트어로 무난히 복원 가능하다: *Atha khalu Bhagavān samādhirājam nāma samādhim samāpadyate sma...Tasmāt samādher vyutthāya diveyena cakṣusā sarvalokadhātuṃ vyavalokya...sarvarommakūpebhyaḥ smītam akarot. Tasyādhasāt pādatalayoḥ sahasrārābhyām cakrābhyām ṣaṣṭiṣaṣṭīramikoṭīnyutaṣatasahasrāṇi niśceroḥ...yai raṣmibhir daśadikṣu apramāṇā samkhyeyā gangānādivālukopamā buddhadhātavo vabhāsītāḥ sphuṭāśh chābhūvan. — 이 구절을 Mppś, k. 7, p. 111~114에서 풀이할 것이다.*

105) la vrai caractère, the true nature, *bhūtalakṣaṇa*, 實相

106) les liens du doutes, the bonds of doubt, *saṃśayabandhana*, 疑結

107) envie, envy, *īrṣyā*, 嫉妬

108) sa magie, his magic, *māyā*, 幻術

109) 당시 이단들은 종종 붓다를 마술사로 취급하였다. 『우빨리경(*Upālisutta*)』, *Majjhima*. I, p. 375 = *Tchong*, T 26(n° 133), k. 32, p. 629 a 26: *Samāno hi bhante Gotamo māyāvī. āvaṭṭanniṃ nāyam jānāti yāya aññatitthiyānaṃ sāvake āvaṭṭeti*: “승려 가우따마는 마술사이다. 그는 제자들을 다른 종교로 전향시키는 매혹적인 마법을 알고 있다.” 이 경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 구절: 루돌프 호어른레(Hoernle), 『동부 투르크스탄에서 발견한 불교 문헌 수고 유적(*Remains*)』, p. 27~35; S. Lévi, *Notes indiennes*, JA, Jan.~Mar. 1925, p. 26~35; 『唯識二十論(*Viṃśatikā*)』, p. 10, l. 15.

렇게 남을 업신여기는 거만함과 그릇된 오만을 타파하기 위해 붓다는 무한한 신통력과 지혜를 발하였다. 『마하반야바라밀경』에서 스스로 말하길 “내 신통력은 무량하여 삼계¹¹⁰⁾를 초월하여 모든 존재를 제도하려 한다. 일단 나쁜 마음¹¹¹⁾을 품으면 무량한 죄¹¹²⁾를 짓는 것이요, 일단 순수한 믿음¹¹³⁾을 일으키면 천신들과 인간의 행복¹¹⁴⁾을 득하여 반드시 니르바나의 열매¹¹⁵⁾를 얻으리라.”¹¹⁶⁾

— 『빠딸리경(Pāṭalisatta)』, *Samyutta IV*, p. 340 = *Tchong*, T 26 (n° 20), k. 4, p. 445 b: *Sutaṃ me taṃ bhante samaṇo Gotamo māyaṃ jānāti*: “나는 승려 가우따마가 마술을 한다고 들었다.” — 이 『빠딸리경』의 비유와 같은 비유가 실린 경전: *Tsa*, T 99 (n° 119), k. 5, p. 37 b, *P’i p’o cha*, T 1545, k. 27, p. 139 a: “이단 빠딸리(Pāṭali tirthika)가 가우따마에게 말한다. 가우따마여 마술을 아는가? 만약 모른다면 당신은 전지적이지 않다. 알고 있다면 당신은 마술사이다.” — *P’i p’o cha*, T 1545, k. 8, p. 38 b: “이단은 붓다를 다음과 같이 비방한다. 사문 가우따마는 흑세 무민하는 마술사의 거장이다.” — *Kośa*, III, p. 30; *Kośavākyā*, p. 266: *Yathānyatīrthyā apabhāṣanta iti. anyatīrthyā Maskariprabhṛtayaḥ. yathoktaṃ Nirgranthaśāstre rddhim bhadanta ko darśayātyayād evaṃ Gautama iti. thatā Bhagavantam evoddiśyānyatroktam. kalpaśatasyātyayād evaṃvidho loke māyāvī pdurbhūya māyayā lokambhakṣayatītilokam bhakṣhayatīti*: “이단 마스까리(Maskari) 같은 자가 붓다를 비난한다. 離繫派(Nirgrantha) 논서는 이와 같이 말한다: 누가 마술을 행하는가? 가우따마가 마술사이다. — 다른 곳에서도 붓다는 이렇게 전해져 왔다: 앞으로 시절이 백 번 바뀌면 마술로 세상을 말아먹을(착취할), 이러한 부류의 마술사가 등장한다.”

많은 불교 문헌들은 이단들이 사까무니를 지칭하려 사용한 마술사라는 말을 모욕으로 여기지만, 나중에 집필된 『大寶積經(Ratnakūta)』 같은 경전들은 붓다를 경쟁 마술사 모두를 물리친 가장 위대한 마술사로 묘사한다. Cf. *Bhadrammayākāra*, p. 62: “나아가 요술쟁이 바드라(Bhadra)인 마우드갈리야나(目捷連, Maudgalyāyana)는 진정한 마술사가 아니다. 반면 여래의 마술은 진정한 마술이다. 모든 현실이 마술에 지나지 않음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명목상의 실재에 집착한 세상 모든 존재가 바드라(Bhadra) 같은 요술쟁이만큼 강력한 마력을 지녔다 해도 그들 모두의 마력은 여래가 지닌 마력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 일조분의 일 심지어 무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미세한 경지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110) le triple monde, the threefold world, *traidhātukaviśiṣṭa*, 三界

111) une opinion mauvaise, a bad opinion, 惡念

112) le péché, the sin, *āpatti*, 罪

113) une foi pure, a pure faith, *viśuddaśraddhā*, 淨信

114) le bonheur des dieux et des hommes, the happiness of gods and men, *devamanuṣyasukha*, 人天樂

115) le fruit de Nirvāna, the fruit of nirvāṇa, *nirvāṇaphala*, 涅槃果

116) 불자들은 한편으로는 죄와 응징의 불균형, 다른 한편으로는 공덕과 보상의 불균형에 관해 언급하길 선호한다. *Bodhicaryāvatāra*, I, v. 34~35 참조:

*iti santrapatau jinasya putre
kaluṣḍṃ sve hrdaye karoti yaś ca |
kaluṣodayasamkkyayā sa kalpān
narakeṣv āvasatīti nātha āha ||*

*atha yasya manaḥ prasādameti
prasavettasya tato `dhikaṃ phalam |
mahatā hi balena pāpakarma
jīnaputresu śubhaṃ tv ayatnataḥ ||*

Tr. *Lav.*, p. 7: “진정한 축제의 주인, 붓다의 아들은 이와 같도다. 붓다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마음속으로 나를 반하는 죄를 범한 자, 누구나 마음속으로 한 순간이나마 악한 생각을 품어도 오랜 세월 동안 지옥에서 헤맨다. 하지만 그 마음이 보디사뜨와 속에서 차분히 빛날 때 마음은 참으로 위대한 공덕이기에 오랫동안 저질러 온 죄를 소멸시킨다. 보디사뜨와를 범하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 않은가?” — *Pañjikā*, p. 39 및 『쉬끄샤사무짜야(Śikṣāsamucchaya, 大乘集菩薩學論)』, p. 85에 인용된 *Prasāntaviniścayapratihāryasūtra(Prasāntaviniścayapratihāryasamādhī Sūtra, 寂照神變三摩地*

[법칙을 믿어야 함]

7. 또한 사람들이 법칙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붓다는 이들에게 말한다. “나는 위대한 스승¹¹⁷⁾으로, 십력¹¹⁸⁾과 사무소외¹¹⁹⁾를 지니고 있다. 성인들의 거처¹²⁰⁾에 정착했고, 마음은 자제력¹²¹⁾을 얻었다. 사자후를 토할 수 있고 법칙의 바퀴를 굴리니, 일체 세계에서 가장 존엄하다.”

[존재의 기쁨]

8. 또한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함은 존재들의 기쁨¹²²⁾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붓다는 이들에게 말한다. “그대들은 큰 기쁨을 느껴야 할 것이다. [58 c] 왜 그러한가? 모든 존재가 그릇된 견해의 그물에 빠져 있으며, 모두가 이단의 사악한 스승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그릇된 공부와 나쁜 스승으로부터 빠져나왔다. 십력을 지닌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인데 오늘 그대들은 이미 그를 만났다. 그대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서른 일곱 날개¹²³⁾ 등의 모든 심오한 법칙들이 담긴 바구니¹²⁴⁾를 열어 보이겠으니 마음대로 거두어 가거라.”

[존재의 법약]

9. “또한 모든 존재들은 굴레¹²⁵⁾라는 병¹²⁶⁾으로 고생하고 있다. 시작도 없는 윤회¹²⁷⁾를 겪는 동안 그 누구도 이단의 그릇된 스승들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였다. 내 오늘 이 세상에 위대한 의사 왕¹²⁸⁾으로 와서 법칙-약¹²⁹⁾을 처방해 내놓으니 이를 복용

經)도 이와 같다: *Yāvanti Mañjuśrīr bodhisattvo bodhisattvasyāntike pratighacittāny utpādayati avamānacittāni vā tāvataḥ kalpāms tena saṃnāhaḥ saṃnaddhavyaḥ vastavyaṃ maya mahānarakeṣu*. TTr. 문수사리여, 보살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맑은 마음을 발할 때 마음이 혹 가볍게 변한다면 오랜 겁 동안 대지옥에서 지내면서 갑옷을 걸친 것과 같다(文殊師利菩薩於菩薩所乃至發明淨心時。而心或輕易。乃至多劫住大地獄如被鎧甲, T32n1636_006 大乘集菩薩學論卷第六, 西天譯經三藏銀青光祿大夫試光祿卿普明慈覺傳梵大師賜紫沙門臣法護等奉 詔譯)。

117) le grand maître, the great teacher, *mahāsāstri*, 大師

118) les dix forces, the ten strengths, *daśabala*, 十力

119) les quatre assurances, the four fearlessnesses, *caturvaiśāradya*, 四無所畏

120) les résidences des saints, the abodes of the saints, *āryavihāra*, 聖住處

121) les maîtrises, the masteries, *vaśitā*, 自在

122) la joie, the joy, *pramuditā*, 歡喜地

123) les trente sept-ailes de l'illumination, the thirty-seven wings of enlightenment, *saptatrimśatbodhipākṣadharmāḥ*, 三十七品

124) la corbeille des profonds Dharma, the basket of the profound dharmas, *gambhīradharmapiṭaka*, 深法藏

125) les entraves, the fetters, *saṃyojana*, 結

126) les maladies, the sicknesses, *yādhi*, 病

127) la transmigration qui n'a pas eu de commencement, the beginningless transmigration, *anādikālikasaṃsāra*, 無始生死

128) le grand roi des médecins, the great king of physicians, *mahāvaidhyarāja*. 大醫王

약의 스승(*bhaiṣajyaguru*)으로서의 붓다와 관련하여 다음 경전들 참조. Mpp스와 *Milinda* 그리고 다수의 한문 경전에 이렇게 붓다를 의사에 비유한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k. 22, p. 224 a; k. 85, p. 657 b. 세부 사항은 드미에빌의 Hßbßgirin, *Byô*, p. 228, 230~231. - 주요 경전은 *Sūtra of the good physician* 혹은 *Sūtra on the comparison of the physician*이며, 산스크리트 경전 *Kośa*, VI, p. 121, n. 4, *Kośavyākhyā*, p. 514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역 경전으로는 *Tsa*, T 99(n° 389), k. 15, p. 105 a~b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드미에빌은 T 276, p. 384 c; T 159, k. 8, p. 328 c, 330 b; T 375, k. 5, p. 631 c; T 26, k. 4, p. 442~443; k. 60, p. 804~805 등을 제시한다. 여기

해야 하리라.” 이것이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 이유이다.

[붓다의 무량한 공덕]

10. 또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붓다도 인간과 같아서 실제로 인간처럼 윤회를 겪으며, 굶주림, 목마름, 추위, 더위, 늡음, 병뚫 등의 고틱를 겪는다.”¹³⁰⁾ 이러한 생각을 없애고자 붓다는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몸은 불가사의하다.¹³¹⁾ 브라흐마, 신들의 왕, 등 모든 신과 조상들이 갠지즈의 모래¹³²⁾만큼이나 오랜 겁을 지나는 동안 내 몸을 생각하고 내 목소리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었거늘,¹³³⁾ 하물며 내 지혜와 사마디를 얻겠다는 것인가?” 계송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이라 했는가!
브라흐마 천왕,¹³⁴⁾
일체 신과 땅의 군주들이라도
이를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네.

이 법칙은 심오하고 현묘하여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노라.
붓다가 도래하여 모두 열어 보이니
그 밝은 빛 햇살 같도다.

에 빠알리와 산스크리트 텍스트에 관한 언급을 추가해 본다: *Āṅguttara, III, p. 238: seyyathā pi bho puriso ābādhiko dukkhito bāḥagilāno, tassa kusalo bhisakko thānaso ābādham nīhareyya, evam eva kho bho yato yato tassa bhoto Gotamassa dhammaṃ suṇāti yadi suttaso yadi geyyaso yadi veyyakaranaso yadi abbhutadhammaso tato tato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abbhuttham gacchanti.* TTr. 마치 유능한 의사가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중환자를 즉석에서 치유할 수 있듯, 존자여, 역시 것처럼 스승 가우따마의 법칙-산문과 운문이 섞인 법문, 설명, 경이로운 답변-을 듣는 이는 그 슬픔, 비탄, 고통, 실의, 번뇌를 떨치리라. - 붓다의 의사로서의 형용어 관련 목록으로 참조할 만한 것은 *Āṅguttara, IV, p. 340*의 ‘*bhisakha*’ 즉 의사라는 표현이다. 『밀란다경』은 붓다를 ‘*vejja*’(p. 74)에 비유하기도 하고 ‘*bhisakha*’(‘*vejja*’와 ‘*bhisakha*’는 ‘a physician, doctor, medical man, surgeon’ 등을 의미)에 비유하기도 한다(p. 112, 169, 172, 173). - *Lalitavistara*는 그를 ‘*vaiyará*’ 혹은 ‘*vaidyarája*’에 비유한다, p. 46, 97, 283, 351, 358. - 『입보리행론(*Bodhicaryāvatāra*)』은 일체 고통 치료에 전지적인 의사(*sarvajñavaidya sarvaśalyāpahārin*, II, v. 37), 최고 의사(*varavaidya*, VII, v. 24)라고 지칭하였다. - *Sikṣyāsamucchaya*(p. 148.5, 243.4, 295.1)도 유사한 경우이다.

129) la drogue de la loi, the medicine of the Dharma, *dharmabhāṣajya*, 法藥. 불교 치유에서는 법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H8b8girin, *Byō*, p. 257.

130) 그 경이로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범인으로 여겨졌다. 그 적들인 이단으로부터 뿐 아니라 초전법륜 제자들 심지어 경전을 결집하고 설일체유부(Sarvāstivāda) 교리를 이룩한 장로들(the Sarvāstivādin scholasticism)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Vijñaptimātratāsiddhi*, p. 764~772; H8b8girin, p. 174~177.

131) inconceivable, inconceivable, *acintya*, 不可思議

다른 많은 대승 경전처럼 Mppś 역시 붓다 육신의 이중성을 시사한다. 즉 인간의 몸으로서 붓다와 초인의 몸으로서 붓다가 그것인데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다. *Vijñaptimātratāsiddhi*(『成唯識論』), - *La Siddhi de Hiuan Tsang*, p. 776~788; H8b8girin, p. 178~182 참조.

132) les sables du Gange, the sands of the Ganges, *gaṅgānadivālukopama*, 恒河沙

133) 그런데도 세상 끝에 이르렀던 마우드갈리아나(目犍連)는 여전히 붓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래 k. 10 p. 127 c 참조; *Ratnakūta*를 일부 참조한 k 30, p. 284 a, *Ta pao tsi king*, T 310, k. 10, p. 56 c; *Jou lai pou sseu yi pi mi ta tch'eng king*, T312, k 7, p. 720 c.

134) Brahmā devarāja, 梵天王

또 붓다가 법칙의 바퀴¹³⁵⁾를 굴리니 타지에서 보디사뜨와들이 바로 찾아와 붓다의 몸¹³⁶⁾을 재보려 했다. 위로 허공 넘고 무량한 부처의 세계 넘어 화상부처¹³⁷⁾의 세계에 이르러서도 붓다의 몸이 여실히 보이자 보디사뜨와들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허공은 끝없거늘
붓다의 공덕도 이 같아라.
그 몸 크기 헤아리려 해도
그 수고 끝날 날 없도다.

그 몸 공간 세계를 넘고
무량한 부처 땅도 넘어서네.
샤까족 사자의 몸¹³⁸⁾ 보면
이와 같아 전혀 다를 바 없네.

붓다의 몸 황금산 같아
큰 빛을 발하네

[59 a]상호 스스로 장엄하니
봄날 연꽃잎 같아라.

붓다의 몸이 무량하고, 그 광채와 목소리 역시 무량하고, 계율, 선정, 지혜 그리고 붓다의 여타 모든 것이 그러하다. 『밀적경』¹³⁹⁾에서 세 신비로움¹⁴⁰⁾을 설한 바처럼 이를 더욱 널리 알려야 하리라.

[탄생-출가-득도]

11. 더욱이 붓다는 탄생 시 지상에 내려와 일곱 걸음¹⁴¹⁾ 걸더니 몇 마디 설하곤 곧 함구하여 침묵해버린다.¹⁴²⁾ 이후 여느 아이들처럼 걷지도 말하지도 않고, 삼 년 동안 젖을 빨아가며,

135) la roue de la loi, the wheel of the Dharma, *dharmacakra*, 法輪

136) *Mahāvastu*, III, p. 343~345 및 *Lalitavistara*, p. 438에서는 천신들(*devas*)과 천자들(*devaputras*)이 와서 붓다를 찬탄한다.

137) le Buddha *Houa chang*, *Padmottara*, 華上佛(華臺上本佛)
천저(天底) 경계에 주석하는 부처(*Pañcaviṃśati*, p. 17).

138) le lion des Śākya, the Lion of the Śākya, 釋獅子

139) *Mi tsi king*, *Guhyakasutra*, 密跡經

140) trois mystères, three mysteries, *guhya*, 三密(身密, 口密, 意密)

여래의 세 가지 신비 즉 몸(*kāya*), 음성(*vāc*), 정신(意, *manas*)의 신비함은 *Ratnakūta*의 *Guhyaka-Vajrapāṇi*(他生) 부분에 서술되어 있다(*Ta pao tsi king*, T 310, k. 10, p. 53. 다르마락사는 *Tathāgathācintyaguhyanirdeśa*에서 별도의 판본을 제시하고 있다; T 312 k. 6, p. 716. 동명의 티베트어본(*De btin gsegs paḥi gsañ ba bsam gyis mi khyaba pa bstan = Tathāgathācintyaguhyanirdeśa*)이 현존한다(Dkon brete-segs n° 3(OKC no 760~763, p. 231; Csoma-Feer, p. 214). — 이하, k. 10, p. 127c, Mpp에서는 *Mi tsi kin kang king*(*Guhyakavajrapāṇi*)이라는 제명의 동일한 텍스트에 근거하고 있다.

141) sept pas, seven steps, *saptapada*, 七步

142) 이 문단은 이미 앞서 묘사한 요약된 붓다의 전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전기는 초자연적이고 초세간적(*lokottora*)인 자태를 전한다. 지상에서의 샤까모니의 인간적 존재는 비록 사실이긴 하지만 기

유모들의 양육 하에 점차 성장해갔다. 하지만 붓다의 몸¹⁴³은 그 수를 셀 수 없고¹⁴⁴ 모든 세계¹⁴⁵를 초월한다. 그런데도 존재를 위해 범인¹⁴⁶처럼 나투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날 때 신체 각 부분¹⁴⁷, 감각 기관¹⁴⁸ 및 그 정신-인식¹⁴⁹이 갖추어지지¹⁵⁰ 않았으므로 신체의 네 가지 자세¹⁵¹ - 앉음, 누움, 걸음, 머무름 -, 말에서 침묵으로의 이행¹⁵² 그리고 갖가지 인간적 속성¹⁵³을 실행하지 못하는 법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도리를 배우거늘 지금의 붓다는 어찌 하여 태어나면서 이미 말하고 걸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못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점이 기이하게 여겨진다. 다만 붓다의 유일한 의도는 구원의 방편으로 자신의 힘¹⁵⁴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붓다는 존재가 자신의 심오한 법칙¹⁵⁵을 믿게 하고자 인간의 속성을 보이고 사람의 네 가지 자세를 드러내었다. 보디사뜨와가 태어나면서부터 견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리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비범해.¹⁵⁶ 틀림없이 천신¹⁵⁷이거나, 큰 뱀¹⁵⁸이거나, 귀신¹⁵⁹이

적적일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인위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붓다는 세속에 맞춘다 (*lokānūvartana*). 붓다는 자신으로서는 진정 기이하게 여겨지는 세간의 법칙을 따른다. 설출세부(說出世部, *Lokottaravāda*)의 경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어떤 경우 보디사뜨와 사가무니는 가공의 몸(un corps fictif, a fictitious body, *nirmānakāya*, 應身), 환영(un fantôme, a phantom, Docétism)이며, 또 어떤 경우는 탄생의 몸으로 깨달음 당시의 영광스러운 몸, 법칙 세계(法界, *Dharmadhātu*)의 몸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보인다(*Siddhi*, p. 773~776; *Hṅḅḅgirin*, p. 177~185를 보라). Mppś 설출세부는 대부분 A. Barth가 약술한 *Jour. des Savants*(1890, p. 467~458)의 *Mahāvastu* 내용을 담고 있다(= *Œuvres*, V, p. 16): “부처들은 절대적으로 세상과 공통점(*Jokena samam*)을 지니지 않는다; 그들 안에는 모든 것이 초자연적이다(*lokottara*), I, p. 159. 부처들이 우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열악함에 맞추기 위한 순수한 관대함 때문이다(*lokānūvartana*); 부처들은 이 모든 것 위에 있으며 거기에서 기이하게 머문다, I, p. 167~172. 그 반대를 주장하면 이단이다, I, p. 96. 당연히 이 저술에는 수태, 임신과 출생에 관한 기적들을 장황하게 서술하면서도 여기에 주석은 첨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자연 섭리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보다는 차라리 신성한 이유를 거론하기보다 스스로 원인을 지닌다고 말해보자. 부처들 모두는 그 어느 경우에도 부모들에 의해 탄생하지 않았다. 그들 자신의 기력에 의해 스스로 태어난 것이다. 이들은 ‘*svaḡaṇanirvṛta*’(自功德生)이며, 브라흐만식 표기인 ‘*svayambhū*’(自生)를 단순 변형한 표기이다, I, p. 145. 붓다의 어머니들은 동정녀이다(그럼에도 Lav., *Dogma et philosophie*, p. 57, 186~188; Thomas, *Life of the Buddha*, p. 36을 보라); 최종 단계에 이른 보디사뜨와를 출산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상황에서도 보디사뜨와의 모친들은 절대적 동정녀로 살아간다. 사유에 있어서조차 이들은 남편들과 무관하다, I, p. 147. 이들은 출산 후 한 주 내에 동정녀로 죽는다, I, p. 199. 이들의 여인들 역시 동정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지막 존재 안에서 보디사뜨와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훌라가 어머니 야쇼다라의 가슴으로 내려온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자신의 마지막 탄생에 이른 보디사뜨와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듯 이들은 세상에 올 때 어머니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고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와 세상에 이른다. *Mahāvastu* I, p. 218은 부연하고 있다: “그들의 형태(*rūpa*) 즉 그들의 몸은 전적으로 정신적(*manomaya*)이다.”

143) le corps, the body, *kāya*, 身

144) incalculable, incalculable, *asamkhyeya*, 無數

145) tous les mondes, all the worlds, *sarvalokātikrānta*, 諸世間

146) un homme ordinaire, an ordinary man, *prthagjana*, 凡人

147) les membres, the limbs, *kāyabhāga*, 身分

148) les facultés, the faculties, *indriya*, 諸根

149) la connaissance mentale, the mental consciousness, *manovijñāna*, 意識

150) pas développé, undeveloped, *siddha(pariniṣpanna)*, 未成就

151) les quatre attitudes corporelles, the four bodily positions, *īryāpatha*, 四威儀

152) le passage de la parole au silence, going from speech to silence, 言談

153) les [autres] propriétés, the other human behaviors, *manuṣyadharmā*, 人法

154) la force en moyens salvifiques, his power of skillful means, *upāyabala*, 方便力. 善巧方便 (*upāya-kauśalya*)

155) sa profonde Loi, the profound dharmas, *gambhīradharma*, 深法

156) extraordinaire, extraordinary, *adbhuta*, 未曾有

157) un dieu, a god, *deva*, 天

야. 그가 가르치는 법칙은 분명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있어. 태어나 죽는 존재, 육신의 존재, 구속받는 존재인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 이 중에 누가 이토록 심오한 법칙에 이르리요?”¹⁶⁰)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기에 성스러운 법칙의 단호한 신봉자가 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 붓다가 룸비니 동산¹⁶¹)에 태어난 것이다. 비록 보리수 아래에 이르러 붓다가 될 수 있었으나 인위적 방편으로 갓난아이, 동자, 소년, 성인으로 나타났다. 매 시기에 걸쳐¹⁶²) 순차적으로 유아 놀이, 예술 탐구, 기술 연마, 욕망의 다섯 대상¹⁶³)의 쾌락을 충족시켰다. 붓다는 인간의 속성을 갖춘 채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을 응시하고¹⁶⁴) 혐오감을 느껴 한밤중 성을 빠져나와 출가하여 두 선인 우드라까¹⁶⁵)와 아라다¹⁶⁶)를 찾아가 그 제자가 된 듯해도 그들의 법칙을 추종하지는 않았다.¹⁶⁷) 비록 항상 신통력을 썼으나 전생의 까사빠 붓다¹⁶⁸) 시절 계를 지키고 도

158) un serpent, a *nāga*, 龍

159) un démon, a demon, *asura*, 鬼神

160) *Lalitavistara*(p. 87~88, Foucaux 번역)에 거의 동일한 어휘로 그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garbhāvasthitas ca sattvānukampayā hi bodhisattvo manuṣyaloke upapadyate, na devabhūta eva dharmacakram pravartayati. tat kasmāt. na khalv Ānanda sattvāh kausīdyam āpatsyante. devabhūtah sa bhagavān tathāgato 'rhan samyaksambuddho vayaṃ tu manusyamātrā na vayaṃ samarthās tat sthānaṃ paripūrayitum iti.* — Tr. Foucaux, p. 81~82: 붓다가 세상에 나뉜 것은 존재들에 대한 자비심의 발로이다. 그가 신이라면 법칙의 바퀴를 굴리지 않을 것이기에. 아난다여, 그러니 어찌 존재들이 좌절하지 않으리오? (인간들은 말하리라): 바가와뜨 여래 응공은 완벽하고 완성된, 진정한 붓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붓다의 조건들을 완성할 수 없다.

실제로 경전의 구절을 믿을 수 있다면 샤까모니의 동시대인들은 그를 어떻게 규정할지 몰라 당황해 자문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인가, 신인가, 간다르바(*Gandharba*, 乾達婆)인가 야끄샤(*Yakṣa*, 夜叉)인가? Cf. *Āṅguttara*, II, p. 38(이와 일치하는 *Tsa a han*, T 99(n° 101), k. 4, p. 28 a~b; *Tseng yi a han*, T 125, k. 31, p. 717 b~c; *Majjhima*, I, p. 386; *Jātaka*, I, p. 66.

161) 경전에는 붓다 출생지 *Lan p'ī ni yuan*(Lumbinivana)에 관한 언급이 드물다. 하지만 *Sutta*, v. 683(*Lumbineyya janapada*); *Kathāvatthu*, p. 97, 559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산스크리트 주석서와 한문 주석서 심지어 빠알리 주석서들은 붓다의 탄생지를 룸비니로 상정하고 있다: *Mahāvastu*, II, p. 18, 145; *Lalitavistara*, p. 82, 96, 234, 411; *Buddhacarita*, I, v. 6; *Nidānakathā*, p. 53, 54; *Manoratha*, I, p. 16; *Cullavaṃsa*, LI, v. 10; *Ken pen chouo...p'o sang che*, T 1450, k. 2, p. 107 c 등 — 네팔 마을 빠데리아(*Paderia*) 혹은 빠다리아(*Padaria*) 부근, 바가완뿌라(*Bhagavanpura*) 북부 이 마일 지점 룸비니, 현재 네팔 루민디(*Rumindei*)에 아쇼까(*Ashoka Maurya*) 왕이 건립한 탑에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여기 샤까족의 성인 붓다 태어나다...왕은 탑을 건립하고 이렇게 알리고 있다: 이곳에 **지복자**(le Bienheureux) 태어나다.”(*Oldenberg, Buddha*, p. 110~111).

162)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보여준 기적에 관한 자료, Thomas, *Life of the Buddha*, p. 38~50.

163) les cinq objets de désir, the five objects of desire, *pañca kāmagaṇa*, 五欲

164) Mppś는 *Buddhacarita*, III, v. 25~62; *Lieou tsi king*, T 152 (n° 77), k. 7, p. 41 a~b(Chavannes, *Contes*, I, p. 267~270)와 *Tch'ou yao king*의 경우처럼 세 만남만을(노인, 병자, 사자) 언급한다(*Tokyo Tripitaka*, XXIV, 6, p. 43). — 하지만 대부분의 경전은 여기에 네 번째 만남 즉 사문과의 만남을 더한다. *Mahāpadānasutta*, *Dīgha*, II, p. 21~28; *Nidānakathā*, p. 59; *Mahāvastu*, II, p. 150~157; *Lalitavistara*, p. 187~191; *Ken pen chouo...p'o seng che*, T 1350, k. 3, p. 112 c ~ 114 a; *Chinese biographies*: T 184, p. 466-467; T 185, p. 474-475; T 186, p. 502-503; T 187, p. 570~571; T 188, p. 618; T 189, p. 629~631; T 190, p. 719~724 참조.

165) *Yu t'o ie*, Udraka Rāmaputtara, 鬱特伽

166) *A lo lo*, Āraḍa Kālāmā, 阿羅羅

167) 두 선인의 빠알리 이름은 알라라 깔라마(*Ālāra Kālāma*)와 우다까 라마뿌따(*Uddaka Rāmaputta*), 산스크리트 이름은 아라다 깔라마(*Āraḍa Kālāma*)와 우드라까 라마뿌트라(*Udraka Rāmaputra*)이다. 레만(*Lehmann*) 본 *Lalitavistara* 독본과 푸코의 번역은 오류이다. Mppś의 설명과는 대조적으로 붓다는 사실 우드라까 선인을 만나기 이전 아라다의 법칙을 전수했다: cf. *Majjhima*, I, p. 163~167, 249; *Dhammapadatta*, I, p. 70~71; *Nidānakathā*, p. 66; *Mahāvastu*, II, p. 119~120; *Divya*, p. 392; *Lalitavistara*, p. 238~239, 243~245; *Buddhacarita*, ch. 12; *Tchong a han*, T 26 (no.

를 지키던 일을 떠올리면서 현세에서 고행을 닦으며 육 년 동안 도를 구하는 척했다.¹⁶⁹⁾ — 비록 삼천대천세계¹⁷⁰⁾를 지배하지만 이 보디사뜨와는 마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지고한 도를 이룬 척한 것이다.

이러한 변신을 이룬 것은 세간의 법칙¹⁷¹⁾을 따르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기 뿌라즈냐빠라미 따 안에서 큰 신통력과 지혜력을 발하였으니 모든 사람은 붓다의 몸이 무한하여 모든 세계를 넘어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극단을 피해 중도로 이끔]

12.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제도 받을 수도 있으나 두 가지 극단¹⁷²⁾에[59 b] 빠져 있다.¹⁷³⁾ 혹

204), k. 56, p. 776 b~c: *Ken pen chouo...p'o seng che*, T 1450, k. 4, p. 119.

168) Buddha Kia chö, Kāśyapa, 迦葉佛

169) 까샤빠 붓다(Buddha Kāśyapa, 迦葉佛) 시절, 보디사뜨와는 베루딘가(Veruḍḍiṅga, 빠알리 Vebhaliṅga) 마을의 젊은 브라흐만 조티팔라(Jyotipāla, 護明菩薩)였다. 그의 친구 짐꾼 가띠까라(Ghaṭkāra)가 까샤빠 붓다를 친견하자고 그에게 청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절한다: “까까머리 중을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kim pana tena mundakena samanakena ditthena*)?” 어느 날 두 친구가 목욕하러 갔다. 가띠까라가 조티팔라의 머리를 끌어당기며 다시 초대하자 간절한 논리에 설득 당한다. *Mahāvastu*에 의하면 붓다에게 교화를 받은 그는 五學處(*panca śikṣāpa*)에 들어간다. *Majjhima* II, *Ghaṭikārasutta*, p. 46~49 한역본 중아함 T 26(no 63), k 12, p. 499~503; *Nidānakathā*, p. 43; *Buddhavaṃsa*, XXV, v. 10; *Mahāvastu*, I, p. 319~329; *Samyutta*, I, p. 35; *Milinda*, p. 221 참조.

170) le Trisāhasramahāsāhasralokadhātu, 三千大千世界

171) la condition humaine, the human condition, *lokadharmā*, 世法

172) les deux extrêmes, the two extremes, *antadvaya*, 二邊

173) 두 가지 극단은 붓다가 베나레스 법문 시 중도(*madhyamā pvatipad*)를 설하며 붓다가 비판한 쾌락주의(방임주의, laxisme, *kāmasukhallikānuyoga*)와 엄격주의(rigorisisme, *ātmaklamathānuyoga*)를 말한다:

Vinaya, I, p. 10.

*dve 'me bhikkhave antā
pabbajitena na sevitabbā.
katame dve. yo cāyaṃ
kāmesu kāmasukhallikā
nuyogo hīno gammo po-
thujjaniko anariyo anat-
thasamhito.*

*yo cāyaṃ attakilamathā-
nuyogo dukkho anariyo
anattasamhiio.*

*ete kho bhikkhave ubho
ante anupagamma majhi-
mā patipadā tathāgatena
abhisambuddhā cakkhu-
karani nānakarani upa-
samāya abhiññāya sam-
bodhāya nibbānāya sam-
vattati.*

TTr. 빅슈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따르면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저급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무지하고, 무익한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괴롭고 성스럽지 않아 무익한 자학에 탐닉하는 것이다. 빅슈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에 의존하지 않는 여래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이 중도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깨달음과 님바나로 인도한다.

Mahāvastu, III, p. 331

dvāv imau bhikṣavaḥ pra-
vrajītasya antau. katamā
dvau.

yaś cayam kāmeṣu kāma-
sukhallikāyogo grāmyo
prāthujaniko nālamāryo
nārthasaṃhito nāyatyām
brahmacaryāye na nir-
vidāye na virāgāye na
nirodhāye na śrāmaṇyāye
na saṃbodhāye na nirvā-
ṇāye saṃvartati.

yaś cāyam ātmakilamathā-
nuyogo duḥkho anāryo
anarthasaṃhito imau bhi-
kṣavaḥ dvau pravrajītasya
antau.

ete ca bhikṣavo ubhau an-
tāv anupagamyā tatkāga-
tasyāryasmiṃ dharmavi-
naye madhyamā pratipadā
anusambuddhā cakṣuka-
raṇīyā upasamāye saṃ-
vartanikā nirvidāye vira-
gāye nirodhāye śrāman-
yāye saṃbodhāye nirvā-
nāye saṃvartati.

TTr. 빅슈들이여, 출가한 자가 빠지기 쉬운 두 극단이 있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그 하나는 관능에 따라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인데 이것은 추잡하고, 저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미래에 바라문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염오하거나, 번뇌를 끊고,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탈속하거나, 깨달게 하지 못하므로 인해 니르바나로 인도하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자학에 빠지는 것인데 이것은 악이며, 성스럽지 못하고, 무익하다. 빅슈여 이것이 종교적 삶을 택한 자가 빠지기 쉬운 두 극단이다.

빅슈는 모든 부처의 길인 중도로서의 여래의 성스러운 법칙과 계율에 의해 이 두 극단을 피하면서, 내면을 응시하여 정숙, 은둔으로 이끌고 세상을 염오하여, 깨달음 그리고 니르바나에 이르게 한다.

Lalitavistara, p. 416.

dvāv imau bhikṣavaḥ pra-
vrajītasyaṅtāv akramau.

자는 무지¹⁷⁴)로 인해 몸의 쾌락을 추구하고, 혹자는 자신이 지은 행위에 끌린 길¹⁷⁵)에 따라 고행¹⁷⁶)에 매진한다. 이들은 절대적 관점¹⁷⁷)에 빠져 니르바나의 길을 잃는다. 붓다는 이 두 극단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중도¹⁷⁸)로 이끌고자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다.

[탄생의 몸과 법칙의 몸]

13. 또한 탄생의 몸¹⁷⁹)에 공양하는 과보 그리고 법칙으로서의 몸¹⁸⁰)에 공양하는 과보¹⁸¹)를

yaś ca kāmeṣu kāmasu-
khalikāyogo hīno grāmyaḥ
pārthagjaniko nālamāryo
'narthopasaṃhito nāya-
tyāṃ brahmacaryāya na
nirvide na virāgāya na
nirodhāya nābhipiāya na
saṃbodhaye na nirvānāya
saṃvartate.

yā ceyam amadhyamā pra-
tipad ātmakāyākrama-
thānuyogo duḥkho 'nar-
thopasaṃhito dṛṣṭadhar-
maduḥkhaś cāyatyām ca
duḥkhavipākaḥ.

etau ca bhikṣavo dvāv an-
tāv anupagamyā
madhya-
mayaiva pratipadā tathā-
gato dharmam deśayati.

TTr. 빅슈들이여! 계를 받으면 피해야 할 두 극단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저열하고 천박하고, 속되고, 성스럽지 않고, 목표와 연계되지 않고, 미래의 정신적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염오, 냉정, 단멸, 깊은 지혜와 완전한 깨달음과 해탈로 인도하지 않는 감각적 쾌락에 빠져 매달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도의 실행이 아닌 것으로 고통스럽고, 목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바로 이승의 삶에 괴로움을 주고, 미래에 고통을 낳는 자학에 빠지는 것이다. 빅슈여, 이 두 극단에 다가가지 않음으로써 중도를 실행하는 교리를 여래가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도 *Dīgha*, III, p. 113, *Majjhima*, III, p. 230; *Saṃyutta*, IV, p. 330; V, p. 421; *Nettipakaraṇa*, p. 110; *Visuddhimagga*, p. 5. 32; *Mahāyānasūtrālaṃkāra*, p. 53; *Samgraha*, p. 2; *Bodh. bhūmi*, p. 185, 187을 보라. 실제로 뿌라즈나 문헌에서 중도는 소송에서의 도덕적 의미 혹은 규율적 의미에서의 중도보다는 철학적 의미에서의 중도로 이해된다. 중도가 비난하는 두 극단적 관점은 방임주의와 엄격주의뿐 아니라 특히 존재와 비존재,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도 등도 포함한다. Cf. *Madh. vṛtti*, p. 269; *Madh. avatāra*, p. 22(tr. Lav., *Muséon*, VIII, 1907, p. 271); Vaidya, *Étude sur Āryadeva*, p. 35~37; Lav., *Madhyamaka*, p. 10; Dutt, *Mahāyāna*, p. 46, 54.

174) l'ignorance, the ignorance, *avidyā*, 無智

175) la voie des actes, the path of activity, *saṃskāramārga*, 有爲道

176) l'ascèse, the asceticism, *duṣkaracarya*, 苦行

177) le point de vue absolu, the absolute point of view, *paramārtha*, 第一義

178) le chemin du milieu, the middle path, *madhyamā pratipad*, 中道

179) le corps de la naissance, the body of birth, *janmakāya*, 生身

180) le corps de la loi, the body of the Dharma, *dharmakāya*, 法身

분별하기 위해 이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다. 「사리탑부」¹⁸²⁾를 참조하라.

[불퇴 및 요술 파기]

14. 또한 불퇴의 경지¹⁸³⁾와 그 특성¹⁸⁴⁾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다. 또 마라¹⁸⁵⁾의 요술과 짓거리를 [파하기?]¹⁸⁶⁾ 위해 이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다.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에 공양하고 삼승을 수기함]

15. 또한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함은 후세 사람들이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에 공양하고, 삼승¹⁸⁷⁾에 관해 수기를 내리기 위함이었다. 붓다는 아난다¹⁸⁸⁾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내가 니르바나에 든 후에는 이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가 남방으로 갈 것이고, 이후 남방으로부터 서방으로 가리라. 또 오백 년이 지나면 북방으로 가리라. 그중에는 많은 신자가 있어, 선남선녀가 꽃, 향, 영락, 당기, 번기, 풍악, 등불, 보물과 다른 재물로 이 경에 공양하리라. 혹자는 스스로 사경하고 혹자는 설하거나, 공부하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생각하여 법칙에 따라 이 경에 공양할 것이다. 이 인연으로 사람들은 세상의 갖가지 즐거움을 누리고 즉시 삼승을 얻고, 남김 없는 니르바나¹⁸⁹⁾에 들리라.” 이 사실을 [이어지는] 품들에서도 보게 되리라. 이러한 인연들로 붓다는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다.¹⁹⁰⁾

181) la rétribution, the retribution, *vipāka*, 果報

182) *Cho li 'ta*(Śārīrastuti). 「사리탑부」는 摩訶般若波羅蜜經의 한 품(p'in) 제목이다: T 220, k. 430, p. 151 c ~ 166 a(chap. 35: *Chō li p'in*); T 221, k. 7, p. 51 b ~ 54 a(ch. 38: *Chō li p'in*); T 223, k. 10, p. 290 b ~ 293 c(ch. 37: Fa tch'eng p'in). — 이에 관한 주석이 *Ta tche tou louen*, T 1509, k. 59, p. 475 b ~ 481 b(ch. 35: *Kiao liang cho li p'in*)에 실려 있다.

183) sans régression, the irreversibility, *avaivartika*, 阿鞞跋致(不退, 無退, 不退轉, 不退位)
보디사트와가 다르마다투(*dharmadhātu*, 法界)로부터 탄생한 몸을 얻을 때 그는 이미 불퇴 혹은 '보리, bodhi(*niyata*, 定聚)'를 예고한다. k. 4, p. 86 b~c; k. 29, p. 273 a; k. 74, p. 579 c; *Siddhi*, p. 736~739 참조.

184) les caractéristiques, the characteristics, *liṅga*, 相

185) Māra(魔羅), 魔

186) [파하다(*déjouer*?)], thwart. 'déjouer'는 라모트가 한역의 '爲魔幻魔事'의 논리적 초월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한 어휘이다.

187) le triple Véhicule, the Three Vehicles, *yānatraya*, 三乘

188) A nan, Ānanda, 阿難

189) le Nirvāna-sans-reste, the nirvāna-without-residue, *nirupadhiśeṣanirvāna*, 無餘涅槃

190) 꾸마라지바가 번역한 『이만오천송반야』에 의거한 인용(T 223, k. 13, p. 317 b): “사리뿌뜨라여, 붓다의 빠르니르바나 이후 이 심오한 뿌라즈나빠라미따는 남방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빅슈, 빅슈니, 우빠사까(*upāsakas*), 우빠시까(*upāsikās*)가 이 심오한 뿌라즈나빠라미따를 사경할 것이다. 그들이 이를 수호하고, 학습하고, 사유하고, 교육하고, 명상하고, 실행에 옮기리라. 이러한 선근의 결과 그들은 나쁜 운명(*durgati*)에 빠지지 않아 천상과 인간의 행복을 누리리라. 이들은 여섯 빠라미따를 고양하고, 부처들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리라. 단계적으로 이들은 스라바까의 대승, 프라트예까붓다의 대승, 붓다의 대승으로 니르바나를 얻을 것이다. — 사리뿌뜨라여, 이 심오한 뿌라즈나빠라미따는 이후 남방에서 서방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빅슈, 등... — 이 심오한 뿌라즈나빠라미따는 서방에서 북방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빅슈 등... — 사리뿌뜨라여, 이 심오한 뿌라즈나빠라미따는 이번에는 북방에서 붓다의 법칙을 실천할 것이다.

뿌라즈나의 여정(남 - 서 - 북)은 *Tche tch'an*(T 224, k. 4, p. 446 b), Kumārajīva(T 227, k. 5, p. 555 a), Dānapāla(施護, T228, k. 10, p. 623 b)의 공로로 *Aṣṭasāhasrikā*(『八千頌般若經』)의 세 판본에도 등장한다. 몇몇 작가들은 뿌라즈나의 남방 기원을 옹립하려 소위 이 여정이라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중요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G. Tucci, *Il Buddismo*, Foligno, 1926, p. 116; N. Dutt, *Mahāyāna*, p. 41, L. de La Vallée Poussin, *Siddhi*, p. 752; S. Paranavitana, *Mahāyānism in Ceylon*, Ceylon Jour. of Science, Section G, II, 1928, p. 35; T. Matsumoto, *Die P.P. Literatur*, p. 31. 하지만 주로 대승 경전 내용 가운데 특히 뿌라즈나가 남방(안트라 영토)

에서 기원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용한 여정으로부터 논거를 추출하기에는 난관이 따른다.

쁘라즈나빠라미따는 남방으로 떠나기 전 동방 — 정확히 말해서 붓다의 독수리봉 (Gṛdhrakūtaparvata) 법문이 행해진 마가다(Magadha) — 에서 출발하였다: Mppś, k. 67, p. 531 b)에서 설해진 경건한 신앙: “붓다는 동방에서 출현하였다. 거기서 붓다는 뿌라즈나빠라미따를 설하고 마라와 그 백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존재를 구제하였다. 이어서 쿠시나가라의 ‘두 그루 살라(Sāla)’ (沙羅雙樹) 사이에서 니르바나에 들었다. 그리고 뿌라즈나빠라미따는 동방에서 서방으로 갔다.”

두 번째, 뿌라즈나의 주요 네 방향으로의 전파는 단순히 그 성공을 상징화하기 위한 알레고리에 지나지 않는다. Mppś의 같은 부분(k. 67, p. 531 b)에 보이는 이에 관한 설명에도 오류는 없다: “그때 뿌라즈나빠라미따는 서방에서 남방으로 갔다. 그것은 마치 동에서 남으로 상시 운행하는 해, 달, 다섯 별 그리고 스물여덟 별자리(*nakṣatra*) 같았다. 뿌라즈나빠라미따는 남방으로부터 서방으로 이어지고 서방으로부터 북방으로 올라가 수메루산을 일주할 것이다. 일상적 숭배(*pūjā*) 관습을 따르자면 뿌라즈나빠라미따는 잠부드위빠(Jambudvīpa) 주민들 주위를 오른쪽으로 순행한다. 그리하여 동에서 남으로, 남에서 서로 가는 것이다. 초연히 집착을 벗어나 정주하지 않는 붓다처럼 뿌라즈나도 어느 한 곳에 정주하지 않는다. — 여기서의 뿌라즈나에 관한 언급은 일반적으로 붓다다르마에 관한 진실이다. 뿌라즈나 여행은 동으로 가든, 바다에 잠기든, 물에서 나오든, 남으로 가든, 서로 가든, 북으로 가든 가는 곳마다 불교 오계(*pentologue*)를 확립한 善見天(Sudarśana) 왕의 수레바퀴를 연상시킨다. *Mahāsudassananasutta, Dīgha*, II, p. 172~173(tr. Rh. D., II, p. 202~203); *Tch’ang a han*, T 1(n° 2), k. 3, p. 21 c~22 a; *Tchong a han*, T 26 (n° 68), k. 14, p. 515; *Ta tcheng kiu wang king*, T 45 참조.

마지막으로 뿌라즈나의 여정이 남-서-북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른 여정이 언급된 경전:

a. 남-북 여정, Mokṣala, *Pañcaviṃśatī*(고본), T 221, k. 10, p. 72a.

b. 남(*dakṣiṇāpatha*)-동(*vartani=pūrvadeśa*)-북(*uttarapatha*) 여정. 산스크리트 원본 *Aṣṭasāhasrikā*(éd. R. Mitra, p. 225)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e khalu punaḥ Śāriputra ṣaṭpāramitāsamyuktāḥ sūtrāntās tathāgatasyātyayena dakṣiṇāpathe pracariṣyanti dakṣiṇpathāt punar eva vartanyāṃ pracariṣyanti vartanyāḥ punar uttarapathe pracariṣyanti. navamaṇḍaprāpte dharmavinaye saddharmasyāntardhānakālasamaye samanvāhṛtās te Śāriputra tathāgatena. kulaputrā kuladuhitaraṣ ca tasmin kāle ya imāṃ prajñāpāramitām udgrahīṣyanti dhārayiṣyanti vācayiṣyanti paryavāpsyanti pravartayiṣyanti deśayiṣyanty upadekṣyanty uddeṣyanti svādhyāsyanty antaśo likhivā pustakagatām api kṛtvā dhārayiṣyanti jñātās te Śāriputra tathātenādhiṣṭhitās te Śāriputra tathāgatena drṣṭās te Śāriputra tathāgatena vyavalokitās te Śāriputra tathāgatena buddhacakṣuṣā. TTR. 사리뿌뜨라여, 여섯 빠라미따의 교의에 관한 이 경들은 여래의 니르바나 이후 남방으로 전파될 것이다. 남방에서 다시 동방으로 다시 동방에서 북방으로 전파될 것이다. 사리뿌뜨라여, 신선한 제호(freshly made cream, *sarpīr-maṇḍa*, 醍醐)처럼 법과 계율을 열고 [여래가 니르바나에 들고] 정법이 소멸할 때, 여래는 선남자 선여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정법이] 소멸할 때, 뿌라즈나빠라미따를 습득하고 마음에 새기고 낭송하며 통달하여 널리 퍼뜨리고 가르치며 보여주고 알려주며 되새기며, 끝까지 기록하여 책의 형태로도 만든 후 마음에 새길 그[선남자 선여인]들은, 사리뿌뜨라여, 여래에게 알려져 있는 자들이며, 그들은 여래에 의해 가피된 자들이고, 붓다의 눈으로 여래에 의해 철저히 살피진 자들[일 것]이다(전순환 역, 『팔천송반야경』 참조)

c. 사가 족 영토의 여정(*Che che*: 165와 13: 83) — 동(*Houeī to ni*: 73, 9: 36, 3: 44, 2 = *vartani*) — 북(*Yu tan yue*: 75, 22: 30, 9: 73=*uttaravati*), *Aṣṭasāhasrikā*, T 225, k. 3, p. 490 a.

d. 남동-남-남동-북서-북-북동 여정. Hiuan tsang, *Pañcaviṃśatī*와 *Aṣṭasāhasrikā*, T 220, k. 439, p. 212 c~213 c; k. 326, p. 808 b~c. 최초의 정통적인 여정에 관한 구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

Mppś(k. 67, p. 531 b)는 뿌라즈나의 성공에 관해 관심을 보인다: “북방에서 이 뿌라즈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붓다의 법칙을 실천할 것이다. 붓다가 세상에 있을 때는 상가(*samgha*)의 의혹을 제거할 수 있었다. 붓다의 교의는 번성하고 그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붓다의 니르바나 오백 년 후 붓다의 법칙이 점차 사라져가고 붓다의 행적도 위협받았다. 영리한 근기(利根, *tikṣṇendriya*)들은 뿌라즈나에 관해 공부하고 명상할 것이고, 꽃과 향을 올리게 되리라. 둔한 근기(鈍根, *mṛdvindriya*)들은 이를 전사하고 역시 꽃과 향을 올릴 것이다. 중국에는 이 두 근기들이 구원을 발견하리라...이

[네 가지 설법: 세간적 관점, 개별적 관점, 치유적 관점, 절대적 관점]

16. 붓다는 절대적 관점¹⁹¹⁾을 설법하기 위해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다. 관점에는 네 가지가 있다. 1. 세간적 관점¹⁹²⁾, 2. 개별적 관점¹⁹³⁾, 3. 치유적¹⁹⁴⁾ 관점¹⁹⁵⁾ 4. 절대적 관점. 이 네 가지 관점이 『십이부경』¹⁹⁶⁾ 전체와 팔만사천 법칙의 바구니¹⁹⁷⁾를 포함하고 있다. 네 가지 관점 모두는 진실¹⁹⁸⁾하며 서로 상충¹⁹⁹⁾하지 않는다. 붓다의 법칙 안에는 세간적 이치로서의 실재, 개별적 이치로서의 실재, 치유적 이치로서의 실재, 절대적 이치로서의 실재가 있다.²⁰⁰⁾

심오한 뿌라즈나는 멀리 북방으로 전파될 것이다. 실제로 잠부드위빠 전역을 통틀어 북 잠부드위빠가 가장 광대하다. 더욱이 거기에는 설산(Himālaya)이 있다. 그곳 날씨는 춥고 식물들은 [갈망, 혐오, 무지]의 독을 파괴할 수 있다. 거기서 먹는 곡물들 때문에 삼독은 그다지 큰 위력을 지니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에 북방에 뿌라즈나빠라미따를 행하는 자들의 수가 많다.

- 191) le point de vue absolu, the absolute point of view, *pāramārthika siddhāntalakṣaṇa*. 第一義悉檀. 절대적 진실에 근거한 수사. ‘*pāramārthika*’는 ‘excellent, supremely good, best’, *siddhānta+lakṣaṇa*(相). ‘*siddhānta*’는 ‘tradition’, ‘settled opinion’, ‘doctrine’, ‘dogma’, ‘axiom’, ‘宗’, ‘성취’, ‘교의’ 혹은 ‘방법론’ 등을 의미한다. 일본 학자들은 한자 그대로 ‘悉檀’이라 표기하고 ‘成就の義’로 해석하고 있다.
- 192) le point de vue mondain, the mundane point of view, *laukika siddhānta*, 世界悉檀. 세간의 논리에 따른 상식적 수사.
- 193) le point de vue individuel, the individual point of view, *prātipauruṣika siddhānta*, 各各為人悉檀. 개인의 정신 상태에 따른 수사.
- 194) 영역자 빅슈니 쥘텐은 ‘*prātipākṣa*’의 치유적 의미는 라모트의 프랑스어 번역을 따른 것이라고 소개하고, 모니에 윌리엄스(Monier-Williams)는 ‘*prātipākṣa*’를 ‘적대적’인 의미에서 ‘hostile, adverse, contrary’로 옮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195) le point de vue thérapeutique, the therapeutic point of view, *prātipākṣika siddhānta*, 對治悉檀. 치유를 위한 수사.
- 196) les écritures à douze membres, the twelve-membered scriptures, *dvādaśāṅgasūtra*, 『十二部經』
- 197) les quatre-vingt-quatre mille corbeilles de la loi, the eighty-four thousand baskets of the doctrine, *caturaśītidharmapiṭakasahasra*, 八萬四千法藏
- 198) vrai, true, *satya*, 實
- 199) ne se contredire pas, do not contradict one another, *ananyonyavyapakrṣṭa*, 無相違背
- 200) 네 가지 시단타(*siddhānta*) 이론은 다음 저술들에 설명된 두 가지 진실 즉 상대적 진실 (*saṃvṛtisatya*)과 절대적 진실(*paramārthasatya*)의 전개로 나타난다: *Kathāvatthu Comm.* p. 22; *P’i p’o cha*, T 1545, k. 77, p. 399 b~400 c(tr. Lav, *MCB*, V, 1937, p. 161~169; *Kośa*, VII, p. 130; *Madh. vṛtti*, p. 492; *Madh. avatāra*, p. 70(tr. Lav, *Muséon*, VIII, p. 313); *Bodhicaryāvataāra*, IX, v. 2. Mppś, k. 38, p. 336, Oltramare, *Théosophie*, p. 300~303; Lav., *Documents d’Abhidharma. Les deux, les quatre, les trois vérités*, *MCB*, V, p. 159~187에도 논의 되고 있다. 첫 세 시단타는 상대적 진실, 마지막 시단타는 절대적 진실에 상응한다.

- | | |
|-------------------------------|---|
| 1. <i>Samvṛtisatya</i> 世俗諦 | 1. <i>laukika siddhānta</i> 世界悉檀 |
| | 2. <i>prātipauruṣika siddhānta</i> 各各為人悉檀 |
| | 3. <i>prātipākṣika siddhānta</i> 對治悉檀 |
| 2. <i>Paramārthasatya</i> 勝義諦 | 4. <i>pāramārthika siddhānta</i> 第一義悉檀 |

내가 알고 있는 한, 네 시단타는 Mppś에만 존재한다. 그런데 *Bodh. bhūmi*, p. 37은 네 가지 진여 (*tattva*) 혹은 실재(réalités) 그리고 앞의 네 단계를 밝히고 있다. 1)世間에서 承認된 眞實 (*lokaprasiddhatattva*, 世間極成眞實): 온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공통의 실재(common reality), 2) 道理에 의해 承認된 眞實(*yukti prasiddhatattva*, 道理極成眞實, 藉由道理所承認的眞實): 증거들에 근거하여 확립된 실재, 3)煩惱障을 정확하는 智의 대상 영역인 眞實 (*kleśāvaraṇaviśuddhijñānagocara*, 煩惱障淨智所行眞實): 집착에 항상 내재하는 모든 장애를 순화한 앞의 영역 4)所知障을 정확하는 智의 대상 영역인 眞實(*jñeyāvaraṇaviśuddhijñānagocara*, 所

(세간적 관점)

a. 세간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원인·조건 화합²⁰¹⁾으로부터 유래하는 실재하는 존재들이 있다. 하지만, [원인·조건과 분리된] 개별성²⁰²⁾은 없다.²⁰³⁾ 그래서 수레는 채, 축, 바퀴, 살의 화합으로 있게 돼지만, 구성 요소들과 별도로 분리된 수레는 없다.²⁰⁴⁾ 사람도 다섯 구성요소의 집적(集積)²⁰⁵⁾으로 있게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것과 따로 격리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세간적 관점이 없다면, 붓다는 정말 거짓부렁이가 될 것이다. 붓다는 왜 다음과 같이 말하는가. “내 아주 맑은 신성한 눈²⁰⁶⁾으로 살피니 존재는 그들의 선·악업²⁰⁷⁾에 따라 여기서 죽거나,

知障淨智所行真実): 의식의 모든 장애를 순화한 앎의 영역. ‘煩惱kleśa-’와 ‘所知障jñeyāvaraṇa’이라는 표현은 *Vijñānavādin*(唯識學派) 저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Triṃśikā*, p. 15, *Samgraha*, p. 6; *Madhyāntavibhaṅga*, index; *Siddhi*, p. 566. —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Bodh. bhūmi*의 네 진여는 Mpp’s의 네 시단타와 정확히 일치한다.

201) les complexes des causes et conditions, *hetupratyayasāmagrī*, 因緣和合. 영역본은 ‘和合(*sāmagrī*)’에 해당하는 역어 없이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유래하는 실제 존재(real dharmas resulting from causes and conditions exist)’로 옮김.

202) la nature distincte, the nature distinct, *bhinnasvabhāva*, 別性

203) 붓다가 사람, 개인에 관해 말할 때는 세간적 관점에 위치한다. 절대적 관점에서 개인이란 자신을 구성하는 ‘다섯 구성요소(*skandha*)’[五蘊]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는 글 대부분은 개아(*pudgala*)의 거부에 할애된 *Kośa*, chap. IX에서 재언급 된다.

204) 수행녀 와지라(*Vajirā*)(*Kośa* 속 *Śilā*)가 마라에게 답한 내용의 비유. Cf. *Samyutta*, I, p. 135: *Tsa a han*, T 99(n° 1202), k. 45, p. 327 a; T 100(n° 218), p. 454:

	TTr.
<i>Kinnu satto ti paccesi </i>	어찌하여 그대는 존재라 이르는가?
<i>māraditthigatam nu te </i>	악마여, 그것은 그대의 사건일 뿐
<i>suddhasankhārapunjo yant </i>	단순한 행위의 집적으로
<i>nayidha sattūpalabbkati </i>	여기에서 존재를 찾을 수는 없네
<i>yathā hi angasambhārā </i>	마치 부속 모두가 한데 모여
<i>hoti saddo ratho iti </i>	수레라 하는 이름 있듯
<i>evarn khandhesu sanie su </i>	이처럼 다섯 구성요소에 의거한
<i>hoti satto ti sammuti </i>	존재라는 가명이 있을 뿐이라

이 계송은 *Kathāvatthu*, p. 66, *Kośa*, IX, p. 249, *Madh. avatāra*, p. 257 등에 인용된다. 티베트 어역은 다음과 같다.

| *bdag ces bya ba bdud kyī sems |*
| *khyod ni lta bar gyur pa yin |*
| *hdu byed phun po hdi ston ste |*
| *hdi la sems can yod ma yin |*

| *ji ltar yan lag tshogs rnam la |*
| *brten nas sin rtan brjod pa ltar |*
| *de hi'm phun po rnam brten nas |*
| *kun rdzob sems can tz s byaho |*

수레의 비교는 *Milinda*, p. 27에서 재언급 되어 진전을 보이게 된다: *Kim pana mahārāja aññatra isā-akkha-cakka-rathapañjara-rathadaṇḍa-yuga-rasmi-patodaṃ ratho ti. Na hi bhante ti.* TTr. 하지만 왕이시여, 이 모든 부분들 즉 수레의 채(輓), 굴대(軸), 바퀴(輪), 몸체(車體), 틀(棒), 멩에(軛), 바퀴살(輻), 채찍(鞭)을 제외하고 나서도 다른 무엇이 있는지요? — 확실히 그렇지 않소.

205) la réunion des cinq agrégats, the coming together of the five aggregates(skhandas), 五衆和合

그 과업에 따라 저기서 다시 태어나는구나. 선행자는 천신²⁰⁸)이나 인간²⁰⁹) 세상에 태어나고, 악행자는 [59 c] 세 나쁜 운명²¹⁰)에 떨어진다.” 또한 경에 이르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즐

206) l'œil divin, the divine eye, *divyacakṣus*, 天眼

207) les actes bons ou mauvais, the good or bad actions, *kuśalākuśalakarman*, 善惡業

208) les dieux, the gods, *deva*, 天

209) les hommes, the men, *manuṣya*, 人

210) les trois destinées mauvaises, three unfortunate destinies, *tridurgati*, 三惡道

붓다의 이 관점은 깨달음을 이룬 후 이틀째 밤에 깨달은 존재의 생사에 관한 지혜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발견은 산스크리트 전통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왔다(p. ex. *Lalitavistara*, p. 344; *Mahāvastu*, II, p. 283; *Daśabalasūtra* in *Waldschmidt, Bruchstücke*, p. 221; *Bimbasārasūtra*, *ibid.*, p. 129~130). 그리고 빠알리 전통에서는 *Digha*, I, p. 82; *Majjhima*, I, p. 23, 348; II, p. 21, 등):

Sanskrit.

*Atha bodhisattvo divyena cakṣusā
parisuddhenātikrāntamānusyakeṇa
sattvān paśyati sma cyavamānān upa-
padyamānān suvarṇān durvarṇān suga-
tān durgatān hīnān praṇītān yathākara-
mopagān sattvān prajānāti sma.*

*ime vata bhoḥ sattvāḥ kāyaduścari-
tena samanvāgatāḥ, vānmanoduścari-
tena samanvāgatāḥ, āryānām apavāda-
kā mithyādr̥ṣṭayas te mithyādr̥ṣṭika-
madharmasamādānāhetoḥ kāyasya bhe-
dāt paraṃ maraṇād apāyadurgativini-
pātaṃ narakeṣūpapadyante.*

*ime punar bkavantaḥ sattvāḥ kāyasu-
caritena samanvāgatāḥ, vānmanahuca-
ritena samanvāgatāḥ, āryānām anapa-
vādakāḥ samyagdr̥ṣṭayas te samyagdr̥ṣṭi-
karmadharmasamādānāhetoḥ kāyasya
bhedāt sugatau svargalokeṣūpapadyante.*

Pāli.

*So dibbena cakkhunā visuddhena atik-
kantamānusakena satte passati cava-
māne upapajjamāne hīne paṇite su-
vaṇṇe dubbaṇṇe sugate duggate yathā-
kammūpage satte pajānāti.*

*ime vata bhonto sattā kāyaduccari-
tena samannāgatā vacīduccaritena sam-
annāgatā manoduccaritena saman-
nāgatā ariyānaṃ upavādakā mic-
chādiṭṭhikā micchādiṭṭhikammasamā-
dānā te kāyassa bhedaṃ paraṃ maraṇā
apāyaṃ duggatiṃ vinipātaṃ nirayaṃ
upapannā.*

거움과 행복과 이익을 위해 세상에 나오면, 그가 바로 붓다 바가와뜨²¹¹⁾라.” 『법구경』²¹²⁾에도 이르길, “한 마음(사람)이 다른 마음을 제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한 마음을 제도할 수 있다. 선과 지혜의 실천이 최고 구원자이다.”²¹³⁾ 마찬가지로 『병사왕영경』²¹⁴⁾에서도 붓다 말하길, “범인²¹⁵⁾은 법칙을 듣지 않고, ‘나’²¹⁶⁾에 집착한다.”²¹⁷⁾ 그러나 『법이야경』²¹⁸⁾에 이르길,

*ime vā pana bhonto sattā kāyasucari -
tena samannāgatā vacīsucaritena sam-
annāgatā manosucaritena samannā-
gatā ariyānaṃ anupavādakā sammā-
diṭṭhikā sammādiṭṭhikammasamādānā
te kāyassa bhedaṃ param maraṇā suga-
tiṃ saggam lokam upapannā ti.*

TTr.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天眼]으로 존재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수승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선처에 가고 악처로 가는 것을 본다. 업에 끌려가는 존재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들은 몸으로 나쁜 삶을 살고, 입으로 나쁜 삶을 살고, 마음으로 나쁜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사탄 견해를 지니고, 사견업을 지었으며,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 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났으나, 또 어떤 이들은 몸으로 좋은 삶을 살고, 입으로 좋은 삶을 살고, 마음으로 좋은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음을.(- 『중아함』, 105, 願經, T 1595 참조)

211) Buddha Bhagavat, 佛世尊.

Āṅguttara, I, p. 22: *ekapuggalo bhikkhave iṅke uppajjāmano uppajjati bahujanahitāya bahujanasukhāya lokānukampāya atthāya hitāya sukhāya devamanussānam. katamo ekapuggalo? Tathāgato araham sammāsambuddho*: Tseng yi a han, T 125, k. 3, p. 561 a 9; Kosa, IX, p. 259. TTr: 빅슈들이여, 한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에 연민을 품고 많은 인간과 신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래, 아르하트, 정등각이다.

212) Fa kiu, Dharmapada, 法句

213) 나[라모트]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Dhammapada*(『法句經』)이나 『*Udānavarga*』(『出曜經』) 모두에서 이 인용문을 찾아내지 못했다.

214) P'ing cha wang ying king, *Bimbasārarājapratyudgamanasūtra*, 『瓶沙王迎經』

215) le profane, the ordinary person, *prthagjana*, 凡人

216) Ātman, 我

217) T 26(n° 62), k. 11, p. 498 b 10: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asrutavat*) 자들(*bālaprthagjana*)은 ‘나’를 그들 자신처럼 여기고 ‘나’에 애착한다. 하지만 ‘나(*ātman*)’는 없다. 그리고 ‘나의 것(*ātmiya*)’도 없다. 비어 있음이 ‘나’이며, 비어 있음이 ‘나의 것’이다. - T 41, p. 826 a 19의 유사한 구절: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부르는 이는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Bimbasārasūtra 혹은 *Bimbasārarājapratyudgamanasūtra*가 유명하다.

1° *Bimbasārasūtra*(『頻毘娑羅契經』)는 산스크리트 원전 일부가 투르판(Turfan) 원정대에 의해 중앙 아시아에서 발견되어 출간되었다(Waldschmidt, *Bruchstücke*, p. 114~148).

2° *Kośa*, III, p. 84, IX, p. 249 및 *Kośavyākhyā*, p. 299에 인용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bālaḥ prthijanaḥ saṃskāramātram aprajānann ātmadrṣṭyasmimābhiniṣṭaḥ kāyādibhis trividham karma ārabhate*. TTr.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는 가명에 집착하여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만 여기에는 ‘나’와 ‘나의 것’이란 없으며 오로지 과거·현재·미래의 고통이라는 존재가 있을 뿐이다. 『법비사라계경(頻毘娑羅契經)』 참조: 어리석음에 [진리를] 들어본 적 없는 모든 이생에서는 가명에 집착하여 그것을 ‘나(我)’라고 헤아리지만, 여기에는 ‘나’도 ‘나의 것’도 없으며, 오로지 일체 중고(衆苦)의 법체만이 존재하고, 미래[將]·현재[正]·과거[已]에 생겨날 뿐이다.

3° 이 저술은 두 번 한역됨: a. *Tchong a han, P'in pi so lo wang ying fo king* (*Bimbasārarāja-pratyudgamanasūtra*), T 26 (no. 62), k. 11, p. 497b. - b. *Fo chouo p'in p'o so lo wang king*(*Bimbasārasūtra*), tr. Fa hien, T 41, p. 825.

4° 티베트어역 제목: *Mdo chen po gzugs can sñiṅ pos bsu ba zes bya ba* (*Bimbasārapratyudgamanāmahāsūtra*), Mdo XXV, 2 (Csoma-Feer, p. 275; OKC, n° 955). 이 번역에 대한 분석: Waldschmidt, *Bruchstücke*, p. 144~148.

5° 설일체유부 비나야(十誦律, *Vinaya des Sarvāstivādins*), *Che song liu*, T 1435, k. 24, p. 174 b는 *P'in po cha lo po lo che k'ie mo nan*(*Bimbasārapratyudgama*)을 훌륭한 교육을 받아

“처음 도를 얻은 밤부터 니르바나에 든 밤까지 붓다가 설한 경의 법칙은 모두 진실하며 거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람이 없다면 붓다가 어찌하여 “나의 천안으로 존재를 본다”고 했으리요? 이러한 연유로 사람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있으나, 이는 세간적 관점에서 하는 말이니 절대적 관점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물음: 절대적 관점은 진실하고,²¹⁹⁾ 그것이 진실하기에 절대적이라 불린다면, 나머지 관점들은 진실하지 못하단 말인가.

답: 그렇지 않다. 이 네 가지 관점은 개별적으로 진실하다. 진실한 본성,²²⁰⁾ 사물들의 본

지혜가 깊은 우빠사까(優婆塞, *upāsaka*)의 ‘위대한 경전들(Grands sūtras)’의 하나로 간주한다. 바가와뜨는 빔비사라 왕을 두 번 만났다. 첫 번째 만남은 깨달음을 얻기 전으로 빠다와빠바따(*Paṇḍavapabbata*) 부근의 라자그리하에서의 만남으로 Mppś, k. 3, p. 77 a에서 그 비유를 들고 있다. 두 번째 만남은 그의 깨달음 이후이다. 빔비사라왕이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Latthivanuyyāna*의 *Supatitthacetiya*에서 발견한 붓다에게 갔다. *Bimbāsārārājapratyudgamanasūtra*는 이 두 번째 만남을 언급하고 있다. 왕이 백성 모두와 함께 전향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 전향에 관하여는 *Vinaya* 및 *the Lives of the Buddha*에 언급되어 있다: *Vinaya*, I, p. 35~39(tr. Rh. D. – Oldenberg, I, p. 136~144), 시작 부분은 *Tsa a han*, T 99 (no. 1074), k. 38, p. 279 a~c, and T 100(n^o. 13), k. 1, p. 377 a~c와 비교할 만하다. – *Mahāvastu*, III, p. 443~449. – *Wou fen liu*, T 1421, k. 16, p. 110 a. – *Sseu feu liu*, T 1428, k. 33, p. 707 c. – *Ken pen chou...p'o seng che*, T 1450, k. 7, p. 135 seq. – *Dhammapadaṭṭha*, I, p. 88 (tr. Burlingame, *Legends*, I, p. 197). – *Nidānakathā*, p. 83.

218) 『法二夜經(*Fa eul ye king, Sūtra des deux nuits*)』(*Sūtra of the two nights of the Dharma or Dharmarātridvyaya-sūtra*). 소위 『법이야경』은 하나의 아포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Digha*, III, p. 135; *Aṅguttara*, II, p. 24; *Itivuttaka*, p. 121; *Sumaṅgala*, I, p. 66; *Tchong*, T 26(n^o 137), k. 34, p. 645 b 18; *yañ ca rattim tathāgato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jjhati, yañ ca rattim anupādisesāya nibbānadhātuyā parinibbāyati, yaṃ etasmiṃ antare bhāsati lapati niddisati, sabbaṃ taṃ tath'eva hoti no aññathā*. TTr: 춘다여, 여래가 무상정진각을 얻은 밤과 빠르니르바나를 이룬 밤 동안 그가 주장하고 말하고 설한 것이 이와 같고 다르지 않다. 이후 바가와뜨가 순간적 발성(發聲)으로 가르쳤거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Vasumitra*, p. 20; *Fo houa yen king*, T 279, k. 80, p. 443 c; *Wei mo kie so chou king*, T 475, k. 1, p. 538 a; *Nāgārjuna, Nirupamyastava*, v. 7, in JRAS, 1932, p. 314: *nodāhrtaṃ tvayā kiṃcid ekam apy akṣaram vibho, kṛtsnaṣ ca vaineyajano dharmavarṣeṇa tarpitaḥ* 참조. TTr.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배우는 자들 모두에게 법칙의 비를 쏟아 부어주었네. *Hobogirin*, p. 215~217; *Siddhi*, p. 796). 결론적으로 『法二夜經』은 수정되었다: *Madh. vṛtti*, p. 366, 539: *yāṃ ca śāntamate rātrim tathāgato 'nuttarāṃ samyaksambodhiṃ abhisamuddhoyāṃ ca rātrim upādāyaparinirvāsyati, asminn antare tathāgatenaikāksaram api nodāhrtaṃ na pravāhrtaṃ nāpi pravāharīsyati*. TTr. 오 산따마 띠여, 그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밤과 빠르니르바나를 얻은 밤 사이에 여래는 한 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다. 말을 하지도 않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말하지 않으리라. – *Pañjikā*(『入菩薩行論細疏』), p. 419의 경우: *yasyāṃ rātrau tathāgato 'bhisambuddho yasyāṃ ca parinirvṛto 'trāntare tathāgatenaikam apy aksaram nodāhrtam. tat kasya hetoḥ nityaṃ samāhito bhagavān.ye cāksarasvararutavaineyāḥ sattvās te tathāgatamukhād ūrnakośād uṣṣād dhvaniṃ niēsarantaṃ śṛṇvanti*. TTr. 어느 날 밤 여래는 깨달았고, 어느 날 밤 여래는 열반에 이르렀다. 이 밤들 사이에 여래는 한 음절도 입 밖에 내거나 말하지 않았다. 왜 그러한가? 여래는 항상 명상 삼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절들을 통해 주어진, 음성들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단련될 사람들은 입, 육계와 백호로부터 나오는 말들 듣는다. – *Lankāvatāra*(『楞伽經』), p. 142~143: *yāṃ ca rātrim tathāgato 'bhisambuddho yāṃ ca rātrim parinirvāsyati, atrāntara ekam apy akṣaraṃ tathāgatena nodāhrtaṃ na pravāharīsyati. avacanaṃ buddhvacanam*. TTr. 깨달음을 얻은 밤부터 빠르니르바나에 든 밤에 이르기까지 여래는 그 사이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한마디 하지 않으리라 했다.

219) vrai, true, *bhūta(satya)*, 實

220) le vrai caractère, the true nature, *tathatāt*, 如如法性

성,²²¹⁾ 존재의 정점²²²⁾은 세간적 관점에서는 없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람은 세간적 관점에서 있는 것이지, 절대적 관점에서 있다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한가? 원인·조건²²³⁾ 화합인 사람의 다섯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사람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유의 인연 화합인 그 색, 냄새, 맛, 촉감이 있을 때, 우유도 있다. 우유가 없다면, [60 a] 당연히 우유의 인연 화합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유의 인연 화합이 있다면 당연히 우유도 있어야 한다.²²⁴⁾ 사람에게 두 번째 머리나 세 번째 손의 원인과 조건은 있을 수 없어, 그 이름을 생각할 수 없기에. 이러한 특성들²²⁵⁾을 세간적 관점이라 한다.

(개별적 관점)

b. 개별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설법하되 각 개인의 정신 상태²²⁶⁾를 고려하여 설법하는 것이다. 하나의 일을 두고 혹자는 알아듣기도 하고 혹자는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느 경에 이르길, 다양한 응보²²⁷⁾로 인해, 다양한 세상²²⁸⁾에 다시 태어나, 다양하게 접촉하고,²²⁹⁾ 다양하게 느낀다.²³⁰⁾” 반면 『팔구나경』²³¹⁾에 이르길, “접촉할 사람도 없고, 느낄 사람조차 없다”고 하였다.²³²⁾

물음: 어찌 이 두 경이 서로 통한단 말인가?

답: 혹자는 후세²³³⁾에 의문을 품고 죄²³⁴⁾와 복²³⁵⁾을 신뢰치 않아 선행을 하지 않고²³⁶⁾ 모든 것이 끊기고 없어진다는 그릇된 견해²³⁷⁾에 빠진다. 이들의 의혹을 끊고, 악행을 없애고, 그 끊기고 없어진다는 그릇된 견해를 뽑아버리고자, “다양하게 행한 업으로 인해 다양한 세상에 다시 태어나, 다양하게 접촉하고²³⁸⁾ 다양하게 느낀다²³⁹⁾”고 붓다는 말한다. 그런데 팔구나²⁴⁰⁾는

221) la nature des choses, the nature of phenomena, *dharmatā*, 實際

222) le sommet de l'existence, the summit of existence, *bhūtaḥki*, 世界悉檀

223) les causes et conditions, the causes and conditions, *hetupratyaya*, 因緣

224) 우유의 예는 *Kośa*, IX, p. 239에 다시 등장한다.

225) de telles caractérisations, such characterizations, *nimittanāman*, 如是等相

226) l'état d'esprit, the state of mind, *cittapavṛtti*, 心行

227) rétribuer différemment, different retribution, *saṃbhinnavipākakarma*, 雜報業

228) des univers différents, different universes, *saṃbhinnalokadhātu*, 雜(生)世間

229) des contacts différents, different contacts, *saṃbhinnasparśa*, 雜觸

230) des sensations différentes, different feelings, *saṃbhinnavedanā*, 雜受

Anguttara, I, p. 134와 비교: *yatth'assa atabhāvo nibbattati tattha tam hammam vipaccati, yattha tam hammam vipaccati tattha tassa hammasa vipākam pafisamvseti ditth'eva dhamme uppajje va apure vā pariyāye*. — Tr.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행동이 성숙해지고, 행동이 성숙해지면 이승 혹은 다른 곳에서 보상이 따른다.

231) *P'o k'iun na king*, *Phāhlgunasūtra*, 『破群那經』

232) *Samyutta*, II, p. 13: *Tsa a han*, T99 (no. 372), k. 13, p. 102 a: *phusatīti ahaṃ na vadāmi....vediyatīti ahaṃ na vadāminv*. 1. *Nidānasamyutta*, 2. *Āhāravagga*, *Moliyaphaggunasutta* 참조) — *Kośa* IX, p. 260; *Kośavyākhyā*, p. 707에 산스크리트 단편이 남아 있다.

233) l'au-delà, the here-after, *amutra*, 後世

234) le péché, the sin, *pāpa*, 罪

235) le mérite, the merit, *puṇya*, 福

236) de mauvaises actions, the evil acts, *akuśualacaryā*, 不善行

237) la vue fautive de l'anéantissement, the wrong view of annihilation, *ucchedadrṣṭi*, 斷滅見

238) des contacts, the contacts, *sparśa*, 觸

영혼²⁴¹)의 존재, 프루샤²⁴²)의 존재를 믿어 영원이라는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었다. 팔구나가 붓다에게 “존귀한 분²⁴³)이여, 누가 느끼는 것입니까?”라 물었는데 만약 붓다가 “이 사람도 느끼고 저 사람도 느끼지.” 라고 답했다라면 팔구나는 영원함이라는 그릇된 견해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 이 사람의 ‘뿌드갈라(Pudgala, 個我)’²⁴⁴)와 ‘아트만(Ātman, 魂)’²⁴⁵)에 대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리라. 이러한 연유로 붓다는 팔구나에게 설할 때 느끼는 사람²⁴⁶)도, 접촉하는 사람²⁴⁷)도 모두 부정하였다. 이러한 성격을 개별적 관점이라 이른다.²⁴⁸)

(치유적 관점)

c. 치유적 관점. 치유법으로서의 법들은 있으나 진정한 본성²⁴⁹)으로서의 법은 없다. 열이

239) la sensation, the sensations, *vedanā*, 受

240) Phālguna, 頗勒具那

241) l'âme, a soul, *Atman*, 我

242) Puruṣa, 神

243) Vénéérable, Venerable One, *bhadanta*, 大德

244) individu, *indivisual*, *pudgala*, 人

245) âme, soul, *ātman*, 我

246) un être qui sente, a being who feels, *vedaka*, 受者

247) un être qui touche, a being who touches, *sparsāka*, 觸者

248) 붓다가 제자를 가르치면서 질문자의 의도와 상태를 살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붓다와 와짜곳따(Vacchagotta)의 대화를 보라. *Samyutta*, IV, p. 400; *Tsa a han*, T 99 (n° 961)., k. 34, p. 245 b; T 100(n° 195), k. 10, p. 444 c.

붓다는 와짜곳따에게 ‘나’가 있는지 없는지 말하기를 거부하였다. 아난다가 붓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붓다는 이렇게 말하며 타당성을 증명했다: 오, 아난다여, 만일 방랑 승려 와짜곳따가 내게 “‘나’는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내가 만일 그에게 “나는 있다.”라고 답했다면 마치 상주론을 믿는 사문이나 브라흐만의 교의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오, 아난다여, 방랑 승려 와짜곳따가 내게 “‘나’는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없다.”라고 답했다면, 오, 아난다여, 그것은 단멸론을 믿는 사문이나 브라흐만의 교의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난다여, 만약 방랑 승려 와짜곳따가 “‘나’는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있다.”라고 답한들 그 마음속에 “모든 존재는 무아이다”라는 지혜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을까? – “바가와뜨여,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 다른 한 편으로 만일 방랑 승려 와짜곳따가 내게 “‘나’는 없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없다.”라고 답했다면 그가 겪는 방향보다 더욱 심한 방향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예전에 ‘나의 자아(Mon Moi)’는 없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는 ‘나’도 없다.”(Oldenberg, *Buddha*, p. 309~310).

마찬가지로 *Kośa*, IX, p. 262~264를 보자: 어찌하여 바가와뜨는 지와(*jīva*, 생명의 근원)가 몸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바가와뜨는 묻는 사람의 의도(*āśaya*)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지와를 이성적 존재, 요소들의 단순한 지칭이 아니라 개아, 살아 있는 총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아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지와가 몸과 같은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 묻고 있다. 이 지와는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와는 그 어떤 같은 것 혹은 다른 것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바가와뜨는 두 질문 모두 비난한다. 마찬가지로 거북의 털이 딱딱한지 말할 수 없다... 어찌하여 바가와뜨는 지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지 않았는가? 역시 바가와뜨는 질문자의 의도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지와가 구성요소(*skandha*)라는 생각을 품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바가와뜨가 지와가 절대 없다고 답한다면 질문자는 사건에 빠지고 말 것이다. 더구나 질문자는 연기(*pratīyasamutpāda*)를 이해할 수 없기에 바가와뜨는 그에게 지와가 오직 지칭일뿐이라 말하지 않는다. – *Lav. Nīrvāna*, p. 118~119: 학자들은 붓다의 법칙이 청중의 경향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들의 경우는 了義(*nītārtha*)로서 문자 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른 경들은 다른 경들대로 未了義(*neyārtha*)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주석가들을 위한 매우 적절한 가설이자 여러 경우에 합당한 가설이기도 하다. 경전은 붓다에게서 의사 그것도 매우 위대한 의사를 본다. 학자들은 붓다를 경험론자로 소개한다. 붓다는 지옥을 확신하는 속인이 죄를 지을까 우려하였다. 또 현인들이 모든 자신의 이기주의를 벗어버릴 줄 알게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붓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의 존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의 비존재를 가르친다. 마찬가지로 어미 호랑이는 새끼들을 입에 물고 다닌다: 어미는 실재 자아라는 이단의 치아로 새끼를 물고 가지만, 새끼가 경험적 ‘나’의 단멸론 이단 속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물고 있기에 새끼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어미 호랑이 비유는 *Kumāralābha*, in *Kośa*, IX, p. 265에서 유래한다.

많고²⁵⁰), 지방이 많고²⁵¹), 시고²⁵²), 짠²⁵³) 약초나 음식²⁵⁴)은 풍증²⁵⁵)에는 약이 되도, 다른 병에는 약이 될 수 없다. 차고²⁵⁶), 달고²⁵⁷), 쓰고²⁵⁸), 뚱은²⁵⁹) 약초와 음식은 열병²⁶⁰)에는 약이 되지만 다른 병에는 약이 될 수 없다.²⁶¹) 맵고, 쓰고, 뚱고, 열이 많은 약초와 음식은 냉병에는 약이 되도, 다른 병에는 약이 될 수 없다. 마음의 병²⁶²)을 고치는 붓다의 법칙도 이와 같다. — 탐욕의 병²⁶³)에는 혐오스러움 살피는 것(부정관²⁶⁴)이 좋은 약²⁶⁵)일지나, 버럭 화를 내는 병²⁶⁶)에는 좋은 약이 되긴커녕, 약 자체로도 쓰일 수 없다. 왜 그런가? 혐오스러움을 보는 것은 몸의 허물²⁶⁷)을 보는 것인데, 만약 성년 사람이 상대의 허물을 본다면 그 성화의 불길만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 자비로운 마음을 생각하는 것(자심관²⁶⁸)은 성냄의 병²⁶⁹)에는 좋은 약이나, 탐냄의 병²⁷⁰)에는 좋지도 않고 약도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비로움²⁷¹)은 남에게서 그를 좋아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 공덕²⁷²)을 살피는 데 있는데 만일 탐욕에 빠진 이가 탐하는 이유에 집착하고 그 공덕을 살피면 그 집착만 더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원인·조건 관법²⁷³)은 어리석음의 병²⁷⁴)에 좋은 약이지만, 탐냄과 성냄에는 좋지도 않고, [60 b] 약도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릇된 살핌²⁷⁵)이 앞서 그릇된 견해²⁷⁶)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릇된 견해는 곧 어리석음²⁷⁷)이라.²⁷⁸)

-
- 249) les natures vraies, the true natures, *bhūtasvabhāva*, 實性
 250) chauds, hot, *uṣṇa*, 熱
 251) grasieux, fatty, *medasvin*, 膩
 252) vinaigre, acidic, *kaṭuka*, 酢
 253) salé, salty, *lavaṇa*, 鹹
 254) les herbes et aliments, the plants and foods, *ośadhyākahāra*, 藥草飲食
 255) les maladies du vent, illnesses of wind, *vāyuvyādhi*, 風病
 256) froids, cold, *sīta*, 冷
 257) doux, sweet, *madhura*, 甘
 258) amers, bitter, *tikta*, 苦
 259) âcres, acrid, *karkaśa*, 澁
 260) les maladies du feu, the illnesses of fire, *tejovyādhi*, 熱病
 261) 발병학과 의료 행위에 관해서는 Hobogirin, *BhB*, p. 249~262 참조.
 262) les maladies de la pensée, the sickness of the mind, *cetovyādhi*, 心病
 263) la maladie de rattachement, the sicknesses of attachment, *rāgadveṣavyādhi*, 貪欲病
 264) la considération de terrible, the contemplation of the disgusting, *aśubabhāvana*, 不淨觀.
 시신에 관한 부정관은 아래 자료 참조. k. 19, p. 198 c~ 199 a. — 현존 문헌 자료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Digha*, II, p. 296; *Majjhima*, III, p. 82; *Āṅguttara*, III, p. 323. — 빠알리 교학(Pāli scholasticism): *Dhammasaṅgaṇī*, p.55: *asubhajhāna*(tr. Rh. D., p. 63, n. 2); *Vissuddhimagga*, p. 178; Rh. D., *Brethren*, p. 123; Warren, *Buddhism*, p. 353; Aung, *Compendium*, p. 121, n. 6; Hardy, *Eastern Monachism*, p. 247. — 산스크리트 출전: *Śikṣāsamucchaya*, p. 209(tr. Bendall-Rouse, p. 202; *Bodhicaryāvatāra*, VIII, v. 63; Huber, *Sūtrālaṅkāra*, p. 190~191; Kośa, VI, p. 149; Kern, *Manual*, p. 54; Przyluski, *Aśoka*, p. 386.
 265) un bon remède, a good counteragent, *kuśala pratipakṣadharmā*, 善對治法
 266) la maladie de la haine, the sickness of hatred, *dveṣavyādhi*, 瞋患病
 267) les défauts corporels, the bodily defects, *kāyadoṣaparīkṣā*, 身過失
 268) la méditation amicale, the meditation on loving-kindness, *maitricittamaniskāra*, 思惟慈心
 269) la maladie de la haine, the sickness of hatred, *dveṣavyādhi*, 瞋患病
 270) la maladie de l'attachement, the sickness of attachment, *rāgavyādhi*, 貪欲病
 271) l'amitié, Loving-kindness, *saṃgrahavastu*, 慈心
 272) les qualités, the qualities, *guṇa*, 功德
 273) la considération des causes et conditions, the contemplation of causes and conditions, *hetupra-tyayasāmagrī*, 因緣觀法
 274) la maladie de la sottise, the sickness of delusion, *mohavyādhi*, 愚癡
 275) une fausse considération, a wrong contemplation, *pūrvamithyāparīkṣā*, 邪觀
 276) la vue fausse, the wrong view, *mithyādrṣṭi*, 邪見

물음: 붓다의 법칙에서 열두 원인·조건²⁷⁹⁾은 심오하다²⁸⁰⁾ 했다. 붓다는 아난다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이 원인·조건 법칙은 심오하여 보기도²⁸¹⁾ 어렵고, 이해하기도²⁸²⁾ 어렵고, 깨닫기도²⁸³⁾ 어렵고, 살피기도²⁸⁴⁾ 어렵거늘, 섬세하고 교묘한 생각을 지닌 사람²⁸⁵⁾이라야 알 수 있을 법하다.”²⁸⁶⁾ 피상적인 것을 알기도 힘든데 어리석은²⁸⁷⁾ 이가 어찌 심오한 인연을 이해한단 말인가? 그런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자가 연기법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가?

답: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소와 염소²⁸⁸⁾처럼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진실한 길을 추구하지만, 그릇된 마음과 살핌으로 온갖 그릇된 견해²⁸⁹⁾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인연을 살피는 것이 좋은 치유법이 된다. 그러나 증오나 음욕²⁹⁰⁾에 빠져 쾌락을 추구하거나 이웃에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이러한 살핌은 해가 될 뿐 좋은 치유법이 되지 못한다. 이들에게는 혐오의 살핌²⁹¹⁾과 자비의 살핌²⁹²⁾이 좋은 치유법이다. 왜 그러한가? 이 두 가지 살핌은 혐오와 갈망²⁹³⁾의 독을 머금은 가시²⁹⁴⁾를 뽑아버리기 때문

277) la sottise, the delusion, *moha*, 愚癡

278) 이 문단에 표현된 견해는 산띠데와(*Śantideva*)의 『大乘集菩薩學論(*Śikṣasamucchaya*)』 chap. XII 로 반복어 전개된다. 『大乘集菩薩學論』 권제십이의 염오에 관한 성찰(*aśubabhāvana*)은 탐욕의 해독제(*pratīpakṣa*)이며(p. 206~212), 자비(*maitrī*)는 증오에 대한 해독제요(p. 212~219), 연기-분석(*pratītya-samutpādadarśana*)은 어리석음(*Mahānuśaya*)의 해독제이다(p. 219~228). tr. Bendall-Rouse, p. 196~215 참조.

279) les douze causes et conditions, the twelve causes and conditions, *hetuprayaya*, 十二因緣

280) profondes, profound, *gambhīra*, 深

281) difficile à voir, difficult to see, *durdrśa*, 難見

282) difficile à comprendre, difficult to understand, *duravabodha*, 難解

283) difficile à découvrir, difficult to, *duranubodha*, 難覺

284) difficile à à pénétrer, difficult to penetrate, *duradhigamana*, 難觀

285) un sage de pensée subtile et adroit, a sage of subtle and skillful mind, *sūkṣma nipuṇapaṇḍitavijñāvedanīya*, 細心巧慧人

286) 붓다가 아난다에게 한 말은 오히려 이렇다: *gambhīra cāyaṃ Ānanda paticcasamuppādo gambhīrāvabhāso ca*(TTr: 아난다여 이 연기는 심오하고도 심오한 암시이다): *Samyutta*, II, p. 92; *Dīgha*, II, p. 55; *Tch'ang a han*, T 1 (no. 13), k. 10, p. 60 b 10; *Jen pen yu cheng*, T 14, p. 242 a; *Tchong a han*, T 16(n° 97), k. 24, p. 578 b; *Ta cen yi*, T 52, p. 844 b. — Mppś는 여래(*Tathāgata*)가 깨달음을 얻은 뒤 보리수 아래에서 설해진 더욱 순화된 표현을 소개한다: *Vinaya*, I, p. 4; *Dīgha*, II, p. 36; *Majjhima*, I, p. 167; *Samyutta*, I, p. 136, etc.: *adhigato kho me ayaṃ dhammo gambhīro duddaso duranubodho santo paṇito atakhāvacaro nipuṇo paṇḍitavedanīyo*(TTr: 내가 성취한 이 법칙은 심오하여,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거나 와 평화롭고 승고하며, 사유의 영역을 넘어선 현묘한 것이라 오직 현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 — 산스끄리트 문장의 경우, 자수는 방대해졌으나 내용의 일관성을 결여한다; *Mahāvastu*, III, p. 314, l. 15; 『*Mahāvastu*』(翻譯名義大集), n° 2914~2927; *Lalitavistara*, p. 392; *Divya*, p. 492(이 빠알리 경전이 원문에 더욱 근접하고 있다): *gambhīro me dharmo gambhīrāvabhāso durdrśo duranubodho tarko tarkāvacaro sūkṣmo nipuṇapaṇḍitavijñāvedanīyaḥ*. TTr. 내가 도달한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지극히 세밀하여 추측의 영역을 초월하여 지혜로운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

287) le sot, the fool, *mūḍha*, 愚癡人

288) des bœufs ou des béliers. ox(*go*) or sheep(*eḍaka*), 牛羊

289) des vues fausses, the wrong views, *mithyādrṣṭi*, 邪見

290) à la haine ou à l'amour, hatred or passion, *dveṣarāgacarita*, 瞋恚婬欲

291) la considération de l'horrible(disgusting), *aśubabhāvana*, 不淨思惟

292) la considération amicale, the contemplation of loving-kindness, *maitrīcchittamanasikāra*, 慈心思惟

293) l'attachement, the attachment, *rāga*, 貪

이다.

또 항상성²⁹⁵이라는 전도된 주제에 집착하는 존재²⁹⁶들이 있는데, 이들은 [존재를 구성하는] 유사한 순간들의 연속성²⁹⁷을 간과한다. 이들에게는 존재의 덧없음²⁹⁸을 살피는 것이 치유적 방도이기는 하나 절대적 방도는 아니다. 왜 그러한가? 모든 존재는 본질상 비어 있기²⁹⁹ 때문이다. 그리하여 계송에 이르길,

덧없음에서 영원성을 보는 것,
이것을 착각이라 하네.
공성 속에는 덧없음조차 없거늘,³⁰⁰
어찌 그 속에서 영원성을 보리요.³⁰¹

물음: 모든 조건적 존재들³⁰²은 덧없다.³⁰³ 이야말로 하나의 절대적 특성이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덧없음이 실재하지 않는다³⁰⁴ 하는가? 조건적인 것들은 그 생겨나고,³⁰⁵ 머물고,³⁰⁶ 사라지는³⁰⁷ 성격 때문에 먼저 생겨나고, 이후 머물다, 결국 소멸하고 만다. 그런데도 왜 덧없

294) l'épine vénéneuse, the poisonous thorn, *viṣakaṇṭaka*, 毒刺

295) l'éternalisme, the eternalism, *nityaviparyāsa*, 常(常住論)

296) des êtres attachés, beings attached, *abhiniviṣṭa*, 顛倒衆生

297) la série de moments semblables, the series of similar moments, *sadrśasamāna*, 相似相續

달리 말하면 이들은 모든 존재의 순간성(*dharmakṣaṇikatva*)을 모른다. 소승 불교에 따르면 존재는 매 순간 사라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매 순간 다시 생겨난다. 그러므로 존재란 유사한 순간들(*sadrśakṣaṇa*)의 相續(*samāna*, *prabhandha*)처럼 발생한다. 說一切有部(毘婆沙派, *Vaibhāṣika*)와 經量部(*Sautrāntika*)가 찰나의 지속 시간과 상속의 진행에 관해 논쟁했다(*Karmasiddhi-prakaraṇa*, Introduction, p. 1~30).

*미셸 푸코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언급한 '연속성 속의 불연속(the discontinuity in the continuity)'도 이와 유사하다.

298) le caractère transitoire, the transitory nature, *anityaparīkṣā*, 無常

299) vides de nature propre, empty of self nature, *svabhāvasūnya*, 自性空

300) 'dans le vide, point de transitoire', 'in emptiness, in the point of the transitory', 空中無常

301) *Madh. kārikā*, XXIII, 13, p. 460; *Tchong louen*, T 1564, k. 4, p. 31 c 10; *Pan jo teng louen che*, T 1566, k. 14, p. 123 a 6:

anitya nityam ity evaṃ grāho viparyayaḥ

nānityaṃ vidyate sūte grāho viparayayaḥ

TTr: 순간적인 것을 영속적이라 함을 착각이라 하지만,

공성 속에는 영속적인 것이 없으니 어찌 이를 착각이라 하리요.

302) tous les Dharma conditionnés, all conditioned(*saṃskṛta*) phenomena, 一切有爲法

303) transitoire, transitory, *anitya*, 無常

304) irréel, unreal, *asatya*, 非實

305) la naissance, the arising, *utpāda*, 生

306) la durée, the duration, *sthiti*, 住

307) la destruction, the cessation, *bhaṅga*, 滅

경전들은 이미 조건적 존재의 특성들(*saṃskṛtadharmalakṣaṇa*)을 이렇게 언급하였다.

(1) 두 특성, 생겨남(*utpāda*)과 사라짐(*vyaya*), *Tsa a han*, T 99(n° 49); (2) 세 특성, 생겨남(*utpāda*)-사라짐(*vyaya*)-머무는 것의 변화(*thitassa* 혹은 *thitānaṃ aññathatta*), 卍알리 니까야: *Samyutta*, III, p. 37; *Ānguttara*, I, p. 152: *katamesam āvuso Ānanda dhammānam, uppādo paññāyati, vayo paññāyati, thitassa aññathattaṃ paññāyati*, (TTr. 아난다여, 명백히 머물고 있음에도 생겨나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들을 위한 것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 (3) 세 번째 특성 머물-

음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답: 조건적 존재에는 이 세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성격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존재의 생겨남, 머뭇, 사라짐이 모든 조건적인 것들의 성격이라면, 이것들의 생겨남에도 이 세 가지 성격이 함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겨남은 조건적인 것의 한 성격이기에. 또 이 세 가지 성격들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모든 현상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하다. 머뭇과 사라짐도 이와 같으리라. 생겨남, 머뭇, 사라짐은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생겨남-머뭇-사라짐이라는 각각의 성격을 지닐 수 없으므로 이들은 조건적인 것의 특성³⁰⁸)이라 불릴 수 없다.³⁰⁹) 왜 그러한가? 조건적 존재들의 성격들은 원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의 덧없음이라는 특성은 절대적 이치가 아니다.

게다가 실재하는 특성³¹⁰)이 덧없는³¹¹) 것이라면, 업보³¹²)마저도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덧없음은 태어나서 사라짐을 일컫기 때문이다. 씨가 썩으면³¹³) [60 c] 열매³¹⁴)를 맺지 못하듯, 업을 짓지³¹⁵) 않는데 어떻게 과보³¹⁶)가 있을까? 그러므로 모든 훌륭한 교의³¹⁷)는 응보

변함(住異, *thitassa aññathatta*)은 이에 상응하는 산스크리트 아가마(Sanskrit Āgama)에서 'sthiti 住-anyathātva 異'로 수정된다(*Documents sanskrits de la seconde collection*. A. Stein, JRAS, 1913, p. 573; *Madh. vṛtti*, p. 145): *trīṇīmāni bhikṣavaḥ saṃskṛtasya saṃskṛtalakṣaṇāni saṃskṛtasya bhikṣava utpādaḥ prajhāyate vyayaḥ prajñāyate sthityanyathāvaṃ prajñāyate*. TTr. 비구들이여 조건적 존재에는 세 특성이 있다. 이 셋은 무엇인가? 오, 비구들이여 조건적 존재로부터 생겨남[도] 식별될 수 있고, 사라짐[도] 식별되고, 더불어 머뭇-변화 역시 식별될 수 있다. - (4) 아비다르마는 세 특성만 인정한다: *Kathāvatthu*, I, p. 61; *Visuddhimagga*, p. 431, 473; Aung, *Compendium*, p. 25. - 일부 학자들은 '지속 혹은 머뭇'까지도 배제한다(cf. Aung, *Points of Controversy*, p. 374~375).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은 네 특성을 언급한다: 생겨남(utpāda), 늙음(jarā), 머뭇(sthiti), 달라짐(anyathātva): P'i p'o cha, T 1545, k. 38, p. 198 c 9; Kośha, II, p. 222.

조건적 존재의 특성들은 찰나(*kṣhaṇa*)에 관한, 현상의 항시 지속에 관한 정의에 개입한다. Lav., *Notes sur le moment des Vaiibhāsika et des Sautrāntika*, MCB, V, 1937, p. 134~158 연구 참조. 실재하는 특성들로서의 이러한 특성들을 경량부(Sautrāntikas)는 거부하였다(*Kośa*, II, p. 226~228), *Madhyamikas*(*Madh. vṛtti*, chap. VII: *Saṃskṛtapariṅkā*, p. 145~179), Vijñānavādins(*Siddhi*, p. 64~68). Mppś의 이들에 대한 부정은 *Madh. vṛtti*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308) les caractères du Dharma conditionné, the marks of the conditioned, *saṃskṛtalakṣaṇa*, 有爲法相

309) 논쟁은 *Madh. kārikā*, VIII, 2, p. 146에서 재현된다:

*utpādāyās trayo vyastā nālaṃ lakṣanakarmaṇi
saṃskṛtasya samastāḥ syur ekatra katham ekadā*

Tr. 생겨남 등의 세 특성은, 서로 분리 획득되어, 조건적인 것의 특성들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한다. 동시에 함께 획득된 특성들이 어찌 하나의 동일한 범주 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 주석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머뭇과 동시에 태어남과 사라짐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머뭇은 생겨남과 사라짐을 결여한 어떤 것에 속한다. 그러나 생겨남과 사라짐을 결여한 범주는 없다. 결과적으로 머뭇은 허공에 핀 꽃 같은 비존재적 범주에 적용될 수 없다... 다른 한 편, 세 특성이 동일한 하나의 범주 내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이들은 욕망과 체념 혹은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합리적인 주장을 펼 수 있으랴? 동일한 하나의 범주가 그것이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 지속·소멸해버린다고 말이다.

310) l'entité réelle, the real entity, *bhūtasvabhāva*, 實性

311) transitoire, transitory, *anitya*, 無常

312) la rétribution des actes, the retribution of actions, *karmavipāka*, 業報

313) un germe pourri, a rotten seed, *pūtika bīja*, 腐種

314) un fruit, a fruit, *phala*, 果

를 인정한다.³¹⁸⁾ 선현³¹⁹⁾이 믿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 존재 모두가 덧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수많은 이유에서, 존재 모두가 덧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소위 모든 존재들의 덧없는 특성은] 고통스러운 특성³²⁰⁾, 무아적 특성³²¹⁾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³²²⁾ 이러한 성격을 치유적 관점이라 이른다.

(절대적 관점)

d. 절대적 관점.³²³⁾ 모든 존재의 본질,³²⁴⁾ 논리,³²⁵⁾ 존재 및 비(非)존재(Adharma) 모두는 하나씩 나뉘고,³²⁶⁾ 깨져,³²⁷⁾ 흩어질³²⁸⁾ 수 있으나, 모든 부처, 프라트예까붓다,³²⁹⁾ 아르하트의 경지³³⁰⁾에 이른 진정한 법칙³³¹⁾은 부서지거나 흩어질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점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는 모두 통한다.

물음: 어떻게 통한다는 말인가?

답: 통한다는 것은 전혀 결점이 없고,³³²⁾ 바뀔 수 없고,³³³⁾ 이길 수 없음³³⁴⁾을 의미한다.³³⁵⁾

315) l'acte, the action, *karman*, 行業

316) la rétribution, the retribution, *vipāka*, 果報

317) la bonne doctrine, the good doctrine, *āryadharmā*, 賢聖法 il n'est pas de péché que ne soit disposé à commettre l'homme qui ne croit pas à la survie de l'au-delà.

318) 내세와 업보에 대한 믿음은 모든 불자를 위한 도덕의 정초인데, “왜냐하면 내세의 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지를 죄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악의 부정 또한 매우 그릇된 견해(*mithyādrsti*)이다. *Kośa*, IV, p. 36, 137, 167). 반면 붓다는 불을 숭배하는 결발(結髮, *jaṭila*) 수행자들의 경우, 수련 기간도 면제하고 제자로 거두었는데 “이들이 업을 믿기 때문이었다.”(*Vinaya*, I, p. 71).

319) le bon savoir, the good knowledge, *kuśhalajñāna*, 善智

320) leur caractère douloureux, the nature of suffering(*duḥkhe*, 苦)

321) impersonnel, non-self, *anatmaka*, 無我

322) 모든 존재는 변하고(*anicca*, 無常), 무너지고(*vayadhamma*, 壞), 비아이며(*anattā*, 非我), 고통스럽다(*dukkha*, 苦). *Samyutta*, III, p. 44 참조. 이에 상응하는 산스크리트 구절 JRAS, 1913, p. 573; 한역 구절 *Tsa a han*, T 99(n° 84), k. 3, p. 21 c): *rūpaṃ bhikkhave aniccam. y ad aniccam taṃ dukkhaṃ, yaṃ dukkhaṃ tad anattā, yad anattā tam netaṃ marna neso ham asmi na me so attāti. evam etaṃ yathābhūtam sammappaññāya daṭṭhabbam. evam etaṃ sammappanūāya passato cittaṃ virajjati vimuccati anupādāya āsaveki.*

(TTr: 빅슈여, 물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 실재하지 않는 것이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관찰한다. 이에 관해 올바른 지혜로 관찰하면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에서 사라져서 해탈한다. 한역: 告諸比丘. 色是無常. 無常則苦. 苦則非我. 非我者. 彼一切非我不異. 我不相在. 如實知. 是名正觀. 受想行識. 亦復如是. 多聞聖弟子. 於此五受陰. 非我非我所. 觀察如是. 觀察於諸世間. 都無所取. 画像無所取故無所著. 無所著故自覺涅槃.)

- 이 외의 출전 Rhys Davids-Stede, *saṅkhāra* 끝부분 참조.

323) le point de vue absolu, the absolute point of view, *pāramāthikasaddhānta*, 第一義悉檀

324) toutes les essences, every essence, *dharmatā*, 一切法性

325) toutes les catégories du discours, every category of speech, *upadeśābhidhāna*, 一切論議語言

326) divisés, subdivided, *vibhakta*, 分別

327) déchirés, broken into pieces, *bhinna*, 破

328) éparpillés, scattered, *prakīrṇa*, 散

329) les Pratyekabuddha, the pratyekabuddhas, 辟支佛

330) le domaine, the domain, *gocara*, 所

331) le Dharma véritable, the true Dharma, *bhūtaḍḍharma*, 眞實法

332) l'absence de tout défaut, the absence of any defect, *sarvadoṣaviśamya*, 離一切過失

333) l'inaltérabilité, unchangeability, *aparīṇāmatva*, 不可變易

왜 그러한가? 만일 절대적 관점을 제외하면, 여타 법칙,³³⁶⁾ 여타 관점이 없어지기에.³³⁷⁾ 『중의경』³³⁸⁾ 계송에 이르길,

334) l'invincibilité, the invincibility, *ajeyatva*, 不可勝

335) 불교 문헌에서는 항상 절대를 지칭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Lav. in Siddhi, pp. 748~750 에 인용된 목록을 나열해 본다.

1) Ta pan jo lo mi to king T 220, k. 360, p. 853 c 10: tathatā(真如), dharmatā(法性), avitathatā(不虛妄性), avikāratathatā(不變異性), samatā(平等性), niyāmatā(決定性), dharmaniyama(法定), dharmasthiti(法住), ākāśadhātu(虛空界), bhūtakoṭi(實際), acintyadhātu(不思議界). 한역 일반과 대조: 亦應於法界, 法性, 不虛妄性, 不變異性, 平等性, 離生性, 法定, 法住, 實際, 虛空界, 不思議界

2) Pañjikā, p. 421: bodhir buddhatvam ekānekasvabhāvaiviktam anutpannam aniruddham anucchedam aśāsvataṃ sarvaprapañcavinirmuktam ākāśapratisamaṃ dharmakāyākhyam paramārthatattvaṃ ucyate. etad eva ca prajñāpāramitāēśūnya-tātathatābhūtakoṭidharmadhātuvādisabdena saṃvṛtim upādāyābhidkiyate. TTr. 붓다 혹은 붓다의 경지란 절대적 실재, 유일하건 여럿이건 그 어떤 본질도 빈 상태,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고, 소멸함도 영원함도 없으며, 그 어떤 인지가능한 우연에서 벗어나, 에테르 같은 것, 법신이라 이른다. 실천적 진실 관점에서 뿌라즈냐빠라미따라고 하는, 비어 있음, 본질, 실제적 정점, 존재 요소 등이다.

3) 장항한 동의어 목록을 보이는 Vijñānavādin sūtras. Cf. Saṃdhinirmocana(『解深密經』), p. 28: paramārtha, tathatā, dharmatā, dharmadhmatu, bhūtakoṭi, vijñaptimātra, viśuddhālambana, svabhāvaviḥsvabhāvatā, dharmanairātmya, śūnyatā. — Lañkāvatāra, p. 192-193: anirodha, anutpāda, śūnyatā, tathatā, satyatā, bhūtakoṭi, dharmadhātu, nirvāṇa, nitya, samatā, advaya.

4) 이 모든 어휘가 반복되고 정의된 유식파 논서들(Vijñānavādin treatises). *Madhyāntavibhaṅga*, p. 49~51: tathatā bhūakoṭiś cānimittaṃ paramārthatā, dharmadhātuś ca paryāyāḥ śūnyatāyāḥ samāsataḥ. — *Samgraha*, p. 121: prakṛtivyavasāna, tathatā, śūnyatā, bhūtakoṭi, animitta, paramārtha, dharmadhātu; — *Tsa tsi louen*, T 1606, k. 2, p. 702 b: tathatā, nairātmya, śūnyatā, ānimitta, bhūtakoṭi, paramārtha, dharmadhātu. — *Fo ti king louen*, T 1530, k. 7, p. 323 a 4 tathatā, dharmadhātu, tattva와 bhāva, śūnyatā 및 abhāva, bhūtakoṭi, paramārtha.

336) les enseignements, the teachings, *upadeśa*, 論議

337) les points de vue, the points of view, *suddhānta*, 悉檀

338) Arthavargiīya sūtra(『阿他婆耆經』), Tchong yi king(『衆義經』)

산스크리트 *Arthavargiyanī sūtrāni*, 빠알리 l'*Aṭṭhakavagga*로 표기한 이 경들은 최초의 불교 경전 목록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빠알리 *Aṭṭhakavagga*(義品) 《Section des Huit, Section of the Eight》은 수따니빠따(Suttanipāta) 제사장을 구성하는 열여섯 편의 시 모음이다. *Khuddhakanikāya*의 열다섯 번째 작품이며, *Suttapiṭaka*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모음집이다(Winternitz, *Literature*, II, p. 92~98; Law, *Pāli Literature*, I, p. 232~260 참조). *Aṭṭhakavaggika* 혹은 *Aṭṭhakavaggikāni*라는 제목으로 *Vinaya*, I, p. 196; *Samyutta*, III, 12; *Udāna*, p. 59에 인용되었다.

산스크리트 본으로는 *Arthavarg* 《Section du Sens, Section on Meaning》(『佛說義足經』) 혹은 *Arthavargiyanī sūtrāni* 《Sutra de la Section du Sens》(『利衆經』)가 있다. 그 단편이 투르케스탄(Turkestan)에서 발견되었다(cf. M. Anesaki, JPTS, 1906~1907, p. 50 seq.; R. Hoernle, JRAS, 1916, p. 709 seq.; 1917, p. 134). 이 『利衆經』은 *Dīvyāvādāna*, p. 20, 35; *Bodh. bhūmi*, p. 48에 인용되었다. 그리고 *Kośavyākhyā*, p. 33에 의하면 *Kṣudrakāgama*(*arthavargiyanī sūtrāni Kṣudrake paṭhyante*)의 일부를 이른다. 제명은 *Arthavargiīya sūtra*라는 제목으로, 티베트어 제명은 *Don gyī tshoms kyī mdo*이며, *Dulva*에 인용되었다.

Tche k'ien의 한역, 223과 253 사이에, Yi tsou king(123과 7; 157; 120과 7)이라는 제명으로 번역되었으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의미의 발(Feet)' 경이다. T 198, IV, p. 174~188.

이 저술은 한역 프리빠따까에 자주 인용되나 불행히도 꽤나 상이한 이름으로 인용되어 동

각각 자신의 그릇된 견해³³⁹)와
헛된 논의³⁴⁰)에 근거하여, 논쟁³⁴¹)을 야기하니
이것이 그릇됨을 아는 것이야말로.
앞에 관한 올바른 견해.

다른 이의 법칙³⁴²)을 거부하는 것
이를 어리석음³⁴³)이라 하니
논의를 일삼는 자
참으로 어리석어라.

[61 a]

자신의 견해에 의거하여
헛된 논의를 일으키고도
순수한 앎을 이룬다면
순수한 앎을 이루지 못할 자 어디 있겠나.³⁴⁴)

일한 경전으로 종종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여기 몇 가지 출전을 밝힌다:

1° 번역명:

A t'o p'o king(Arthavargīya sūtra, 『義足經』) in Mppś, T 1509, k. 1, p. 63 c. — A t'o po k'i sieou tou lou(Arthavargīya sūtra) in Vinaya des Sarvāstivādin, T 1435, k. 24, p. 174 b.

2° 번역명:

Yi p'in(Section du Sens 혹은 Arthavarga, 『義品』), Saṃyuktāgama, T 99 (n° 551), k. 20, p. 144 b 와 c: Vibhāṣā, T 1545, k. 34, p. 176 a; Kośh의 현장 번역, T 1558, k. 1, p. 3 b; Yogacaryābhūmiśāstra, T 1579, k. 36, p. 489 a.

Yi pou(Section du Sens 혹은 Arthavarga), Paramārtha 번역, Kośa, T 1559, k. 1, p. 164 a.

Tchong yi king(Sūtra de tous les Sens, Sūtra of all Meanings)(『衆義經』) in Mppś, T 1509, k. 1, p. 60 c.

Tchong yi p'in(Section de tous les Sens, Section of all meanings) in Vibhāṣā, T 1545, k. 4, p. 17a; k. 137, p. 706 a.

Chouo yi(Exposé du Sens, Explanation of Meaning) in P'i ni mou king, T 1463, k. 3, p. 818 a.

Che lieou yi p'in king(Sūtra des Seize section du Sens, Sūtra of the Sixteen Sections of Meaning) in Vinaya des Mahīśāsaka, T 1421, k. 21, p. 144 b.

Pa po k'i king(Sūtra des Huit Sections, Sūtra of the Eight Sections 혹은 Aṣṭavargīyasūtra) in Vinaya des Mahāsāṃghika, T 1425, k. 23, p. 416 a.

Che lieou yi kiu(Sūtra des Seize Phrases du Sens, Sūtra of the Sixteen Phrases of Meaning) in Vinaya des Dharmaguptaka, T 1428, k. 39, p. 845 c.

339) des vüee, the views, *dr̥ṣṭi*, 見

340) de vains bavardage, futile nonsense, *prapañca*, 戲論

341) des querelles, the quarrels, *vivāda*, 諍競

342) le système d'autrui, the system of another, *paradharma*, 他法

343) un sot, a fool, *bāla*, 愚癡人

344) 내[라모트] 생각에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진실은 그 어떤 제도나 학문적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2° 논사들 모두가 어리석다.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이 상대로부터 바보 취급당한다. 3° 대부분 자신들이 진실을 발견하였다 주장한다. 그런

이 세 계송에서 붓다는 절대적 관점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계송] - 소위 세상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에, 그릇된 체계(법칙)에, 그릇된 논의에 근거하고 있고, 그래서 논쟁을 야기한다. 그릇된 논의는 논쟁의 시원이며, 그릇된 논의는 그릇된 견해를 낳는다. 계송에 이르길,

체계들을 따름으로써 논쟁이 야기되는 법.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것이 없다면 무엇을 다투겠는가?

데 그들의 말을 믿는다면 세상에는 완전무결한 체계들만 있어야 한다.

이 세 계송은 대략 *Aṭṭhakavagga*의 열두 번째 경 *Cūlavijūhasutta*의 다섯 연과 상응한다 (*Suttanipāta*, v. 878~882; tr. Fausböll, p. 167~168; tr. R. Chalmers, *Buddha's Teachings*, Cambridge M, 1932, p. 211). 빠알리 텍스트는 여기에 인용한 Mppś 그리고 한역(*Tche k'ien* in T 198, k. 2, p. 182 a~b)의 인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 *Sakaṃ sakaṃ ditthiparibbasānā
viggayha nānā kusalā vadanti:
yo evaṃ jānāti, sa vedī dhammaṃ:
idaṃ paṭikkosaṃ akevalī so.*

2. *Evam pi viggayha vivādiyanti,
'bālo paro akusalo' ti cāhu.
Sacco nu vādo katamo imesam?
Sabb'eva hīme kusalā vadānā.*

3. *Parassa ce dhammam anānujānaṃ
bālomako hoiī nihīnapañño,
sabb'eva bālā sunihīnapaññā
sabb' ev' ime ditthiparibbasānā*

4. *Sandiṭṭhiyā ce pana vivadātā
saṃsuddhapaññā kusalā mutimā
na tesam hoci parihīnapañño:
- diṭṭhi hi tesam pi tathā samattā.*

5. *Na vāham etam 'tathivan' ti brūmi
yam āhu bālā mithu aññamaññam:
sakaṃ sakaṃ ditthiṃ akāmsu saccaṃ:
- tasmā hi 'bālo' ti paraṃ dahanti.*

Tr. 제자. - 1. 개인적 관점에 빠져 자신들끼리 서로 다투는 많은 [스승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영리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며 [말한다]: “이것을 이해한 자들은 [진실한] 교의를 이해한 것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불완전하다.” - 2. 이렇게 다투며 그들은 따지고 말한다: “나의 상대는 어리석고 무지하다.” 그런데 이 모든 교의들 가운데 어느 교의가 진실한 것일까? 이 [스승들] 모두가 [오로지] 자신만이 현명하다고 하니 말이다.

붓다. - 3. 상대의 교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는 하찮은 지식의 어리석고 열등한 존재다. 따라서 이 [스승들] 모두 하찮은 지식의 어리석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모두 자신의 개인적 견해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 4. 혹 이들이 자신만의 해안에 의해 진정 스스로 정확되었다면, 순수한 지혜를 지녔고, 현명하고, 기지로 충만한 자들이라면, 이 가운데 하찮은 지식의 소유자는 없다. 이들의 해안 역시 완벽하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서로 주고 받는 말들을 ‘실재’라 이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해안을 진실로 삼는다. 그들이 자신의 상대를 바보로 취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견해들’을 따르거나 거부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갈라지나니.

이렇게 알고 있는 요기³⁴⁵)는 어떠한 체계³⁴⁶)도 수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무의미³⁴⁷)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어느 것도 보지 않는다.³⁴⁸) 그 어떤 논쟁³⁴⁹)에도 끼어들지 않아 붓다의 법칙의 감로³⁵⁰) 맛을 알게 된다. 만약 이와 달리 행하면 법칙을 비방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송). - 다른 이의 체계들³⁵¹)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모르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무지하다. 그러한 모든 논사들³⁵²) 역시 무지한 자들이리라. 왜 그러한가? 각기 별도로 입장을 취해 모두가 자신만의 체계를 주장하며 주위 사람들의 체계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법이 절대적 의미를 지니며 순수한 것³⁵³)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이며 비루한 것으로 비방 받기 마련이다.³⁵⁴) 이것은 예를 들어 세간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³⁵⁵)과 같은 것으로, 법을 집행하는 자는 이를 벌미로 형벌³⁵⁶)을 내리거나, 사형을 집행³⁵⁷) 하거나, 갖가지 비루한 짓³⁵⁸)을 행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절대 순수하다고 여긴다. 이에 반해 다른 이들, 출가자³⁵⁹)와 성인³⁶⁰)은 이들을 비루

345) Yogin, 行者

346) le système, the systeme, *dharma*, 法

347) le bavardage, the nonsense, *prapañca*, 戲論

348) 붓다와 그 제자들의 실재적이기보다 가장된 논쟁에 대한 혐오는 잘 알려져 있다:

Suttanipāta, v. 897: *yā kāc' imā sammutiyo puthujjā, sabbā vā etā na upeti vidvā anūpayo so upayaṃ kim eyya, diṭṭhe suie khantim akubbamāno*. - Sanskrit text in *Bodh. bhūmi*, p.48-49: *yāḥ kāścāna saṃvṛtayo. hi loke, sarvā hi tā munir nopaiti. anupago hy asau kenopādatīta, drṣṭāsrute kāntim asaṃorakurvan* - Tr. 현자(Muni)는 향간에 유통하는 견해들을 취하지 않는다. 그는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고 보는 것에 매혹되지 않는 자가 어찌 굴복하리오?

Samyutta, III, p. 138: *nāham bhikkhave lokena vivadāmi loko ca mayā vivadati. na bhikkhave dhammavādī kenaci lokasmiṃ vivadati. yam bhikkhave natthi sammataṃ loke paṇḍitānam aham pi tant natthi ti vadāmi. yam bhikkhave atthi sammataṃ loke paṇḍitānam aham pi tam atthiiti vadāmi*. - Sanskrit text in *Madh. vṛtti*, p. 370: *loko mayā sārḍhaṃ vivadati nāham lokena sārḍhaṃ vivadāmi. yal loke 'sti saṃmataṃ tan mamāpy asti saṃmataṃ. yal loke nāsti saṃmataṃ mamāpi tan nāsti saṃmātam*. - Tr. 나의 논쟁 상대는 세상이지, 나의 논쟁 대상은 내가 아니다. 세상이 받아들인 것은 나도 받아들이고 세상이 거부한 것은 나도 거부한다. - 한역 *Tsa a han*, T 99(n° 37), k. 2, p. 8 b.

Madh. vṛtti, p. 57: 절대, 그것은 성현(*āryā*)들의 침묵이다(*paramārtha hy āryānām tūṣṇimbhāvaḥ*).

Samdhinirmocana, II, par. 4: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것, 독립 영역, 말로 할 수 없는 것, 세속적 경험 파괴, 이러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 본성이 모든 사념을 뛰어넘는다.

349) une discussion, a discussion, *vivāda*, 諍競

350) la saveur d'ambrosie, the taste of the ambrosia, *amṛitarasa*, 甘露味

351) les systèmes d'autrui, the systems of others, *paradharmā*, 他法

352) les maîtres, the masters, *upadeśin*, 論議人

353) absolument pur, absolutely pure, *paramārthaśuddha*, 第一義淨

354) 극형에 관해서는 Jolly, *Recht und Sitte*, p. 129~131 참조.

355) les lois pénales du monde, the mundane penal laws, *daṇḍadharmā*, 世間治法

356) les châtiments, the punishments, *daṇḍa*, 刑罰

357) les exécutions executions, *vadha*, 殺戮

358) les impuretés, the impurities, *aśubha*, 罰不淨

359) Pravrajita, 出家

하게 여긴다. 외도³⁶¹), 출가자의 규율에 따르면 다섯 불꽃³⁶²) 사이에 한 발로 서 있거나, 머리를 뽑는 고행을 한다.³⁶³) - 니건자³⁶⁴)가 합리적이라 여기는 것³⁶⁵)을 다른 외도들은 광기라고 비난한다. 외도³⁶⁶), 출가³⁶⁷), 재가³⁶⁸), 바라문³⁶⁹) 등의 다양한 체계에서는 이웃이 거짓이라 비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불법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독자부³⁷⁰) 빅슈들이 있다. “사대³⁷¹)가 화합하여 ‘눈’이라는 존재³⁷²)가 있듯이, 다섯 구성요소³⁷³)가 모여 ‘개아’라는 존재³⁷⁴)가 있다.”³⁷⁵) 독자아비담³⁷⁶)에 이르길, “다섯 구성요소는 ‘개아’의 존재를 떠나서는 없으며, ‘개아’ 존재는 다섯 구성요소를 떠나서는 없다. 다섯 구성요소가 곧 ‘개아’의 존재이며, 다섯 구성요소를 떠나 ‘개아’의 존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개아’의 존재는 제오범주로서 ‘법의 바구니’(이하 법장)³⁷⁷) 안에 있어 표현할 수 없는 존재³⁷⁸)이다.”³⁷⁹) 설일체유부³⁸⁰)의 도인들은

360) Ārya, 聖人

361) Tirthikas, 外道

362) cinq feux, five fires, *pañca-tapas*, 五熱

363) 아르야데와(Āryadeva)의 *Po louen*, T 1569, k. 1, p.168 b와 비교할 것. - 몇몇 경전들은 우리에게 붓다 시대 고행주의자들의 수련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Majjhima*(n° 12), I, p. 68~83; (n° 14), I, p. 91~95. Lav. *Histoire*, I, p. 290~314는 힌두교 고행주의, 탁발, 수도원 생활, 붓다 시절의 종파를 설명하는 데 한 장(章)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

364) *Ni k'ien tseu*, Nirgranthaputra. 尼乾子. ‘속박을 여윈 자’, 자이나교의 교주로서 붓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 본명은 와르다마나(Vardhamāna)이며, 득도 후 마하위라(Mahāvīra) 혹은 지나(Jina, 승자)라 불렸다. 나이 삼십에 출가, 십이 년 간 고행 후 사십이 세에 깨달고 지나가 되었다.

365) 자이나 철학의 ‘영적 단자(monades spirituelles, jīva)’에 관해서는 Schubring, *Die Lehre der Jainus*, p. 100~131; H. von Glasenapp, *Entwicklungsstufen*, p. 98~100 참조.

366) Tirthikas, 外道

367) Pravrajita, 出家

368) Śvetāmbaras, 白衣

369) Brāhmanas, 婆羅門

370) Tou tseu, Vatsiputriya, 犢子. 상좌부에서 분파된 스무 부파 가운데 하나로 일종의 영혼의 존재를 가정한다. 나가르주나는 사리불아비다르마(舍利弗阿毘曇論)를 犢子部の 소의 논서로 상정한다.

371) quatre grands éléments, four great elements, *caturmahābhūtasamyoga*, 四大: 지대(地大, pṛthivi-dhātu), 수대(水大, ab-dhātu), 화대(火大, tejo-dhātu), 풍대(風大, vāyu-dhātu).

372) dharma d'«œil», dharma eye, *caḥsus*, 眼法

373) cinq agrégats, five aggregates, *pañcaskandhasamyoga*, 五蘊

374) un Dharma 'individuel', a dharma 'individual', *dharma pudgala*, 人法

375) 불교의 여러 부파(Lav., *Nirvāṇa*, p. 34)가 지지한 개아성(personalité) 혹은 뿌드갈라와다(Pudgalavāda)는 일반적으로 犢子部(Vātsīputriya) 및 正量部(Sāṃmitīya)의 논지이다(*Kośavyākhyā*, p. 699).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일한 텍스트는 *San mi ti pou louen*, T 1649로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다(Przyluski, *Concile*, p. 73; Lav., *Introduction du Kośa*, p. LX~LXII 참조). 개아성은 특히 그것을 논박하는 텍스트들과 불교 종파에 관한 일반 연구에 의해 인식되어 왔다: Vasumitra, p. 53~57; Bhavya in Walleiser, *Sekten*, p. 87; *Katthāvatthu*, p. 1(tr. Aung, *Points of Controversy*, p. 8~14); L. de La Vallée Poussin, *La controverse du temps at du Pudgala dans le Vijñānakmāya*, EA, p.358~376; *Kośa*, chap. IX, p. 227~302(이후의 논의들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자료); *Sūtrālamkāra*, ed Lévi, p. 154~160(tr. Lévi, p. 259~265); *Bodhicaryāvatāra*, IX, v. 73, 그리고 *Pannjikā*, p.471~484; *Madh. vṛitti*, p. 340~481; *Madh. avatāra*, p. 233~287(tr. Lav., *Muséon*, 1911, p. 282~328); *Tattvasaṃgraha*, I, p. 125~130 (tr. S. Schayer, *Karmalaśīlas Kritik des Pudgalavāda*, RO, VIII, 1932, p. 68~93; tr. Jha, I, p. 217~226; *Siddhi*, p. 14~15.

376) Tou tseu a pi t'an, *Vātsīputriyābhīdharma*, 犢子阿毘曇

377) la corbeille des textes, the piṭaka, *dharmapiṭaka*, 法藏

378) ineffable, *avaktavya*, 不可說

379) Mppś를 신뢰한다면(k. 2, p. 70 a), 이와 관련하여 독자부가 유난히 숭배하는舍利弗阿毘曇(*Śāriputrābhīdharma*, T 1548)을 제외하고 독자아비담은 소실되었다. - 하지만 여기 인용된 구절만큼은 *San mi ti pou louen*, T 1649, k. 1, p. 465 b 29에서 발견된다. 구성요소들(les *Skandha*)과 아트만(l'Ātman)이 다르다거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아트만 역시 말로 표현 불가능한

말하길, “어떤 식으로도, 언제라도, 어느 법문³⁸¹⁾을 통해서도 개아라는 것은 토끼의 뿔³⁸²⁾이나, 거북의 털³⁸³⁾처럼 세상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열여덟 요소³⁸⁴⁾, 열두 의식 기반,³⁸⁵⁾ 다섯 구성요소는 실재하지만 이들 가운데 ‘개아’의 존재라는 것은 없다.”³⁸⁶⁾ 이와 대조적으로 불법 내의 방광도인³⁸⁷⁾들은 말하길, “모든 존재는 생겨나지도 않았고,³⁸⁸⁾ 소멸되지도 않았고,³⁸⁹⁾ 비어 있고,³⁹⁰⁾ 없음이라.³⁹¹⁾ 이들은 [61 b]토끼 뿔이나 거북 털 같은 것이다.”³⁹²⁾ 논사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법칙³⁹³⁾을 칭송하고, 남의 것을 거부하며 말하길, “이것은 진실하나 나머지는 모

(*avaktavya*) 것이다 - *Kośa*, IX, p. 232: 독자부는 요소들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개아를 수용한다: *Ibid.*, p. 237. 독자부는 요소들과의 관계 즉 요소들과의 일치 혹은 불일치에 관해 개아의 표현 불가능성을 주장한다...독자부는 인지 가능한 현상의 다섯 범주를 구분한다 (*pañcavidham jñeyam*): (1~3) 조건적(*samskrta*, 有爲) 현상 혹은 다른 말로 과거 현상, 미래 현상, 현재 현상 (4) 비조건적(*asamskrta*, 無爲) 현상, 그리고 (5) 표현 불가능한 것 혹은 개아. - *Madh. avatāra*, p. 268: 어떤 이들은 ‘다섯 구성요소’와 일치 혹은 불일치 여부, 영속 혹은 불영속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 불가능한 개아의 실재를 주장한다. 개아는 여섯 인식(*six vijñāna*)에 의해 인지된다. 그러므로 개아는 자아라는 관념의 대상이다.

380) Chouo yi ts'ie yeou, 說一切有

설일체유부의 교의에서 자아는 요소들의 연속체(相續, *saṃtāna*, *saṃtati*)에 지나지 않으며 그 안에 자아는 없다. 증거, 명증성의 증거, 추론의 증거 그 어느 것도 이 세 요소로부터 독립된 존재를 확립하지 못한다. 일상어로 영혼, 자아, 삶의 근원,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단지 공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 요소들은 연기(*pratītyasamutpāda*)에 속하는 인과 관계 속에 있다. *Digha*, III, p. 105(*viññānasota*), *Samyutta*, III, p. 143(*saṃtāna*)처럼 경전에서 윤곽이 드러난 이러한 해결 방안은 자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무아(*nairātmya*)를 설하는 모든 소승 학파에 의해 채택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빠알리 언어학파와 그들의 바왕가(*Bhavaṅga*) 교의와 관련한 발제와 몇몇 출전을 『攝大乘論(*Samgraha*)』, p. 8*~10*에서 찾을 수 있다. 說一切有部-毘婆沙師의 ‘이어짐(*série*)’과 경량부(*Sautrāntikas*)의 ‘이어짐’은 *Kośa*, II, p. 185, 우수한 개설서 *Lav., Morale*, p. 196~200 및 *Karmasiddhiprakaraṇa, Intro.*, p. 15, p. 23~27 참조.

381) aucun texte, any text, *dharmaparyāya*, 法門

382) la corne du lièvre, horns of a hare, *śaśaviṣaṇa*, 免角

383) le poil de la tortue the hairs of a tortoise, *kūrmaroman*, 龜毛

384) les dix-huit éléments, the eighteen elements(*dhātu*), 十八界

385) les douze bases de la connaissance, the twelve bases of consciousness, *āyatana*, 十二入

386) ne se trouve pas, non-existent, *akimcana*, 無

Kośa, IX, p. 247 참조 : 바가와뜨가 어느 브라흐만에게 말했다: “내가 만일 일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식의 열두 영역(*āyatana*)과 관련된 것이다.” 개아는 이 열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Kośa*에서 비유되고. 또한 ‘모든 것=열두 영역(*sarvam=āyatana*)’이라고 규정한 경은 *Tsa a han*, T 99 (n°. 319), k. 13, p. 91 a 이다: 일체 즉 열두 영역, 입, 눈, 등. - *Samyutta*, IV, p. 15, 일체(*sabbam*)는 눈부터 다르마들에 이르기까지 열두 영역의 열거로 규정된다; *Mahāniddeśa*, p. 133: *sabbam vuccati dvādasāyatanāni*; *Kośa*, V, p. 64 TTr: 일체는 열두 영역이라 규정된다.

387) les adeptes du Fang kouang, the adepts of the Fang kouang, *Vaipulya*, 方廣道人. 대승의 空을 無로 오해한 불교도를 풍자하는 표현.

388) non-nés, unborn, *anutpanna*, 不生

389) non-détruits, non-destroyed, *aniruddha*, 不滅

390) vides, empty, *śūnya*, 空

391) inexistant, non-existent, *akimcana*, 無所有

이러한 유형의 허무주의적 진술은 대승 경전에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Samdhinirmocana*, VII, v. 1: *niḥsvabhāvāḥ sarvadharmā anutpannāḥ sarvadharmā aniruddhā ādiśāntāḥ prakṛtiparinirvṛtāḥ*. - Tr: 일체 불법은 자성을 지니지 않으며, 생겨남도, 소멸도 없으며, 시작부터 적정이며 본질적으로 니르바나이다. - 동일한 문장이 *Ratnameghasūtra*에 있다(*Madh. vṛtti*, p. 225, *Subhāṣitasamgraha*, Muséon, IV, 1903, p. 394; *Sūtrālamkāra*, ed. Lévi, XI, v. 51, p. 67; *Samgraha*, p. 128; *Gauḍapādakmarikā*, IV, 93).

392) 토끼의 뿔 (*śaśaviṣeṇa*) 혹은 거북의 털(*kūrmaroman*)—허공에 핀 꽃(*khapuṣpa*) 혹은 석녀의 아들(*vandhyāputra*)—은 불가능성을 지칭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비유이다. *Jātaka*, III, p. 477; *Laṅkāvatāra*, p. 41, 51, 52, 53, 61, 104, 188, 291, 341; *Kośa*, IX, p. 263 참조.

두 그릇된 것이다.”³⁹⁴⁾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법칙만 받아들이고, 자신들만의 법칙만 존경하고³⁹⁵⁾, 수행하고,³⁹⁶⁾ 남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으면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계승] 만약 [자신들만의 법칙]을 지닌다는 이 유일한 사실에 의거하여 이 논사들이 순수하며 절대선에 이르렀다면, 불순한 논사들은 하나도 없으리라. 왜 그러한가? 저마다 모두 자신의 법칙에 집착하기 마련이기에.

물음: - 만일 견해라는 것이 모두 과오를 지닌다면 절대적 관점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답: 모든 언어³⁹⁷⁾를 초월한 길, 사유 기능의 멈춤과 소멸,³⁹⁸⁾ 모든 의존의 부재,³⁹⁹⁾ 법칙의 비-선언,⁴⁰⁰⁾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⁴⁰¹⁾, 시작-중간-결말의 부재⁴⁰²⁾, 불멸,⁴⁰³⁾ 불변⁴⁰⁴⁾, 이들을 절대적 관점⁴⁰⁵⁾이라 이르니, 마가연의계⁴⁰⁶⁾에 이르길,

언어가 끝나는 경지
마음의 기능 역시 끝나
태어남도 사라짐도 없는 것,
법칙은 니르바나 닮았네.

행위를 돕는 주제⁴⁰⁷⁾에 관해 논하기
이것이 세속 법칙,
무위를 돕는 주제⁴⁰⁸⁾에 관해 논하기
이것이 절대 법칙.⁴⁰⁹⁾

393) le système, the system, 法

394) 논의 과정에서 주제 발제를 종결짓기 위해 사용된 고어투 문구. *Majjhima*, II, p. 169 *aham etaṃ jānāmi aham etaṃ passāmi: idam eva saccaṃ mogham aññan ti*. TTr: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 유일하게 이것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395) honorent, respect, *pūujayanti*, 供養

396) pratiquent, practice, *bhāvayanti*, 修行

397) tout discours, all discourse, *sarvadeśanātikrāntamārga*, 一切語言

398) l'arrêt et la destruction du fonctionnement de la pensée, the arrest and destruction of the functioning of the mind, *cittappravṛttisthitinirodha*, 心行處滅

399) l'absence de tout support, the absence of any support, *anāsśraya*, 遍無所依

400) la non-déclaration des Dharma, the non-declaration of the dharmas, *dharmāṇāṃ anidarśanam*, 不示諸法

401) le vrai caractère des Dharma, the true nature of the dharmas, *dharmāṇāṃ satyalakṣaṇam*, 諸法實相

402) l'absence de début, de milieu et de fin, the absence of beginning, middle and end, *anādimadhyānta*, 無初無中無後

403) l'indestructibilité, the indestructibility, *akṣayatva*, 不盡

404) l'inaltérabilité, the inalterability, *avipariṇāmatva*, 不壞. 라모트는 이 부분을 명사 구문으로 표현한다.

405) [절대의 명칭들에 관해서는 앞의 p. 92, 각주\) 573 참조.](#)

406) *Mo ho yen yi kie*(Mahāyānārthagāthā?), 摩訶衍義偈

407) les sujets favorisant l'action, the subjects promoting action, *abhisamskrāsthāna*, 諸行處

408) les sujets favorisant l'inaction, the subjects promoting non-action, *anabhisamskrāsthāna*, 不行處

409) le système absolu, the absolute system, 第一義

일체는 진실, 일체는 거짓,
 일체는 진실이자 거짓,
 일체는 거짓이자 진실.
 이것이 모든 법칙의 진정한 특성.⁴¹⁰⁾

이와 같이 경전 도처에서 절대적 관점을 설하였는바 그 뜻이 심오하고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유로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 것이다.

[대논사들이 법칙을 믿게함]

17. 또한 붓다는 수행자 장조 범지,⁴¹¹⁾ 슈레니까 바트사고투라,⁴¹²⁾ 사트야카 니르그란티뿌트라⁴¹³⁾ 등 대논사들이 붓다의 법칙을 믿게 하고자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다. 이러한

410) *Madh. vṛtti*, p. 369와 비교할 것:
sarvaṃ tathyam na vā tathyam
tathyam cātathyameva ca
naivātathyam naiva tathyam
etad buddhānuśāsanam

TTr: 일체는 진실, 일체는 거짓, 일체는 진실하면서 거짓, 일체는 진실하지도 거짓도 아니라. 이것이 붓다 다르마(一切實非實, 亦實亦非實, 非實非非實, 是名諸佛法. 中論, 觀法品).

411) le brahmacārin Tch'ang tchao, Dīrghanakha, 長爪梵志. 이에 관해서는 아래 승려 '장조' 참조.

412) *Sien ni p'o ts'o k'iu to lo*, Śreṇika Vatsagotra, 先尼婆蹉衢多羅.

빠알리 Vacchagotta. 와짜고따는 출가 후 전향하여 편력행자(parivrājaka, 遍歷行者)가 된 자로서 붓다와 다양한 대화 특히 답변 불가능한 열네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avyākrtavastu*, k. 2, p. 74 c). 빠알리 경전: *Tevijjhavacchagotta*, *Majjhima*, no. 71, I, p. 481~483; *Aggivacchagotta*, ib., no. 72, I, p. 483~489; *Mahāvaccagotta*, ib. n° 73, I, p. 489~497; *Vacchagotta*, *Aṅguttara*, I, p. 160~162; *Vacchagottasamyutta*, *Samyutta*, III, p. 257~263. — 기이하게도 앞서 인용한 빠알리 경전에 상응하는 구절들은 한역 아함 가운데 오직 잡야함에만 보인다. — 이렇게 T 99(n° 95), k. 4, p. 26 a~b는 T 100(n° 261), k. 12, p. 465 c와 일치하며 *Aṅguttara*, I, p. 160~162의 *Vacchagotta*에 상응한다. — T 99 (n°. 962), k. 34, p. 245 b ~ 246 a는 T 100, (n°. 196), k. 10, 444 c ~ 445 c와 일치하며 *Majjhima*, I, 483의 *Aggivacchagotta*에 상응한다. — T 99 (n° 963), k. 34, p. 246 a~b는 T 100(no. 197), k. 10, p. 445 c ~ 446 a와 일치하며 *Samyutta*, III, p. 237의 *Vacchagottasamyutta*에 상응한다. — T 99 (n° 964), k. 34, p. 246 b ~ 247 c는 T 100 (n° 198), k. 10, p. 446 a ~ 447 b와 일치하며 *Majjhima*, I, p. 489의 *Mahāvaccagotta*에 상응한다. 따라서 한역 *Samyuktāgama*는 Vatsagotra와 관련하여 빠알리 니까야에 산재해 있던 모든 구절들을 한 곳에 모았다는 설이 성립하였다.

빠알리 경전들이 Vatsagotra라는 성씨만 기술하고 있음에 주의하자. 그는 Vaccha 씨족의 부유한 브라흐만 가문의 일원이었다(*Theragāthā*, I, p. 221 주석; Rh. Davids 역, *Brethren*, p. 101). Mpp를 통해 그의 이름이 빔바사라 왕 이름과 같은 슈레니까(Śreṇika)임을 알 수 있다.

413) *Sa tchō kia mo k'ien t'i*, Satyaka Nirgranthīputra, 薩遮迦摩提提

T 99, k. 5, p. 35 a, and T 125, k. 30, p. 715 b의 정확성에서 입증되었듯 *Sa tchō kia mo k'ien t'i*는 *Sa tchō kia ni k'ien t'i tseu*로 수정해야 한다. *Soothill-Hodous*, p. 488 b에 제시된 동일한 내용들은 환상적이며 사짜까 니간티뿌따(*Saccaka Niganthiputta*)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는 저명한 니간티(Niganthi)와 니간타(Nigantha)의 아들이었다. 이들은 논쟁에서 서로를 압도할 수 없자 결국 Licchāvis of Vesālī의 충고를 따라 결혼한 사이였다(*Papañca*, II, p. 268). 그에게는 사짜(Saccā), 롤라(Lolā), 빠따차라(Patācāra), 시와와띠까(Sivāvatikā)라는 네 누이가 있었고 이들에게 사리뿌따(Sāriputta)가 전향한 상태였다(*Jātaka*, III, p. I sq). 사짜까 자신도 대단한 논객(*bhassappavādika*)이었고 자부심이 충만했다: 그는 베살리(Vesālī)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상가를 창립하고 제자들 무리의 수장이 된 사문(Śramaṇa) 혹은 브라흐만교 사제(Brahmaṇa)를 만날 일이 없다. 심지어 완전히 깨달은 아르하트로 알려져 있고, 나와 논쟁을 벌여도 사지를 떨지 않고, 동요되지 않으며, 갑옷 속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을지라도. 만일 내가 무지렁이 말뚝과 논쟁을 벌인다면

잠부드위빠⁴¹⁴)의 대논사들은, 모든 이론⁴¹⁵)은 파괴될 수 있고, 모든 확언⁴¹⁶)은 무너질 수 있고, 모든 집착⁴¹⁷)은 바뀔 수 있으므로 믿음⁴¹⁸)이나 공경⁴¹⁹)의 가치를 지닌 진실한 종교⁴²⁰) 또한 없다고 말해왔다.

『사리불본말경』⁴²¹)에서 사리뿌뜨라의 외삼촌 마하카우스틸라(마하구치라)⁴²²)가 그의 누이 사리⁴²³)와의 논쟁에서 허물어지고 생각하길 “동생이 이렇게 강할 리 없는데 필시 깨달은 자⁴²⁴)를 잉태한 게야. 그 아이가 누이의 입을 빌어 말하는 것이겠지.⁴²⁵) 태어나기도 전에 이

그 말뚝조차 전율하며 동요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의 경우야 어떻겠는가?”(*Majjhima*, I, p. 227; cf. Mppś, k. 26, p. 251 c). 그럼에도 그는 붓다에게 패했다. “집게발이 부러진 게처럼 궁지에 몰린”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붓다를 따랐다. 사짜까는 두 경전에 등장한다.

(1) *Cūlasaccaka sutta: Majjhima*, no. 35, I p. 227~237 (tr: Chalmers, I, p. 162~169); *Tsa a han*, T 99 (n° 110), k. 5, p. 35 a ~ 37 b; *Tseng yi a han*, T 125, k. 30, p. 715 a ~ 717 b.

(2) *Mahāsaccakasutta: Majjhima* no. 36, I p. 237~251 (tr: Chalmers, I, p. 170~179).

414) Yen feou t'i, Jambudvīpa, 閻浮提

415) tous les traits, all the treatises(*śāstra*), 一切論

416) toutes les affirmations, the affirmations(*vāda*), 一切語

417) toutes les croyances, the twisted beliefs(*grāha*), 一切執

418) la croyance, the belief, *śraddhā*, 信

419) le respect, the respect, *arcana(satkāra)*, 恭敬

420) la religion vraie, the true religion, 實法

421) Chō li fou pen mo king, Śāriputravadānasūtra, 舍利弗本末經

422) Mo ho kiu tch'e lo, Mahākauṣṭhila(티베트어 'Gsus po che, 뚱뚱한 배', 중국어 'ta si, 굵은 무릎': cf. *Mahāvvyūtpatti*, n° 1063). 후일 '손톱 긴 梵志(Dīrghanakha brahmacārin)'라는 별명을 얻은 승려로서 사리뿌뜨라의 삼촌 Śāriand의 형제인 브라흐만 출신 마타라(Māṭhara)의 아들이었다. 따라서 Assalāyana와 Candavati를 부모로 둔 빠알리 출전의 Mahākoṭṭhita는 다른 인물이며, 사리뿌뜨라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인물이다(cf. *Theragāthā*, v. 1006~1008). Dīrghanakha에 관한 자료는 세 가지 범주로 정리된다.

1° The *Dīrghanakhasūtra* - 빠알리 *Majjhima*, n° 74, I, p. 497~501(번역 Chalmers, p. 351~353). - 중국 투르키스탄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 문헌 일부 R. Pischel이 출간, *Bruchstücke des Sanskritkanons der Buddhisten aus Idyuktsari*, SPAW, 1904, text p. 814, l. 21 ~ 816 l. 7, explanations, p. 822~923 - 한역 *Tsa a han*, T 99(n° 969), k. 34, p. 249 a ~ 250 a; T 100(n° 203), k. 11, p. 449 a~b. - 이 경 표기는 가끔은 *Dīrghanakhasūtra*(예를 들어 *Mahāvastu*, III, p. 76)로, 또 가끔은 *Vedanāpariggaha(Dhammapasatṭha*, I, p. 79; *Sumaṅgala*, III, p. 882; *Papña*, IV, p. 87)로 추정되기도 한다.

2° Le *Dīrghanakhavadāna*, Dīrghanakha의 인도 남부 여행, 붓다와의 대화, 그의 전향을 전하고 있다 - 산스크리트 문헌, *Avadānaśataka*(n° 99), II, p. 186~196(Tr: Feer, p. 418~430). 한역, *Siuān tsi po yuan king*, T 200(n° 99), k. 10, p. 255 a ~ 157 a). 동일한 이야기, *Ken pen chouo...tch'ou kia cha*, T 1444, k. 1, p. 1023 a, 順世(Lokāyata, 路伽耶) 체계 공부를 위한 인도 남부 여행; k. 2, p. 1028 c(가우타마와 Dīrghanakha의 대화). Csoma-Feer, p. 152, 155. - P'i p'o cha, T 1545, k. 98, p. 509 b~c. *Ta tche tou louen*, T 1509, k. 1, p. 61 b ~ 62 a (전체 이야기); k. 11, p. 137 c(Dīrghanakha의 여행; 번역 Chavannes, *Contes*, III, p. 293~294).

3° The *Dīrghanakhaparivṛājariprccā*, 티베트어역 *Kun tu rgyu ba sen eiṅs kyis žus pa*, Mdo XXVIII, 2(OKC n° 1009; Csoma-feer, p. 283); 한역 Yi tsing, *Tch'ang tchao fan tche ts'ing wen king*, T 584, vol XIV, p. 968; 소그드어역 *Brz n'y'n syns'ry wp'rs*, 재출간 E. Benveniste in TSP, p. 74~81. 이 저술은 붓다의 신체적 특징에 상응하는 붓다의 행위들을 다루고 있다.

423) Chō li, Śāri, 舍利

424) un sage, a sage, *jñānin*, 智人

425) 같은 행적을 담은 경전, *Lieou tou tsi king*, T 152 (no. 66), k. 6, p. 35 b ~ 36 a, tr. Chavannes, *Contes*, I, p. 240~244: “한 어린아이가 빠라즈냐빠라미따(Prajñāpāramitā)라는 성스러운 경전을 암송하는 것을 듣는 순간 죽임을 당한다. 아이는 이를 암송할 줄 아는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여인의 배 속에 환생한다. 아이를 분만한 여인은 의식을 잃었어도 아이는 탄생하자 곧 빠라즈냐빠라미따를 암송한다.”

러하니 태어나서 성장하면 어떻게 당해내랴?” 이렇게 생각하니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출가하여 수행자⁴²⁶)가 되어 남인도⁴²⁷)로 가서 경전을 읽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61 c] “그대는 무엇을 구하며 무슨 경전을 읽는가?” 마하카우스틸라가 답하길, “십팔대경⁴²⁸)을 모두 읽고자 한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대의 수명이 다하도록 하나도 알기 힘들거늘 어찌 모든 것을 다 알고자 하는가?” 디르가나카⁴²⁹) (마하카우스틸라의 별명)가 생각하길, “지난날 교만을 부려 누이에게 모욕을 당했었는데, 이제 다시 이들이 나를 미혹⁴³⁰)에 빠뜨리다니. 내 맹세코 십팔 대경전 일체를 모두 독파할 때까지 결코 손톱을 깎지 않으리라.”⁴³¹) 그 긴 손톱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장조 범지⁴³²)라 불렀다. 이 사람이 모든 경전을 읽고, 지혜의 힘을 얻어 갖가지 방편으로 법칙과 법칙 아닌 것⁴³³),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⁴³⁴, 진실한 것과 진실하지 않은 것⁴³⁵, 있는 것과 없는 것⁴³⁶)을 논박하고, 남⁴³⁷)의 논리를 부수니 마치 힘센 성난 코끼리⁴³⁸)가 차고, 밟고, 설치는 것처럼 통제 불능에까지 이르렀다. 이 디르가나카가 자신의 논리로 다른 논사들을 제압하고는 마가다국⁴³⁹) 라자그리하⁴⁴⁰) 광장으로 돌아왔다. 고향 마을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조카⁴⁴¹)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사람들이 그대 누이의 아들은 팔 세에 일체 경전을 독파하여⁴⁴²) 십육 세에 이르러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⁴⁴³) 사까족⁴⁴⁴) 도인 가우따마⁴⁴⁵)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디르가나카가 이 말을 듣고 교만한 마음⁴⁴⁶)이 일어 믿지 못하고⁴⁴⁷) 묻기를, “우리 조카가 이처럼 총명⁴⁴⁸)한데 그는 어떤 술수를 부

426) un brahmacārin, a brahmacārin, 梵志

427) l'Inde du Sud, southern India, *dakṣiṇāpatha*, 南天竺國. T 1444, k. 1, p. 1023 a에 의하면 카우스틸라는 남인도로 유학하여 順世(Lokāyata) 체계를 연구하였다.

428) les grands traités, the great treatises(śāstra), 十八種大經. 십팔명처(明處). 인도의 정통 종교 철학서. 네 베다: Ṛg-veda(讚頌), Yajur-veda(歌頌), Sāma-veda(祭祀), Atharva-veda(攘災). 육론: Śikṣā(음운론), Vyākaraṇa(어법), Kalpa(제식), Jyotiṣa(천문), Chandas(詩), Nirukta(語源). 팔론: Mīmāṃsā(철학), Nyāya(논리), Itihāsaka(古事). Sāṃkhya(數論), Yoga(수습), Dhanur-veda(弓杖), Gandharva(음악), Artha-śāstra(政事論)

429) Dīrghanakha, 長爪

430) confusion, shame, *gurulajjā*, 輕辱

431) *P'i p'o cha*, T 1545, k. 98, p. 509 b와의 비교: 어찌하여 그는 손톱을 기르나? 수행에 목마른 그는 손톱을 자르지 않는 습관을 지녔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는 손톱과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산(山) 사람의 관습을 따랐다. 후자는 세속(*gr̥hastha*)에 머물던 시절 디르가나카가 기타(*hien kouan*) 연주를 즐겼고, 편력행자(*parivrājaka*)가 되어서는 긴 손톱에 매료된 나머지 손톱을 자르지 않았다고 전한다. 하지만 다른 스승들은 그가 손톱을 기르는 종교적 이단의 일원이었다고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를 ‘長爪(Long Nails)’ 범지라 불렀다.

432) le brahmacārin Ongles-longs, the brahmacārin ‘Long Nails’, *dīrghanakha*. 長爪梵志

433) le Dharma et l'Adharma, Dharma and Adharma, 是法是非法

434) l'obligatoire et le facultatif, compulsory and optional, 是應是不應

435) le vrai et le faux, true and false, 是實是不實

436) l'être et le non-être, the being and non-being, 是有是無

437) ses voisins, his neighbors, *paropadeśa*, 他

438) un éléphant, an elephant, *gaja*, 象

439) Mo k'ie t'o, Magadha, 摩伽陀

440) Wang chö, Rājagṛha, 王舍城

441) mon neveu, my nephew, *bhāgineya*, 我姊生子

442) *Avadānaśataka*, II, p. 187에 의거하면 사리뿌뜨라는 십육 세에 이미 ‘인드라 문법(*aindra vyākaraṇa*)’을 공부했었다.

443) triomphait, triumphed, *abhibhavañi*, 勝

444) the Che clan, Śākya, 釋種

445) Kiu t'an, Gautama, 瞿曇

446) le mépris, the scorn, *abhimāna*, 憍慢

447) l'incrédulité, the disbelief, *āśraddhya*, 不信心

려 삭발시키고 제자로 삼았던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그는 즉시 붓다에게 갔다. 이즈음 사리 뿌뜨라는 정식으로 계를 받은 지 반달⁴⁴⁹⁾이 지난 무렵, 그는 붓다 곁에 서서 한 손으로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디르가나카는 붓다를 만나 인사하고는 그 옆에 앉아 생각하길, “모든 논리는 타파할 수 있고, 모든 언어는 무너뜨릴 수 있으며, 모든 집착은 바꿀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⁴⁵⁰⁾인가? 어느 것이 절대적 관점⁴⁵¹⁾이며, 어느 것이 자신만의 특성⁴⁵²⁾이며 어느 것이 자신만의 특징⁴⁵³⁾이며, 착각 아닌 것⁴⁵⁴⁾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은 마치 망망대해의 깊은 바닥을 파헤치는 것과 같아 아무리 오래 생각한다 해도 지혜에 들어갈 만한 [62a] 하나의 법칙도 얻을 수 없는데, 그는 어떠한 법칙⁴⁵⁵⁾으로 조카를 얻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붓다에게 말하길, “가우따마여, 나는 일체법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소.”⁴⁵⁶⁾ 이에 붓다가 묻길, “디르가나카 그대는 일체 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찌 그 논제는 받아들이는 것인가?” 물음의 의미는 그가 이미 그릇된 견해의 독⁴⁵⁷⁾을 마신 만큼, 그 독기를 발해 일체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거늘 이 견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⁴⁵⁸⁾ 그러자 훌륭한 말⁴⁵⁹⁾이 채찍의 그림자⁴⁶⁰⁾를 보고 바로 깨어나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듯, 브라흐마나 디르가나카는 붓다의 말⁴⁶¹⁾이라는 좋은 채찍을 보자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워 교만한 마음⁴⁶²⁾을 버리고 고개 숙여 생각에 잠겼다.⁴⁶³⁾ “붓다는 내게 두 모순⁴⁶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구나.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면, 그것은 조잡한 모순⁴⁶⁵⁾이기

448) intelligent, *medhāvin*, 聰明

449) reçu solennellement depuis une quinzaine, having been ordained a fortnight ago, *ardhamāsopasampanna*, 初受戒半月

450) le vrai caractère, the true nature, *satyalakṣaṇa*, 實相

451) l'absolu, the absolute, *paramārtha*, 第一義

452) la nature propre, the self nature, *svabhāva*, 者性.

453) le caractère spécifique, the specific nature, *lakṣaṇa*, 者相

454) l'absence de méprises, the absence of error, *aviparyāsa*, 不顛倒

455) l'enseignement, the teaching, *upadeśa*, 論議

456) aucune thèse ne m'agrée, no thesis is acceptable to me, *sarvaṃ me na kṣamate*, 一切法不受

457) le poison des vues fausses, the poison of false views, *mithyādr̥ṣṭiṣa*, 邪見毒

458) 붓다의 의도는 디르가나카로 하여금 또 다른 생각을 받아들임 없이 자기 생각을 포기토록 이끄는 것이었다. *Dīghanakhasutta* 및 앞서 인용한 *Avadānaśataka* 내용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매우 명확히 도출된다.

459) un bon cheval, a fine horse(*aśva*), 好馬

460) l'ombre du fouet, the shadow of the whip hip, *kaśācāyā*, 鞭影

461) la parole du Buddha, Buddha's speech, *buddavāc*, 佛語

462) l'orgueil, the pride, *darpa*, 高

463) 법구경 구절의 비유: Dhammapada, v, 144, Sanskrit Udānavarga, p. 240:

*bhadro yathāśvaḥ kaśayābhitāḍita
hy ātāpinaḥ samvijitāś careta
samāhito dharmaviniścayajñāḥ
śraddhas tathā śiaguṇair upetaḥ
saṃpannavidyācaraṇa pratismṛtas
tāyī sa sarvām prajahati duḥkham.*

TTr. 채찍 받은 좋은 말처럼, 부지런히 힘써 수도하라, 믿음, 계율, 정진으로, 정신 모아 진실 찾아, 지혜와 덕행 갖추어, 깊은 생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라(如策良馬 進退能遠 人有信戒 定意精進 受道慧成 便滅衆苦).

464) deux contradictions, two contradictions, *nigrahasthāna*, 二處負門.

논리에 반하는 오류는 불교 논리학들에 의해 범주화되었다: 예를 들어 *Tarkaśāstra*의 스물두 가지 오류 목록. Tucci, *Pre-Diñnāga*, p. 33~40을 보라.

465) un nigrasthdna giossier, a gross(audarika) *nigrasthāna*, 負處門羸

에 사람들이 이를 알겠거늘. 어찌하여 나는 일체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는가? 내 견해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⁴⁶⁶)로서, 조잡한 모순이란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두 번째 모순이 좀 더 정교한⁴⁶⁷) 것으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 이를 받아들여야지.” 이러한 생각이 들자 붓다에게 말하길, “가우따마여, 일체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거니와, 이 논의도 받아들이지 않겠소.” 붓다가 브라흐마나에게 말하길, “일체 논의도, 또한 이 논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여느 존재와 다를 바 없거늘 왜 그토록 기고만장하고 교만한가?” 브라흐마나 디르가나카는 대답할 바를 몰라 스스로 모순에 빠짐을 인정하고 붓다의 일체지⁴⁶⁸)에 경의를 표하고 믿음⁴⁶⁹)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하길, “내가 모순에 빠졌는데도 붓다는 나의 결점을 들추어내지 않으며,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말하지도, 자기 의견을 밝히지도 않는구나. 붓다의 마음은 유순하고,⁴⁷⁰) 최고로 깨끗하여,⁴⁷¹) 모든 논제⁴⁷²)를 멀하고, 심오한 법칙⁴⁷³)을 득했도다. 그는 공경⁴⁷⁴) 받을 만하다. 그 마음의 청정함이 으뜸이라⁴⁷⁵). 붓다의 법문으로 그릇된 견해를 끊은 그는 그 자리에서 먼지와 때를 벗어 버리고, 모든 법칙에 관해 완벽하게 깨끗한 법안을 얻었다. 이때 사리뿌뜨라 역시 이 말을 듣자마자 아르하트가 되었다.⁴⁷⁶) 수행자 디르가나카도 출가하여 사문⁴⁷⁷)이 되어 큰 힘을 얻어 막강한 아르하트가 되었다. 이 수행자 디르가나카가 뿌라즈나빠라미따의 기본 성격인 네 가지 대안⁴⁷⁸)을 떠나 절대 명제(제일의)에 상응하는 법칙을 듣지 못했다면, 작은 믿음조차 구하지 못했으리라. 하물며 출가해서 종교적 삶의 열매를 어찌 얻었겠는가? 붓다는 이렇게 대논사들⁴⁷⁹) 그리고 생생하고 이로운 근기⁴⁸⁰)를 지닌 사람들을 위하여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다.⁴⁸¹)

466) un mensonge, a lie, *mṛṣāvāda*, 妄語

467) subtil, subtle, *sūkṣma*, 細

468) l'omniscience, the omniscience, *sarvajñāna*, 一切智

469) la foi, the faith, *śraddhācitta*, 信心

470) les dispositions affectueuses, a kind disposition, *snighacitta*, 心柔濡

471) tout pur, completely pure, *paramasuddha*, 第一清淨

472) tous les sujets de discussion, all subjects of debate, *abhiḷāpasthāna*, 一切語論

473) le grand et profond Dharma, the great and profound Dharma, *mahāgambhīradharma*, 大甚深法

474) respect, *arcanīya*, 恭敬

475) La pureté de sa pensée(*cittavisuddhi*) est absolue(*parama*). The purity of his mind(*cittaviśuddhi*) is absolute(*parama*). 心淨第一

476) Arhat, an *arhat*, 阿羅漢.

Avadānaśataka (『撰集百緣經』), p. 194와 비교: *athāyuṣmataḥ Śāriputrasayaīṣāṃ dharmānām anityatānudarśīno viharato vyayānudarśīno virāgānudarśīno nirodhānudarśīnaḥ pratiniḥsargānudarśīno viharataḥ anupādāyāsravebhyaś cittam vimuktaṃ Dīrghanakhasya ca parivrājakasya virajo viḡatamalaṃ dharmeṣu dharmacakṣur utpannam*. TTr 이때 사리뿌뜨라 존자는 존재들의 무상함을 성찰하고, 생겨나고 사라짐을 성찰하며, 그 탐욕을 여의어야 함을 성찰하고, 사라져 없어짐을 성찰하며, 버려야 함을 성찰하였다. 그리하여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그때 외도 장조도 티끌과 때를 멀리 여의고 청정한 법안을 얻었다.

477) religieux, monk, *śramaṇa*, 沙門

478) les quatre alternatives, the four alternatives, *cātuḥkoṭikavarjita*, 四句

네 가지 대안을 배제하는 법칙은 사단 논법을 확립하는 법칙이다: “그 자체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이 둘로부터, 아무 원인도 없이 생겨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사리뿌뜨라가 경전에서 대승의 기본 특성을 이루는 부정성을 언급하였다. Cf. Keith, *Buddhist Philosophy*, p. 237~241; Lav., *Madhyamaka*, p. 19 내용은 이미 사리뿌뜨라가 경전에서 소개한 바 있다: *Samyutta*, II, p. 112~115; *Tsa*, Y 99(n° 288), k. 12, p. 81 a~c.

479) les grands maîtres, the great teachers, *upadeśacārya*, 大論議師

480) les facultés vives, the sharp faculties, *tikṣṇendriya*, 利根

[두 가지 설법]

18. 또한 부처들의 설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때로는 청중의 생각을 고려하고⁴⁸²⁾ 교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법의 목적 즉 모든 존재의 특성⁴⁸³⁾을 살피기도 한다. [62 b] 여기에서 붓다는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을 설하고자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다. 「상불상품」⁴⁸⁴⁾에 설하듯, 천신들⁴⁸⁵⁾이 붓다에게 이 마하쁘라즈냐빠라미따는 매우 심오하거늘⁴⁸⁶⁾ 무엇을 그 특성⁴⁸⁷⁾으로 합니까?” 붓다가 말하길, “비어 있음⁴⁸⁸⁾이 곧 그 특성이다. 특성 있으면서 없음⁴⁸⁹⁾, 행위 없음⁴⁹⁰⁾, 생겨남도 소멸도 없음⁴⁹¹⁾, 이루어냄 없음⁴⁹²⁾, 영원히 내재하는 진정한 본질⁴⁹³⁾, 니르바나⁴⁹⁴⁾이다.”

19. 또 다른 두 가지 설법 방편이 있다. 하나는 논쟁적 주제⁴⁹⁵⁾를 다루는 것, 다른 하나는 비논쟁적 주제⁴⁹⁶⁾를 다루는 것이다. 다투는 것은 다른 경에서 설했으니⁴⁹⁷⁾ 지금은 다투지 않는 것에 관해 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다. 마하쁘라즈냐빠라미따는 있음과 없음의 성격⁴⁹⁸⁾을 동시에 지닌다. 물질적이면서 비물질적이며⁴⁹⁹⁾, 의지적이면서 비의지적이며⁵⁰⁰⁾, 적대적이면서 비적대적이며⁵⁰¹⁾, 낮으면서 낮지 않으며⁵⁰²⁾, 세계이면서 비세계인 것⁵⁰³⁾과 같다.

481) *Pañcaviṃśati*, T 220, k. 510, p. 604 c(du tome VII); T 221, k. 11, p. 77 b; T 223, k. 14 인용.

482) tenir compte(*apeksante*) des pensées(*citta*), account the minds, 觀人心

483) le caractère(*lakṣana*) des Dharma, the nature of the dharmas, 諸法相

484) *Siṅg pou siṅg*, *Lakṣaṇālakṣaṇaparivarta*, 相不相品

485) les dieux, gods, *deva*, 天

486) profonde, profound, *gambhīra*, 甚深

487) le caractère, the nature, *lakṣaṇa*, 相

488) le vide, empty, *sūnya*, 空

489) la caractère de l'existence et la non-existence, as its nature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bhavābhavalakṣaṇa*, 相無相

490) l'inactivité, *akriydlakṣana*, 無作相(영역에 생략된 부분)

491) la caractère de la non-naissance et la non-destruction, as its nature the non-arising and non-cessation, *anutpādānirodhalakṣaṇa*, 無生滅相

492) l'exemption de l'effort, as its nature the effortlessness, *anabhisamkāralakṣaṇa*, 無行之相

493) la vraie nature éternelle et innée, as its nature the true eternal innate, *nityājātatahātalakṣaṇa*, 常不生如性相

494) la caractère du Nirvana, as its nature nirvāṇa, *nirvāṇalakṣaṇa*, 寂滅相

495) des sujets de querelle, argumentative subjects, *raṇasthāna*, 諍處

496) des sujets apaisants, pacifying subjects, *araṇasthāna*, 不諍處

497) *Samdhinirmocana*, IV, 1~5. 불교의 진리관에 해당하는 논쟁을 이끄는 일련의 주제, 예를 들어 불교 진리 영역인 구성요소(蘊, *skandhas*), 요소(界, *dhātus*), 인식 토대들(處, *ayatāna*) 등의 특성 모두를 열거한다. 이 주제에 관해 논쟁을 벌이는 자들은 “절대적인 것은 심오하고 오묘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도처에서 一味相(*ekarasalakṣaṇa*)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498) un caractère d'existence et de non-existence, a nature of existence and of non-existence, *bhavābhavalakṣaṇa*, 有相無相

499) substantielle et non-substantielle, substantial(*bhūtaḍḍavāya*) and non-substantial (*abhūtaḍḍavāya*), 有物無物

500) fondée et non-fondée, with support(*sāśraya*) and without support(*anāśraya*), 有依無依

501) résistante et non-résistante, offering resistance(*sapratigha*) and not offering resistance(*apratigha*), 有對無對

502) inférieure et supérieure, lower(*sottara*) and higher(*anuttara*), 有上無上

503) cosmique et acosmique, cosmic and acosmic, 世界非世界

물음: 붓다는 대자대비한데⁵⁰⁴ 단지 다투지 않음⁵⁰⁵에 관해 설할 일이지, 왜 다투⁵⁰⁶에 관해 설하는가?

답: 다투 없는 법칙이란 모두 특성을 결여하고,⁵⁰⁷ 늘 그러하며,⁵⁰⁸ 조용하여,⁵⁰⁹ 말로 할 수 없는 것⁵¹⁰이다. 여기에서 붓다는 보시⁵¹¹와 그 이외의 것들 즉 변해가는 것⁵¹², 고통스러움⁵¹³, 비어 있음⁵¹⁴에 관해 설한다. 이 모든 법칙은 모두 조용하며,⁵¹⁵ 쓸데없는 다투⁵¹⁶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런 연유로 붓다가 설한다. 영리한 자는 붓다의 뜻을 알고 다투지⁵¹⁷ 않으나 둔한 자는 붓다의 뜻을 모르기에 특성을 취하고⁵¹⁸ 생각에 집착하여⁵¹⁹ 이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를 두고 다투다. 그러나 이 법칙들은 절대 비어 있음⁵²⁰이므로 다투 일이 없다.⁵²¹ 만약 절대 비어 있음이라는 것이 잡을 수 있는 것이며, 다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비어 있음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는 다투⁵²²이 없으며, 있음과 동시에 없음이라는 이중성으로 인해 침묵한다.⁵²³

[세 가지 법칙의 다섯 범주]

20. 또한 다른 경에서는 종종 세 가지 범주로서 모든 법칙을 설하였다. 이른바 선한 범주,⁵²⁴ 악한 범주,⁵²⁵ 정의 내릴 수 없는 범주⁵²⁶가 있다.⁵²⁷ 여기서 붓다는 선한 범주도, 악한 범주도 아닌, 정의 내릴 수 없는 범주도 아닌 모든 법칙의 특성에 관해 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유로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하는 것이며, 세 가지 법칙의 여타 범주들도 이와 같다. 1. 수행자들⁵²⁸ 법칙, 깨달은 자⁵²⁹들 법칙, 수행자들도 깨달은 자도 아닌 자들⁵³⁰ 법칙 2. 진

504) de grande bienveillance et de grande compassion,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mahāmatrikaruṇācitta*, 大慈悲心

505) des sujets apaisants, pacifying subjects, *araṇasthāna*, 無諍法

506) des sujets de querelle, contentious subjects, *raṇasthāna*, 諍法

507) sans caractère, without nature, *alaksṣaṇa*, 無相

508) éternels, eternal, *nitya*, 常

509) calmes, calm, *śānta*, 寂滅

510) ineffables, ineffable, *avacanīya*, 不可說

511) le don, the generosity, *dāna*, 布施

512) transitoires, transitory, *anīya*, 無常

513) douloureux, suffering, *duḥkha*, 苦

514) vides, emptiness, *śūnya*, 空

515) calmes, calm, *śānta*, 寂滅

516) de vaines discussions, fruitless discussions, *niṣprapañca*, 戲論

517) une querelle, quarrels, *raṇa*, 諍

518) saisissant des caractéristiques, grasping at the characteristics, *nimittagrāhi*, 取相

519) attachés à leurs idées, attached to their own ideas, *cittābhiniṣṭa*, 著心

520) le vide absolu, absolutely empty, *atyantaśūnya*, 究竟空

521) *Vajracchedikā*, p. 22에는 동일한 사유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yāvat Subhūte lakṣaṇasaṃpat tāvan mṛṣā yāvad alakṣaṇasaṃpat tāvan na mṛṣeti hi lakṣaṇalakṣaṇātas tathāgato draṣṭavyaḥ*. Tr. 아, 수부띠여, 특성의 여지가 있는 곳에 거짓말이 있다. 특성의 여지가 없는 곳에는 거짓말도 없다. 이러한 연유로 여래는 특성의 부재로 규정된다.

522) il n'y a pas là sujet à querelle, no subject to quarrel, *raṇasthāna*, 無諍處

523) calme, peaceful, *śānta*, 寂滅

524) la catégorie bonne(good, *kuśala*), 善門

525) la catégorie mauvaise(bad, *akuśala*), 不善門

526) la catégorie non-définie(non-defined, *avyākṛta*), 無記門

527) 불교 경전은 종종 선한(*kuśala*) 법칙과 악한(*akuśala*) 법칙을 구분한다. 아비다르마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무기(*avyākṛta*) 법칙들도 구분한다. Cf. *Dhammasaṅgaṇī*, p. 1; *Vibhaṅga*, p. 180; *Nettipakaraṇa*, p. 191; *Milinda*, p. 12. Geiger, *Pāli Dhamma*, p. 105~113의 다른 출전들.

실을 보고 끊는 법칙⁵³¹), 사유로써 끊는 법칙⁵³²), 끊지 않는 법칙⁵³³) 3. 보이면서 대항하는 법칙⁵³⁴), 보이거나 대항하지 않는 법칙⁵³⁵), 보이지 않으면서 대항하지 않는 법칙⁵³⁶) 4. 높은 법칙, 중간 법칙, 낮은 법칙 5. 작은 법칙, 큰 법칙, 무량한 법칙 등등...

또한 다른 경에서는 스라바까들⁵³⁷)의 법칙⁵³⁸)에 따라 네 전념 수행⁵³⁹)를 설한다.⁵⁴⁰) 마음 씩씩이에 따라 비슈들은 자신들 몸 안⁵⁴¹)의 서른여섯 물질⁵⁴²)을 살피고, 갈망이라는 병⁵⁴³)을 제거하고 나서, 같은 식으로 타인의 몸⁵⁴⁴)을 살피고,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동시에 살핀다. 이제 붓다는 네 전념 수행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하게⁵⁴⁵)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를 설하고자 다

528) les disciples, the disciples, *śaikṣa*, 學

529) les maîtres, the masters, *aśaikṣa*, 無學

530) ceux qui ne sont ni disciple ni maître, those who are neither disciples nor masters, *naivaśaikṣāsāikṣa*, 非學非無學法, *Dhammasaṅgaṇi*, p. 184~185; *Kośa*, VI, p. 231.

531) Dharma à abandonner par la vue des vérités, dharmas to be abandoned by seeing the truth, *darśanaheya-dharma*, 見諦斷法,

532) Dharma à abandonner par la méditation, dharmas to be abandoned by meditation, *hāvā bhāvalakṣṇa-dharma*, 思惟斷法

533) Dharma à ne pas abandonner, the Dharma which is not to be abandoned, *ahēya-dharma*, 無斷法. **빠알리 텍스트:** *dassanena pahātabhā, bhāvanāya pahātabbā, neva dassanena na bhāvanāya pahātabbā*, TTr. 봄으로써 버려야 할 법들, 닦음으로써 버려야 할 법들, 봄이나 닦음으로 버리지 말아야 할 법들, *Dhammasaṅgaṇi*, n° 1002, 1007, 1008, p. 183~183; *Vibhaṅga*, p. 12, 126, 97; *Kośa*, p. 78.

534) Dharma visibles et résistants, visible dharmas that offer resistance, *sanidarśanāpratigha-dharma*, 可見有對

535) Dharma invisibles et non-résistants, invisible dharmas that do not offer resistance, *anidarśanāpratigha*, 不可見有對

536) Dharma invisibles et non-résistants invisible dharmas that do not offer resistance, *anidarśanāpratigha*. 不可見無對, *Kośa*, I, p. 51.

537) *śrāvakas*, 聲聞

538) l'enseignemen, teachings, *dharmaparyāya*, 法門

539) quatre applications de l'esprit, four applications of mindfulness(*smṛtyupasthāna*), 四念處. **빠알리** *cattāro satipaṭṭhānā*. 라모트는 산스크리트어로만 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atī*(practice), mindfulnesses 등으로 옮김. **빠알리** *satipaṭṭhāna*(알아차림의 확립), 위빳사나(vipassana)와 동의어.

540) 네 전념 수행(Les quatre *smṛtyupasthānas*)은 경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Dīgha*, II, p. 290(tr: Rh. D., II, p. 322~326); *Majjhima*, I, p. 56, II, p. 11; *Samyutta*, V, p. 9, 1412; *Ānguttara*, I, p. 39, 296; II, p. 256; III, p. 450, IV, p. 300, 457; *idha bhikkhave bhikkhu kāye kāyānupassī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vedanāsu vedanānupassī ..., citte cittānupassī ..., dhammesu dhammānupassī ...* TTr: 여기서 비슈(명상자)는 끊임없이 철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으로 몸 내부를 관찰하고, 이 세계에 대한 갈망과 혐오를 제거하여 열심히 머문다. 그는 몸 가운데 몸 [...] 감각 가운데 감각 [...] 마음 가운데 마음 [...] 담마 가운데 담마를 응시한다. — 산스크리트 문장: R. Pischel, *Bruchstücke des Sanskritkanons aus Idyaksari*, SPAW, XXV, 1904, p. 1143. — 한역 문장, 예를 들어 *Tchong a han*, T 26(n° 98), k. 24, p. 582 b; *Tsa a han*, T 99(n° 623), K. 24, P. 174 a; *Tseng yi a han*, T 125, k. 5, p. 568 a. 전념 수행 연구는 아비다르마에서 상세히 이루어졌다: *Aung, Compendium*, p. 179; *Visuddhimagga*, p. 239~266; *A p'i t'an pa kien tou louen*, T 1543, k. 29, p. 905~908; *A p'i ta mo fatche louen*, T 1544, k. 19, p. 1072~1074; *A p'i ta mo fa yun tsou louen*, T 1537, k. 5~6, p. 475~479; *P'i p'o cha*, T 1545, k. 187~192, p. 936~960; *Kośa*, VI, p. 158~162.

541) son propre corps, his own body, *ādhyātmikakāya*, 內身

542) les trente-six substances, the thirty-six substances(*dravya*), 三十六物

543) la maladie de rattachement, the sickness of attachment, *rāgavyādhi*, 欲貪病

544) le corps d'autrui, the body of another, *bāhyakāya*, 外身

545) par équivalence, by analogy, *paryāyeṇa*, 以異門. 영역자는 주석에서 '*paryāyeṇa*'와 관련하여

음과 같이 말한다. [62c] “보디사뜨와는 자신의 몸을 살피면서 자신의 몸이라는 개념⁵⁴⁶)을 일으키지도 않고. 몸을 얻지도 못하니, 몸이 없기 때문이다. 보디사뜨와는 남의 몸을 살피면서, 그리고 자신의 몸과 남의 몸을 동시에 살피면서, 몸이라는 개념을 일으키지도 않고. 몸을 얻지도 못하니, 몸이 없기 때문이다. 몸 전념 수행⁵⁴⁷) 단계에서 보디사뜨와는 자신의 몸을 살핌에 몸에 대한 개념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머지 다른 전념 수행⁵⁴⁸)도 마찬가지이다. 네 바른 수행⁵⁴⁹), 신통력의 네 토대⁵⁵⁰), 네 법열⁵⁵¹), 네 진실⁵⁵²) 등 각종의 네 법문⁵⁵³)도 이와 같다.

[다섯 구성요소, 五衆]

또한 다른 경에서도 붓다는 다섯 구성요소⁵⁵⁴)의 덧없음⁵⁵⁵), 고통스러움⁵⁵⁶), 비어 있음⁵⁵⁷), 실제 없음⁵⁵⁸)에 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섯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붓다는 마하쁘라즈나 빠라미따를 이와 다른 범주에서 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붓다는 수부띠에게 말하길, “색⁵⁵⁹)에 영원함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뿌라즈나빠라미따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보디사뜨와가 감각,⁵⁶⁰ 지각⁵⁶¹), 반응⁵⁶²), 인식⁵⁶³)에 영원함을 부여한다면, 뿌라즈나빠라미따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디사뜨와가 색에 덧없음⁵⁶⁴)을 부여한다면, 뿌라즈나빠라미따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느낌, 인식, 형성, 지각에 덧없음을 부여한다면 뿌라즈나빠라미따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애착의 다섯 구성요소⁵⁶⁵), 다섯 길⁵⁶⁶)과 다섯 법칙의 경우도 이와 같다. 나머지 다른 여

라모트가 ‘등가’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모니에-윌리엄스(Monier-Williams)는 ‘유사하게(to approach from, to come near)’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546) la notion de corps, notion of body, *kāyasaṃjñā*, 覺觀(於身不生覺觀)

547) *kāyasmṛtyupasthāna*, 身念處

548) les trois autres *smṛtyupasthānas*, the other three *smṛtyupasthānas*[application of mindfulness of sensation(*vedanā*), mind and dharmas], 三念處

549) les quatre exercices corrects, four correct practices, *samyakpradhāna*, 四正勤

550) les quatre fondements du pouvoir miraculeux, four foundations of miraculous powers, *rddhipāda*, 四如意足

551) les quatre extases, the four *dhyānas*, 四禪

552) les quatre vérités, four truths(*satya*), 四諦

553) les quatre Dharma, the four dharmas. 四法門

554) les cinq agrégats five aggregates(*skandha*), 五衆

예를 들어 *Samyutta*, III, p. 44: *rūpaṃ bhikkhave aniccam. yad aniccaṃ taṃ dukkhaṃ. yaṃ dukkhaṃ tad anattā, yad anattā taṃ netam marna neso ham asmī na me so attāti.*

TTr. 빅슈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나 없음이다. 나 없음이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일치하는 산스크리트 구절: JRAS, 1913, p. 573; 한역 *Tsa a han*, T 99(n° 84), k. 3, p. 21 c. — 다른 출전들, Rhys Davids-Stede의 경우 궁극적으로 *saṅkhāra*(行)를 의미한다. Vaibhāṣika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네 고통은 *anitya*(無常), *duḥkha*(苦), *sūnya*(空), *anātmaka*(無我)이다(*Kośa*, VII, p. 31).

555) le caractère transitoire, the transitory nature, *anitya*, 無常

556) douloureux, suffering, *duḥkha*, 苦

557) le vide, the empty, *sūnya*, 空

558) non-substantiel, non-substantial, *anatmaka*, 無我

559) la couleur, the color, *rūpa*, 色

560) la sensation, the sensation, *vedanā*, 受

561) la conscience, perception, *saṃjñā*, 想

562) les formations, the formations, *saṃskāra*, 行

563) la connaissance, the consciousness, *vijñāna*, 識

564) une fonction transitoire, the transitory function, *anityapavṛtti*, 無常

565) les cinq agrégats d'attachement, five aggregates of attachment, *upādānaskandha*, 五受衆

566) les cinq destinées, the five destinies(*gatī*), 五道

섯, 일곱, 여덟 법칙 혹은 무량수 법칙까지 모두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마하쁘라즈냐빠라미따는 무량무변⁵⁶⁷)하기에 마하쁘라즈냐빠라미따를 설하는 이유 또한 무량무변하니, 이러한 일이 광대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마하쁘라즈냐빠라미따를 설하는 이유들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⁵⁶⁸) 마무리해 보았다.

567) infinie) et illimitée, infinite(apramāṇa) and unlimited(*ananta*), 無量無邊

568) en résumé, in brief, *samāsataḥ*, 略說